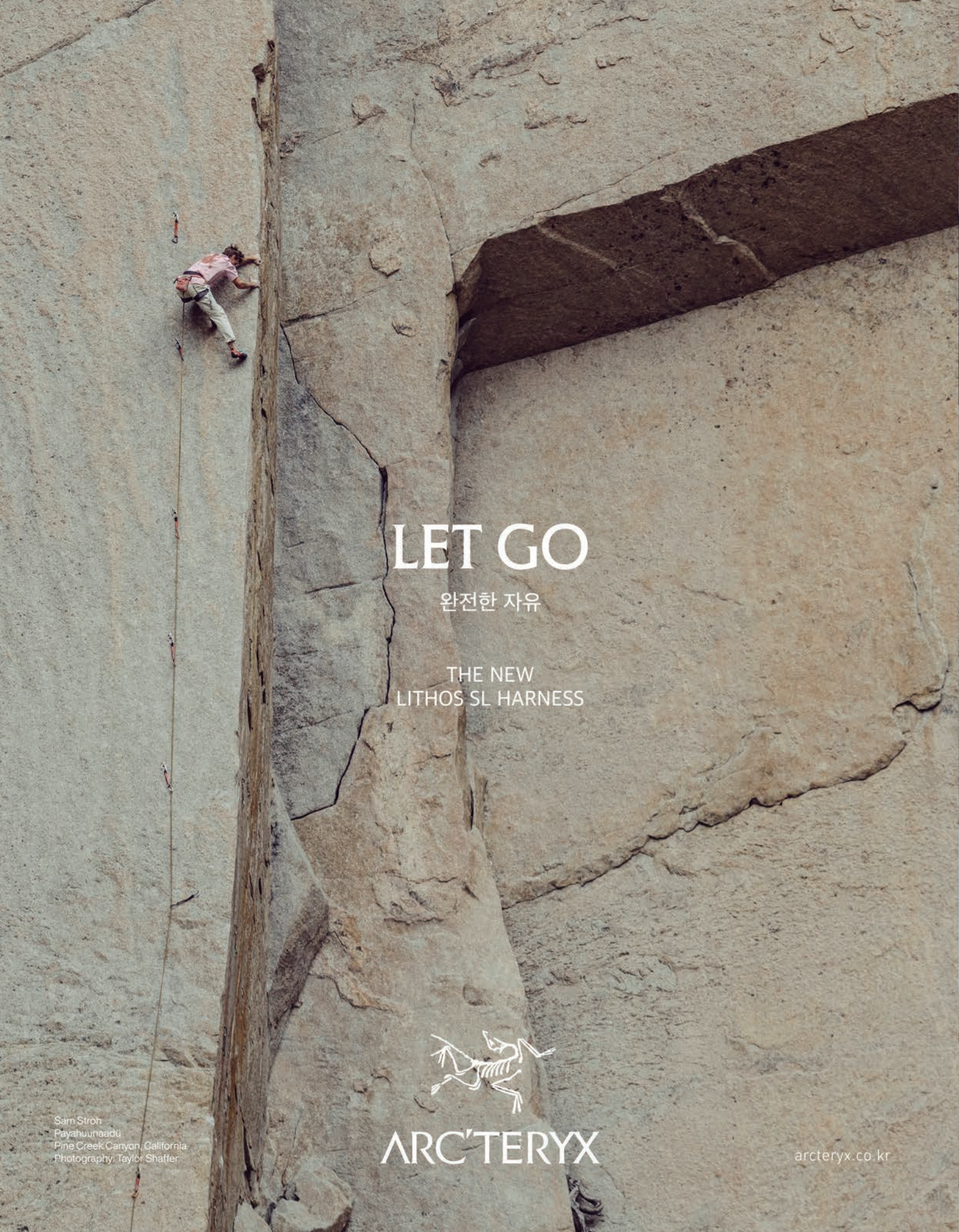


고대로 가는 비밀의 문 가야고분군





LET GO

완전한 자유

THE NEW
LITHOS SL HARNESS



ARC'TERYX

Sam Stroh
Payahuu-naadü
Pine Creek Canyon, California
Photography: Taylor Shaffer

arcteryx.co.kr



이달의 여행 036 고대로 가는 비밀의 문,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 가야고분군을 돌아보며
능선 아래 잠들어 있던 고대의 시간과 만났다.

표지 이야기

경남 창녕 교동고분군

교동고분군의 부드러운 능선. 해 질 무렵이면 멀리 낙동강과 우포늪에서 안개가 피어올라 사위를 신비로운 색으로 물들인다. 교동고분군이 자리한 창녕은 <삼국사기>에 '비사벌'로 기록된 비화기야의 중심지다. 강을 통해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창녕에는 교동고분군 외에도 송현동고분군, 영산고분군, 계성고분군 등 가야의 고분 유적이 분포해 있다. 그중 비화기야의 지배층 무덤인 교동고분군은 송현동고분군과 함께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 가야고분군에서 2026 세계유산축전이 열린다.



세계유산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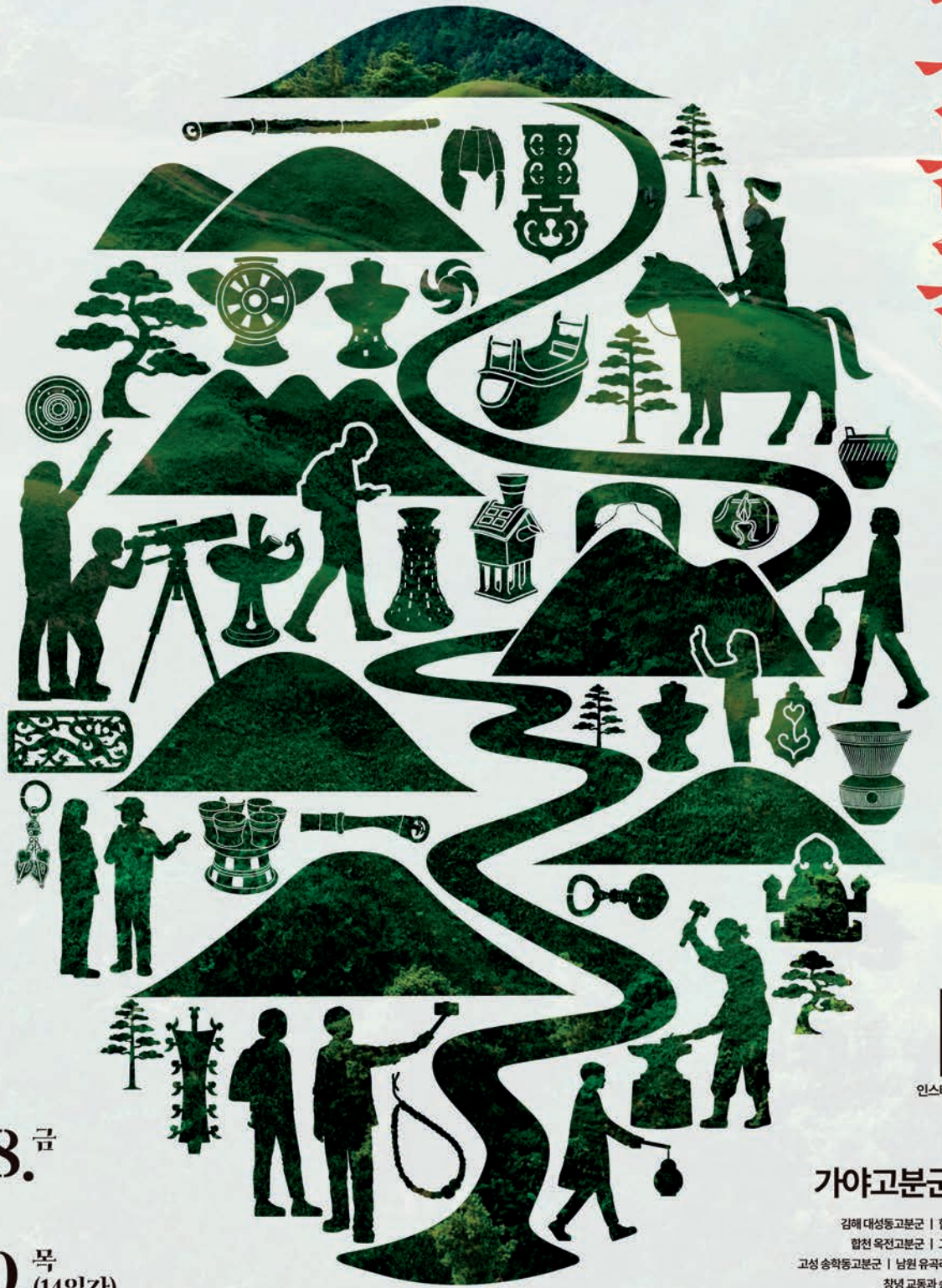
WORLD HERITAGE FESTIVAL : GAYA TUMULI

2026

함께 가는 길, 동행
Seven Sites, One Journey



가야고분군



홈페이지 바로 가기

8. 28. 금

9. 10. 목 (14일간)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7개
가야고분군 일원

강해 대성동고분군 | 할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 고령 자산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일원



016 듣는여행

바다의 크레마

경북 울릉도 행남해안산책로를 걸으며 파도 소리와 함께 바위를 감싸는 크레마를 마주했다.

018 촬영지 여행

악의 없는 희망의 충돌

전남광주 해남에서 촬영한 나홍진 감독의 네 번째 장편영화 <호프>가 베일을 벗었다.

020 여행자의 공간

다음 여정을 위한 리셋, 크래쉬인용산 트랜짓라운지

서울 용산역에서 도보 5분, 짐을 맡기고 한숨 돌리기 좋은 1인 전용 트랜짓라운지가 문을 열었다.

022 한국의멋

시대를 초월한 유리

유리공예가 박선민의 '시간의 연결성'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 유물을 현대 기법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024 한국의맛

춤추는 하모니카

옥수수를 보면 빈 속대를 하모니카처럼 불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른다.

030 전국행사달력

8월의 전시·공연·축제 소식

한여름밤을 특별하게 만들 프로그램이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058 여행의발견

나를 위한 쉼표, 금산

비단에 수놓은 듯 아름다운 충남 금산에서 자연을 벗삼아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다.

074 여름방학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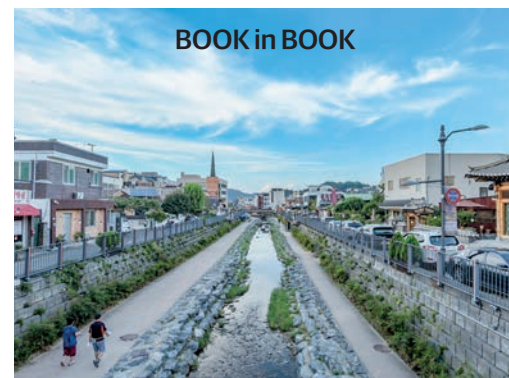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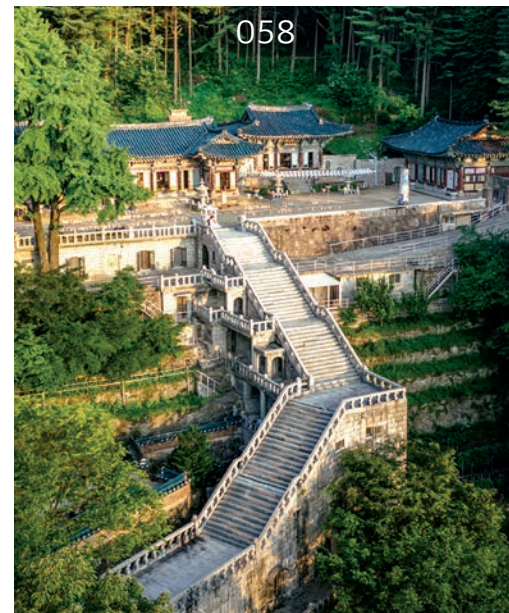
남도에서의 오롯한 휴식, 강진·해남·영암

전남광주의 강진·해남·영암에서 올여름 꼭 가야 할 여행지를 소개한다.

086 기차안 세계여행

김태우 셰프와 떠난 일본 미식 여행

일본 나고야, 기후, 아이치, 시즈오카를 찾아 장어덮밥을 맛보고 현지 식문화를 탐구했다.



BOOK
in
BOOK

made in
CHUNGNAM

충남 서부 내륙권의
공간과 사람,
여덟 가지 이야기

충남 서부 내륙권의 문화유산과 이색 먹거리,
축제 등을 두루 담았다.

2026년 기획전시



Net-Zero,
1.5°C의 경고



시간을 잇는
철도



주거의 전환
나에게 맞춘 집

배우고, 보고, 체험하는 즐거움!

SEE THE LAND
SEE THE FUTURE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02-3425-8900~1



<https://www.molit.go.kr/molitum>



114 인터뷰
누구나 하루 세 번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아워플래닛의 장민영 대표와 김태운 셰프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를 음식으로 풀어간다.

122 한국 탐구 생활
비카의 서촌 웰니스 투어
벨라루스에서 온 비카와 함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서울 서촌의 웰니스 공간을 찾았다.

130 이 계절엔 여기
연꽃 향기 따라 청도 유람
경북 청도에서 아름다운 소나무와 연꽃을 감상하고, 현지인만 아는 숨겨진 명소를 추천받았다.

140 KTX타고 도보 여행
원주 당일치기 나들이
강원 원주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당일 여행 코스를 제안한다.

146 트렌드 읽기
경기장 밖에서도 흥런 치는 야구
야구가 경기장을 넘어 강력한 문화 장르로 자리 잡게 된 서사를 짚어 본다.

148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8월의 소식
대서사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청춘 판타지 드라마 등 장르를 넘나드는 콘텐츠를 골랐다.

160 플레이리스트
주혜린과 떠나는 음악 여행
신예 아티스트 주혜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분다.

INFORMATION

코레일 소식·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열차 이용 안내·비상시 행동 매뉴얼

+일러두기

〈KTX매거진〉은 대한민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약칭으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라는 표현을 생략합니다.

〈KTX매거진〉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스아이바코드



114



122



130



140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새로운 통합 관광 캠페인 충남 트래블 페스타 2026

다가올 여름과 가을에 어디까지 고민할 때,
우리 함께 '충남'으로 떠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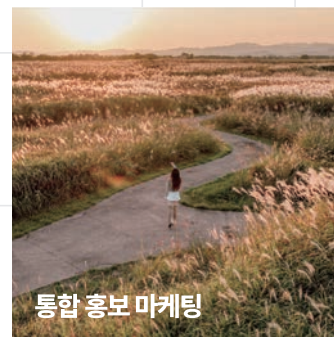
축제 연계형 시즌 상품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명소 인증 챌린지 운영



통합 홍보 마케팅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2026년 08월호

KTX MAGAZINE

제23권 제8호 통권 제266호
2026년 8월 1일 발행

발행인 김태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이미선 editorwhy@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hspst.com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어쩌면 좋아할지도 모를 다른 세계의 발견

한 달이면 족히 50여 권의 책이 편집실로 배달됩니다. 국내 각 출판사가 보내온 신간인데요, 택배 박스를 가운데 두고 기
자들과 둘러앉아 포장지를 뜯다 보면, 이렇게나 많은 책이 이토록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매번 놀라곤 합
니다. 시, 소설, 에세이, 인문과학, 자기 개발, 동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최근 출판계가 주목하는 이슈를 살펴보고, 자유분
방하게 진화하는 북 디자인과 미세하게 서로 다른 종이의 촉감도 느껴 봅니다. 그렇게 새로 나온 책들과 놀다 보면 불현
듯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낱아채듯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 바로 몰랐던 취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와 소설,
인문과학 서적을 좋아하는 저를 전혀 다른 세계로 안내한 주인공은 <작은 사람과 신> <불을 지키는 사람> <바다는
다시 바다가 된다> 같은 동화였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극을 보는 느낌. 글과 사진으로 길을 내어 독자
를 여행지로 안내하는 잡지쟁이 눈에 이 책들은 우주적 상상력이 실현되는 무대로 다가왔습니다. 편집실로 무수한 책
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독서 편식을 당연시했던 저에게 동화는 거의 닿을 수 없는 세
계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할지도 모를 다른 세계가 있다는 설렘, 그 짜릿한 발견의 순간이 늘 기대됩니다.

이달 <KTX매거진>에도 유쾌하고 흥미로우며 신비롭기까지 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먼저 '이달의 여행'에
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다뤘습니다.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함천 옥전고
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등 1~6세기 한
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 시대 고분을 찾아 7개 지역을 누볐습니다. 마을 뒷동산과 아파트 옆 구릉, 경치 좋은 산허리
등에 분포한 무덤을 4박 5일 동안 출근하듯 찾아다녔고,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는 1500년 전 가야인의 이야기에 귀 기
울였습니다. '여행의 발견'에서는 한여름 무더위를 슬기롭게 나는 방법으로 충남 금산의 얼음처럼 차가운 십이폭포 계
곡과 숲속 별장 같은 자연휴양림, 원기 회복을 돕는 금산 인삼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계절엔 여기'에서는 칼럼명과 꼭
맞는 콘셉트로 경북 청도를 조명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고 과수원과 우물길, 청도읍성, 석빙고를 지나가 하면 감
말랭이팔빙수와 아이스홍시셔벗으로 더위를 쫓고, 별이 쏟아지는 밤에는 칵테일을 훌쩍이며 책을 읽는 여정을 카메라
에 담았습니다. 인터뷰 칼럼에서는 기후 위기, 황폐해지는 바다, 동물 복지 등의 문제를 음식으로 풀어가는 지속가능
미식 연구소 아워플래닛의 장민영 대표와 김태운 셰프를 만났습니다. 지역을 탐험하며 잊힌 식재료를 발굴하고 이를
다음 세대 먹거리로 전해 주는 활동을 들으며 '매일 마주하는 밥상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
국 탐구 생활'에서는 벨라루스에서 온 요가 수련 지도자 비카와 서울 서촌의 티하우스, 요가 스튜디오, 채식 요리 전문
점 등을 방문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공간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또 한 번의 8월을 맞습니다.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 비가 쏟아지다가도 언제 그랬냐
는 듯 뚝 그치고, 마시멜로처럼 쫄쫄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는 날들. 번덕스러운 날씨를 보면 당장 코앞의 일
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흐린 뒤 맑음. 데일 듯 뜨거운 계절도 곧 지나갈
겁니다. **KTX**

편집장 최현주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특별전

두 도시, 하나의 불꽃

2 FEUX, 2 FLAMMES

Exposition spéciale du 140^e anniversair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2026. 8.4.TUE -11.8.SUN

JEONNAM MUSEUM OF ART

Jeonnam Museum of Art
Special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고영찬
박인혁
정혜성
조한나
앙토냉 하코
빌슨 페르니스코
피에르 게냐르
샤를로트 자니스
발랑틴 가르디에네

YOUNGCHAN KO
IMHYUK PARK
HYESUNG JUNG
HANNA CHO
ANTOIN HAKO
NELSON PERNSICO
PIERRE GAIGNARD
CHARLOTTE JANIS
VALENTINE GARDIENNET

주최·주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미술관



지원



파리 프랑스문화원(Institut français) 지원

협조



Organized by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Jeonnam Museum of Art
LE WONDER

Supported by
Institut français (Paris)
Avec le soutien de l'Institut français à Paris

In Cooperation with
Jeonju Millennium Hanji Museum

전남미술관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k_jiiiiin_seon



♡ 💬 ↗

KTX를탈 때의모임은 <KTX매거진>을
정독하는 것. '편집장의 글'의 제목처럼
7월엔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고 심취하는
자유를 누릴 생각이다.
#KTX매거진 #여름 #7월 #매거진

@blackmthitnet



♡ 💬 ↗

<KTX매거진> 7월호 '듣는 여행'을 펼치니
개구리 사진이 나온다. 양평 세미원의
연잎 위에 올라앉은 개구리라고 한다.
개구리 소리를 유심히 들어 봐야겠다.
#양평 #세미원 #KTX매거진 #듣는 여행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선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광명'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어 잡지를 집어 들었다.
'나에겐 집인 이곳이 누군가에겐 숨을 고르는 여행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기사를 읽은 후 풀렸다. 도심
속 초록빛이 위안을 주는 가학산과 안양천 전경이 타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다.

장윤영 대구시 수성구 옥수천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차 안에서 <KTX매거진>을
한장씩 넘기다 울릉도 기사에서 시선이 멈췄다. "일출은
어디에서나 예뻐요." 저동마을 주인의 말이 꼭 나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다. 조금 더 건강해지면 대자연의 선물인
울릉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8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주소 KTX@bandicom.com 기간 8월 15일까지

소셜 미디어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돌의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과 자연이 실린
달의잡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이돌 물레 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소노호텔앤리조트 '뉴멤버십' 출시 소노러스라임 신규회원모집

더 가벼워진 입회금액

20년 만기 입회금 반환
3,000만원대 멤버십

더 매력적인 혜택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창립 혜택 최대 50%

20년간 부대시설 할인

워터파크·골프·스키 등
주중 최대 70%



▲ 쓸비치 남해



이용 가능 사업장 전국 18곳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삼척·진도·남해 | 소노캄 고양·경주·거제·여수·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천안·단양·청송·변산·제주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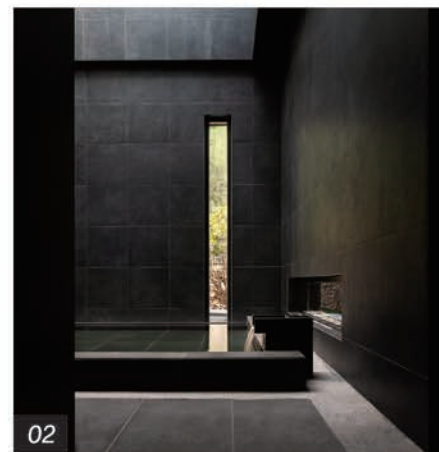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13첩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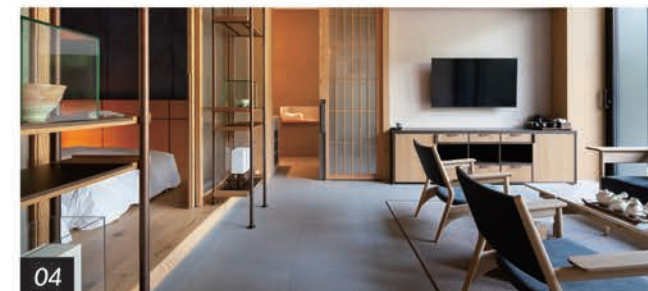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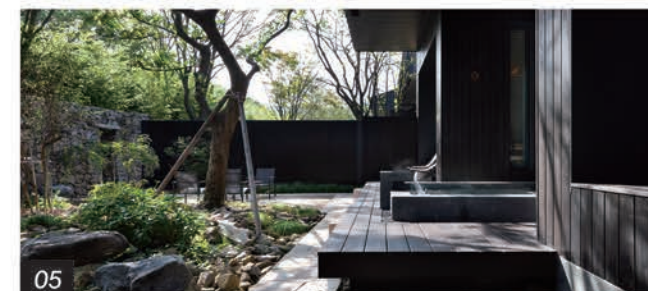
02



03



04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바다의 크레마

시끌벅적한 항구에서 벗어나자 바람과 파도 소리만 남는다.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는 하얀 크레마도
행남해안산책로 트레킹에 동행한다.





악의 없는 희망의 충돌

크리처 액션으로 시작해
외계인이 등장하면서
SF 스릴러로 장르가 바뀐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순간 드라마가
펼쳐진다. 나홍진 감독은 영화
<호프>를 통해 악의 없는
희망과 모호한 죄책감에 대해
얘기한다.



<추격자> <황해>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네 번째 장편영화.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등 국내외 배우들이 출연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SF, 액션, 미스터리,
괴수물, 재난극의 요소가 결합된 작품으로
러닝타임은 2시간 36분이다.

비무장지대 인근의 외딴 마을, 호포항.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비상이 걸린다. 파출
소장 범석은 주민들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가 처참한 광경을 마주한다. 목이 잘린 시체와 건물을 뚫고
지나간 괴이한 흔적. 상대는 호랑이가 아니다. 삽시간에 공포가 확산된다. 얕친 데 얕친 격으로 통신마
저 끊기며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다. 사냥꾼인 성기 일당은 총으로 무장하고 숲과 산으로 추적 범위를
넓히지만,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를 지닌 괴생명체의 표적이 되며 거꾸로 사냥을 당한다. 그사이 마을
에서는 괴생명체들의 공격이 본격화되고, 산참 순경 성애는 범석과 함께 노인들만 남은 마을을 지키
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영화 <호프>는 하루 낮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관객은 범석과 성기의
시선을 따라가며 보이지 않는 괴물을 쫓는데, 영화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도록 괴생명체의 실체를 보여
주지 않는다. 그들이 남긴 흔적과 이를 본 사람들의 말을 통해 존재감만 부풀려질 뿐이다. 마침내 불청
객의 정체가 외계인으로 밝혀지면서 인물 간 갈등이 폭발하고 공포는 극에 달한다. 왔던 곳으로 되돌
아가려는 외계인과 마을을 지키려는 인간이 충돌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해지면서 관객의 마음
은 복잡해진다. 과연 <호프>는 누구의 희망일까.

나홍진 감독은 전남광주 해남군 북평면에 호포항 마을을 구현했다. 마을을 통째로 세트장으로 만들
고, 배우와 스태프가 3개월간 머물며 촬영했다. 해남군은 주 촬영지인 남창리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옛 버스터미널 건물을 영화 속 파출소로 새 단장하고, 거리의 상점 간판도 촬영 당시
모습으로 교체한다. 영화 속 경찰차와 조형물도 배치해 볼거리를 늘리고, 곳곳에 영화 배경과 촬영 이
야기를 담은 안내판과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KTX**



©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BCIT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리조트부문 1위 - 리솜리조트

CCF 소비자중심 2026~2028
소비자중심경영기업인증(CCM)
인증기업

FOREST
RESOM

일생에 단 하루만이라도 머물고 싶은 곳 *분양가 인상 임박 리솜리조트 통합 특별회원 모집

한 곳 한 곳 제대로
테마가 다른 리조트

제천, 안면도, 덕산, 제주에 위치한 리솜리조트는 각기 다른 천혜의
자연환경과 콘셉트로 다양한 휴양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한 곳 한
곳 특별한 테마를 가진 식음, 문화, 휴양 콘텐츠로 가는 곳마다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회원의 만족도가 높다.

바다·호수·설악산 풍광이 어우러진
고성 화진포 리솜(개발예정)

리솜리조트의 다음 프로젝트로 주목할 만하다.
동해 최북단, 바다·호수·설악산 풍광이 어우러진 '고성 화진포'에 약
450실 규모의 웰니스 리조트를 준비중이다. 아울러, 제주 퍼시픽리솜
또한 향후 특급 호텔을 갖춘 복합 해양리조트로 거듭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분양회원의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호반그룹(재계순위 35위) 계열사
안정성 1위 '리솜리조트'

리솜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호반호텔&리조트는 2025년 기준 국내
재계 순위 35위 호반그룹의 계열사로서 기업 신용평가 A+ 등급 등
우수한 신용도를 갖고 있다.
또한, 회원권 분양 및 회원서비스팀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회원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리조트부문 1위 리조트

리솜리조트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리조트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였다.
리솜리조트는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재구매 의도 등 5개 조사
항목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소비자의 직접 투표로
평가 받아 보다 객관적인 고객만족 평가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라이빗 에코리조트 포레스트 리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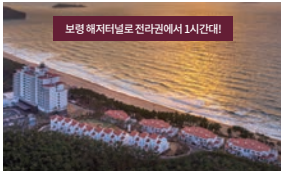
'이런 곳에 어떻게?' 처음 오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평균 해발고도 500m 원시 숲길에 자리한 한 동의 고요한 빌라 객실,
숲에서 즐기는 스파, 쏟아지는 별빛, 새소리에 잠깨는 아침까지 자연이
허락한 지상의 천상휴식을 경험하세요.

리솜리조트 통합회원권 신규혜택

1. 회원가의 최대 50% 할인(1~2년) 2. 스파/워터파크 이용 무료(1년) 3. 스파 등 부대시설 최대 60% 상시할인



문화강성형 휴양리조트 포레스트 리솜&레스트리[제천]



로맨틱 산셋리조트 아일랜드리솜[안면도]



해양문화테마파크 퍼시픽리솜[제주]



사계절 온천리조트 스포러스리솜[덕산]



동해 최북단 휴양지 화진포 리솜(개발예정)[고성]

HOBAN
HOTEL & RESORT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의 카탈로그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주소를 남겨주십시오.

M. 010-9646-7600

상담 T. 02-568-8100



다음 여정을 위한 리셋, 크래쉬인용산 트랜짓라운지

서울 용산역에서 도보 5분. 여행 중 애매하게
비는 시간에 짐을 맡기고 쉬거나
샤워를 하고, 업무까지 볼 수 있는 1인 전용
트랜짓라운지가 문을 열었다.

기차 타기 전, 호텔 체크인 전, 미팅을 앞두고 어중간하게 남은 시간에 무얼 해야 할지
몰라 서성거린 적이 있을 것이다. 잠시라도 짐을 내려놓고 한숨 돌릴 공간이 절실히
지는 순간. 크래쉬인용산 트랜짓라운지는 바로 이런 여행자의 고민을 해소하는 1인
전용 리프레시 공간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크래쉬인용산 트랜짓라운지는 여행 중 잠시 쉬거나 짐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 찾으면 딱 좋은 곳이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체크인 시 개인 출입 코드와 개인실 번호를 발급하고, 필요한 시설을 알차
게 구성했다. 먼저 프리 스토리지에 짐을 맡기고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으로 용산역
이 내다보이는 오픈 워킹 라운지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이어 방음 콜부스와 개인 라
커를 비롯해 무료 커피 바와 프라이빗 개인실 12개가 차례로 자리한다. 개인실 수에
맞춰 시간대별 이용객을 최대 12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특징. 덕분에 언제나 조용하
고 여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개인실에는 리클라이너 의자, 스마트 TV, 고
음질 헤드폰, 스팀 아이 마스크, 귀마개 등 오롯한 휴식을 위한 물품을 갖췄다. 크래쉬
인용산 트랜짓라운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공간은 샤워 부스와 파우더 룸이다.

각종 세안용품과 드라이어, 고데기는 물론 고급 퍼퓸과 스탠드형 다리미까지 비치해
중요한 일정을 앞둔 여행자의 몸단장을 책임진다.
부담 없는 가격도 매력적이다. 이용 요금은 1시간에 1만 원, 심야권(4~6시간)은 평일
4만 원, 주말 5만 원이다. 공항철도 서울역 15번 출구에서는 픽업 서비스도 운영한다.
예약은 홈페이지(crashin-yongsan.com/lounge)에서 가능하다. **KTX**
주소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154

© 크래쉬인용산 트랜짓라운지



대표원장 조찬호

명예원장 이시형

청담셀의원 조찬호 대표원장, 이시형 명예원장

줄기세포로 자연 치유력을 높이다

단순히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 방법은 없을까.
청담셀의원 조찬호 대표원장과 이시형 명예원장을 만나 건강 수명을 늘려 젊게 사는 비법을 들었다.

웰빙 트렌드가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진짜 항노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줄기세포 헬스케어 디자인에 특화된 청담셀의원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선 면역력을 해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과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 주치의 이시형 명예원장과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스페셜리스트 조찬호 대표원장에게 자연 치유력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다.

두 분 모두 안티에이징의 핵심 개념으로 '자연 치유력'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힘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은 본래 항상성과 재생력, 면역력을 갖고 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이 자연 치유력의 근간입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항노화 의학도 결국 자연 치유력과 회복 시스템이 더욱 잘 작동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학을 설명할 때 자연 치유력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연 치유력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이시형 명예원장** 누구나 움직이고 활동하는 '행동 체력'과 병을 막고 극복하는 '방어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행동 체력만으로 건강을 판단하지만, 방어 체력이 떨어지면 쉽게 치치고 잔병치레가 잦아지며 회복도 느려집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을 오래 유지하려면 결국 면역력, 자연 치유력과 연관된 방어 체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피로가 오래 지속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몸의 회복 기반이 흔들린 분이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는 큰 이상이 없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른바 '건강 회색 지대'에 있는 거죠. 방어 체력을 살펴야 한다는 이 명예원장님 말에 공감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면역과 재생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치료에 앞서 생활 습관을 먼저 파악합니다.

장수 비결도 생활 습관에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맞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 꾸준한 명상과 운동, 그리고 만성피로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력을 해치지 않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게 중요하죠. **조찬호 대표원장**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미 회복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노화가 누적됐을 때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치나 면역력의 개인차도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학적인 관리를 병행하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들 수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줄기세포 치료는 본래 몸이 가진 회복 시스템을 돕는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담셀의원은 건강검진 결과와 기능의학 검진, 유전자 검사를 종합해 개인별 건강 패턴을 다시 설계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신 정맥주사 '청셀(淸Cell)'부터 피부 개선 '미셀(美Cell)', 탈모 치료 '모셀(毛Cell)', 성기능 개선 '성셀(性Cell)', 통증 관리 '활셀(活Cell)'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저도 수차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방식이지요. 이 같은 관리는 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시형 명예원장** 내 몸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식사와 수면, 마음가짐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티에이징 출발점이 아닐까요. **조찬호 대표원장** 줄기세포 기반 접근은 회복력이 떨어진 몸의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재생의학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회복 기반을 끌어올려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료 소비자들에게 늘 '시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유리

유리공예의 역사는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롱 끝에 녹인 유리를 문힌 뒤 입으로 불어 형태를 만드는 ‘대롱 불기 기법’(현대 불로 기법의 시초)이 개발되면서 유리는 로마 전역에 퍼졌고, 실크로드를 거쳐 한반도로 전해졌다. 유리공예가 박선민의 ‘시간의 연결성’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로만 글라스와 유리제 사리병을 떠올리게 한다. 표면에 파우더와 ‘유리 입자(glass frit)’를 여러 겹 입혀 세월에 바랜 듯한 고대 유리 유물의 패턴을 구현했다. 차분하면서도 고아한 멋을 지닌 작품은 8월 30일까지 서울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만날 수 있다. **KTX**

고전을
오늘로
가치를
미래로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연구·번역·보급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킵니다.





춤추는 하모니카

겉껍질이 싸인 겹질을 한꺼풀 벗기자 자줏빛 흑찰옥수수 알맹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아메리카 대륙이 고향인 옥수수는 임진왜란 전후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왔다. 흑찰옥수수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2000년대 초반. 농촌진흥청이 미흑찰, 흑진주찰 등의 품종을 개발하면서 대중화됐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 혈관 노폐물 배출, 시력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흑찰옥수수는 7~9월이 제철이다. 속껍질을 한두 장 남겨 둔 채 푼 찜면 쫄면 식감과 구수한 단맛이 배가된다. 옥수수의 빈 속대를 입에 대고 하모니카처럼 불던 어린 시절 추억도 함께 떠오른다. **KTX**



고대로 가는 비밀의 문
가야고분군

20
26
08

월평균 800만 명이 보는 최고의 광고 효과

〈KTX매거진〉 광고주를 모십니다.

일평균 27만 명, 월평균 800만 명이 〈KTX매거진〉을 만납니다.

국내 최고의 열독률을 자랑하는 고품격 문화 여행지,

〈KTX매거진〉이 광고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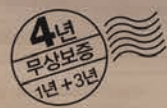
문의 02-2276-1190, jony2@bandicom.com

Panaso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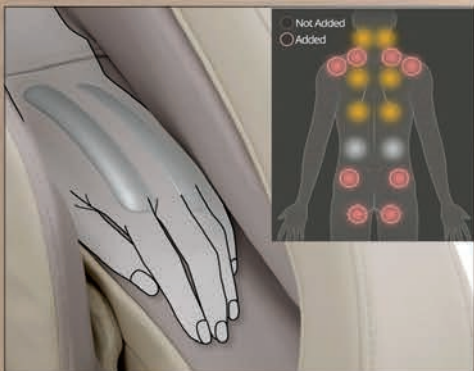
프로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만들다

AI가 상태를 읽고, 휴식을 디자인하다

REAL PRO MAN2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91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결림 부위를 감지하는
리얼프로 AI



체형 맞춤 영역 선택
6,136개의 정밀 마사지



마사지전 예열로 긴장 완화
즉각 온열 시스템



아이보리

웜 그레이

MAN2 출시 기념 이벤트 진행중

자세한 내용은 파나소닉 홈페이지 (panasonic.co.kr) 참조



가까운 매장 찾기

고객상담실
1588-8452
panasonic.co.kr

파나소닉 New 플래그십 안마의자, 리얼프로 EP-MAN2

섬세한 AI 분석으로 몸의 결림을 감지하고, 나만을 위한 맞춤 마사지를 구현하는
파나소닉 리얼프로 EP-MAN2가 새롭게 출시됐다.



아이보리

리얼프로 AI가 읽어 내는 몸의 결림

EP-MAN2의 핵심은 파나소닉의 AI 기반 마사지 기술 '리얼프로 AI'다.
손바닥 경직도 감지 센서와 롤러 압력 데이터를 통해 결림 부위와 근육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어깨·견갑골·허리 위치까지 인식해 체형에 맞춤 압력과 동작을 설계한다.

6136 포인트의 정교한 마사지

총 6136개 마사지 포인트의 조합으로 목,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며,
SJ 프레임과 4개의 롤러가 넓은 신체 부위를 섬세하게 자극한다.
울트라 니드(ultra knead) 기술은 엄지손가락의 섬세한 동작을 모티브로
근육 깊숙한 곳까지 부드럽게 풀어 준다.

온열과 편의성을 더한 플래그십

무릎 뒤 오금 부위의 즉각 온열 시스템이 마사지 전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주어 보다 깊은 휴식을 돕는다.
130~170도 리클라이닝과 수직형 터치 패널, 블루투스 오디오, USB 포트도 사용성 역시 플래그십에 걸맞게 완성했다.

리빙 공간에 스며드는 디자인

아이보리와 웜 그레이 컬러의 모던한 디자인은 다양한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탈부착 가능한 쿠션을 활용해 1인용 소파로 이용할 수 있다.



웜 그레이

파나소닉 리얼프로 EP-MAN2는 몸 상태를 섬세하게 읽어 내는 AI와 정교한 마사지 기술로, 일상 속 깊은 휴식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플래그십 안마의자다.

지속가능한 여행의 시작, 탄소 없는 여행 in 진주

여행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변화한다. 플로깅과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 친환경 캠핑까지.
'탄소 없는 여행 in 진주'에서 지속 가능한 여행의 즐거움을 오롯이 경험한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요즘, 여행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탄소 없는 여행 in 진주'는 걷고, 만들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행을 실천하는 친환경 여행 프로그램이다. 2022년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해 시작된 이후 매해 새로운 거점을 중심으로 진주의 다양한 공간을 소개했다. 올해는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를 무대로 9월 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한다.

'탄소 없는 여행 in 진주'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화석연료 사용 금지. 둘째, 일회용품 사용 금지. 셋째, 재활용 불가 쓰레기 배출 금지. 참가자는 이 원칙 아래 자전거나 도보로 도시를 여행하

고, 플로깅과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 친환경 캠핑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올해의 거점인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섬유, 목공, 도자,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가들이 창작, 연구, 전시, 교육, 국제 교류를 이어 가도록 지원하는 공예 문화 플랫폼이다. 지역 공예인의 창작 기반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공예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예 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탄소 없는 여행 in 진주'도 이곳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먼저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목공예를 체험하고, 쓰임

제작 지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을 다한 텐트 천이나 플로깅으로 수거한 페플라스틱과 병뚜껑 등을 모아 정크아트 작품을 만든다. 쓰러기로 여겼던 재료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버려진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ESG 및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도 진행한다. 친환경 아웃도어 그룹 클린하이커스의 김강은 대표와 함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돌아보고, 실천 가능한 탄소 중립 방법을 고민한다. 별생각 없이 해 온 소비가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일회용품 대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용품을 찾아보면 환경문제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여행의 마지막은 '야숙(夜宿)'이 장식한다. '2026 진주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한 일정으로,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야간 콘텐츠로 색다르게 만날 기회다. 야숙의 메인 프로그램은 친환경 전기 유람선인 김시민호를 타고 진주성 일대 야경을 감상하는 수변 투어다. 1.76킬로미터 길이의 진주성 성곽에 조명이 켜지면 한층 운치 있는 풍경이 연출된다. 반응형 인터랙티브, 라이브 스케치,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국가유산과 결합해 선보이는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도 열려 함께 즐기기 좋다. 올해는 '가온누리, 진주성도'를 주제로 진주성의 호국 역사를 화려한 빛과 영상으로 재해석해 구현했다. 역사적 공간인 진주성이 미디어 아트와 어우러지며 낮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디로든 떠나기 좋은 계절,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주를 여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택시를 타는 대신 두 발로 걷고, 생수를 사는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은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진주에서 보내는 사흘간의 여행,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탄소 없는 여행 in 진주'의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은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jinjucraftcente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KTX**

탄소 없는 여행 in 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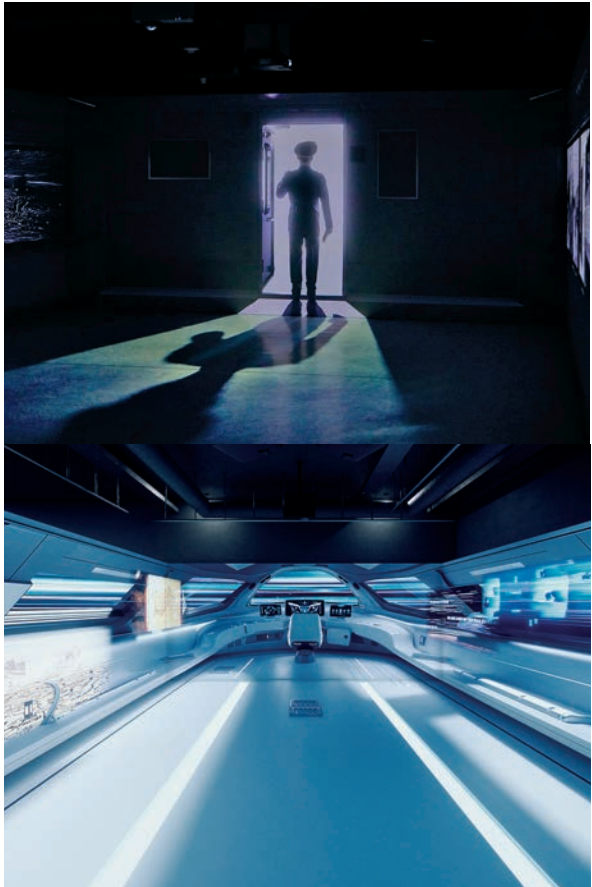
기간 9월 4일~6일

장소 경남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일원

문의 055-746-3631



EXHIBITION



〈시간을 잇는 철도〉

서울 04.28~10.31

2017년 개관한 국토발전전시관은 한국의 국토·도시·교통 발전사를 한눈에 보여 주는 체험형 종합 역사관이다. 이곳에서 기획전 <시간을 잇는 철도>가 열리고 있다. 대한제국 시기 고종 황제의 자주적 철도 도입을 위한 노력부터 석탄을 나르던 산업 열차, 삶을 잇는 KTX, 미래의 하이퍼루프 열차 및 대륙으로 뻗어 나갈 철도까지, 철도의 발전사를 5면으로 구성한 실감 영상 콘텐츠를 선보인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시청역에 하차해 15분 정도 걸으면 국토발전전시관이 나온다.

장소 서울 국토발전전시관
문의 02-3425-8900



〈바깥을 향한 속삭임〉

대구 07.07~10.25

대구미술관의 대표 기획전 시리즈인 '대구포럼'의 다섯 번째 행사가 개최된다. 국내외 작가 여덟 명이 거대한 담론 속에 가려진 현대의 미세한 변화와 감정에 주목했다. 베트남의 타오 응우옌 판은 식민주의와 전쟁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기억의 잔향을 불러내고, 한국의 김수자는 몸의 언어를 통해 삶이 새겨 온 시간의 흔적을 드러낸다. 이 외에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40여 점을 전시한다. 동대구역에서 대구미술관까지 차로 25분 소요된다.

장소 대구미술관
문의 053-430-7522



〈헬스키친〉

서울 07.24~11.08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폭발적 반응을 일으킨 뮤지컬 <헬스키친>이 한국을 찾는다. 작품은 1990년대 뉴욕의 거친 거리에서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앨리의 일상을 그려 낸다. 앨리사 키스의 명곡 'Fallin' 'If I Ain't Got You' 등이 인물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몰입도를 높인다. 앨리 역에 손승연·김수하·박지원이 출연하고 싱글맘 저지 역은 박혜나·최현선이 맡는다. 수서역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선릉역에서 환승 후 역삼역에 내리면 도보 5분 거리에 GS아트센터가 있다.

장소 서울 GS아트센터
문의 1577-3363



프랜시스에 3

SHOW



〈갈매기〉

서울 08.09~31

2011년 1층 객석을 모두 걸어 낸 실험적 무대와 파격적 연출, 압도적 캐스팅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극단 맨씨어터의 <갈매기>가 15년 만에 돌아왔다. 전미도가 8년 만에 연극으로 복귀해, 빛나는 미래를 꿈꿨으나 삼류 배우로 전락한 니나를 연기한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치열하게 방황하는 인물들이 현대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수서역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강남구청역에서 환승 후 어린이대공원역에 내려 5분 정도 걸으면 티켓링크 1975 씨어터에 도착한다.

장소 서울 티켓링크 1975 씨어터
문의 1577-3363



3프랜시스에



안동 국가유산 야행 '월영야행'

안동 07.31~08.09

달빛을 따라 월영교 일대를 거닐며 안동의 국가유산을 탐방하는 월영야행이 올해로 10회를 맞는다. 8㉙(夜)를 테마로 한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숨결이 깃든 국가유산을 색다르게 경험한다. 여름밤을 특별하게 만들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야간 스냅 촬영 및 반려견 야행 동행증을 발급하는 '월영 멍멍 촬영소', 야간 명상 프로그램인 '선성현의 밤,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활인심방)' 등이 눈길을 끈다. 안동역에서 월영교까지 차로 15분 정도 걸린다.

장소 경북 안동 월영교 일원
문의 054-840-3442~5



제4회 강진하맥축제

강진 08.27~29

시원한 맥주, 다채로운 공연, 풍부한 먹거리로 무더위를 날려 주는 축제, 강진하맥축제가 돌아왔다. 네덜란드의 홉과 강진의 쌀귀리를 결합한 강진 고유의 맥주 '하멜촌맥주'와 함께 강진에 머물렀던 헨드릭 하멜을 기리는 축제로 2023년에 처음 시작했다. 입장료 1만 원을 내면 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마지막 날 펼쳐지는 강진 하맥 록 페스티벌에는 이무진, 크라이넛, 노브레인 등이 참여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강진역에서 축제장까지 차로 5분 소요된다.

장소 전남광주 강진종합운동장
문의 061-430-3357



전국 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기차 타고 가는

8월 전국 축제

기차와 연계 교통으로 즐기는 8월의 전국 축제를 총정리했다.

1

영동



2026 영동포도축제

기간 8월 27일~30일

장소 충북 영동레인보우힐링관광지
찾아가는 법 영동역에서 차로 4분

2

전주



2026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기간 8월 14일~16일

장소 전북 전주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찾아가는 법 전주역에서 200번 버스를 타고 전주대학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5분

3

강진



제4회 강진하맥축제

기간 8월 27일~29일

장소 전남광주 강진종합운동장
찾아가는 법 강진역에서 차로 5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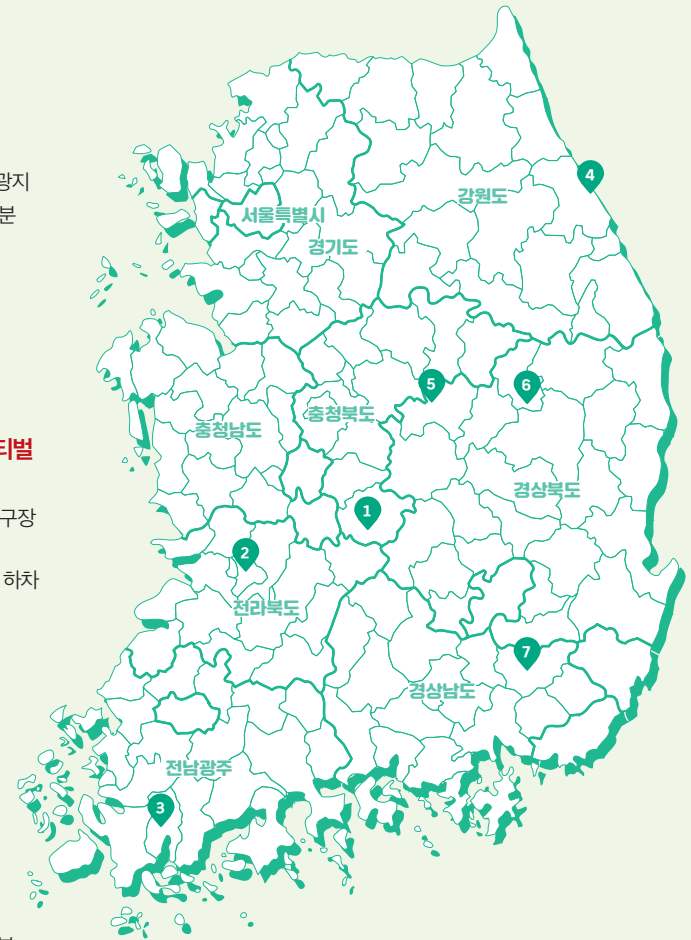
강릉



강릉 국가유산 야행

기간 8월 14일~16일

장소 강원 강릉대도호부관아
찾아가는 법 강릉역에서 300번 버스를 타고 한국은행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분



제주도

5

문경



문경 좀비워터나이트 시즌 2

일시 8월 8일 오전 10시~오후 9시
장소 경북 문경에코월드
찾아가는 법 문경역에서 차로 20분

6

영주



2026 영주 시원나잇페스타

기간 7월 31일~8월 2일
장소 경북 영주시민운동장 일원
찾아가는 법 영주역에서 8-1번 버스를 타고 시민운동장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7

밀양



2026 밀양 슈퍼 페스티벌

기간 8월 7일~9일
장소 경남 밀양 삼문동 밀양강변 일원
찾아가는 법 밀양역에서 1번 버스를 타고 밀양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EVENT

퀴즈 풀고 KTX 할인 쿠폰 받자!

응모 방법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퀴즈에 참여하세요. 정답은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응모 기간 8월 1일~20일

상품 KTX 운임 10퍼센트 할인 쿠폰 10명(1인 2매)

당첨자 발표 8월 28일, 기차여행 홈페이지 (korail.com/tour/main)에 공지





강릉 바다로 떠나는 2색 피서 여행

1



2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 동해안의 푸른 물결을 품은 강원 강릉이 울여름 가장 시원한 피서지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를 맞아 8월 추천 여행지로 강릉 피서지의 두 축을 이루는 경포해변과 주문진해변을 선정했다. 테마는 '뜨거운 여름, 가장 시원한 선택, 강릉 바다 2색 피서 여행'. 역동적인 여름 축제와 여유로운 웰니스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최고의 여정도 제안한다.

활기와 낭만이 넘치는 경포해변 & 주문진해변

강릉시청이 추천하는 첫 번째 명소는 바다와 호수,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경포해변이다. 드넓은 백사장과 청량한 동해 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즐기는 액티비티의 천국이다. 낮에는 탁 트인 바다에서 해수욕과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 좋다. 특히 경포해변의 오리바위 다이빙은 짜릿한 스릴을 선호하는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해 질 무렵 경포호 주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다.

북부권 대표 피서지인 주문진해변은 시원한 바다와 함께 해변을 감싸안은 울창한 송림이 매력적인 힐링 포인트다. 수심이 비교적 낮고 물결이 잔잔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인근엔 전 세계 K-팝 팬 성지인 'BTS 버스 정류장'과 드라마 <더

글로리> 촬영지 등 트렌디한 포토존이 자리해 젊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해수욕 후에는 주문진수산물시장을 찾아가 항구도시 특유의 생생한 활력을 느끼며 신선한 해산물과 모듬회를 맛볼 수 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은둔형 피서를 원한다면 강문해변이나 사근진해변, 연곡해변을 추천한다. 경포해변이나 주문진해변에 비해 한적해 혼자만의 사색이 가능하다. 강릉에는 여행자의 발길을 붙드는 맛집도 즐비하다. 더위를 한 방에 날려 줄 새콤한 물회와 회국수로 입맛을 살리고, 디저트로 강릉 명물인 젤라토와 시원한 빙수를 맛보면 완벽한 미식 여행이 완성된다.

젊음의 낭만을 더하는 여름 축제

낮 동안 바다를 즐겼다면 밤에는 다채로운 K-컬처 문화 행사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8월 22일까지 '2026 경포 여름 해변 축제'가 열리는 것. 여름 성수기의 정점인 8월 5일까지는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해변 특설 무대를 인기 가수 공연과 짜릿한 EDM 퍼포먼스가 화려하게 장식해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강원 지역 최대의 독립 영화 축제인 '정동진독립영화제'도 개최된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영화제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강릉시 정동



제작 지원 강릉시청

1 노을이 아름다운 주문진의 소돌항.
2 '2026 경포 여름 해변 축제'가 펼쳐지는 경포해변.
3 주문진해수욕장의 BTS 버스 정류장.



3

초등학교 운동장과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정동진독립영화제는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시원한 바닷바람에 풀냄새를 맡으며 자유롭게 영화를 감상하는 축제다. 해가 지면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은 은막의 스크린을 밝히며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야외극장으로 변모한다. 이번 영화제에는 단편 1276편, 장편 74편 등 총 1350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뜨거운 경쟁을 벌였다. 이 중 최종 선정된 26편과 지난 해 제작 지원작 단편 1편을 포함해 총 27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올해도 모든 상영작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KTX**

고대로 가는 비밀의 문 가야고분군

질은 어둠이 물러가고 안개가 걷히자 부드러운
능선 아래 잠들어 있던 시간이 깨어난다. 1500년 전 최고 권력을 누렸던 이들이
비밀의 문을 열고 건너와 사라진 역사의 틈을 촘촘하게 메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고분군은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이뤄졌다.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는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 연맹 형태로, 때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생했다. 초기에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가 우세했지만,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가야는 뛰어난 철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교류하며 5세기 후반 전성기를 누렸으나, 562년 대가야의 멸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가야고분군은 기록이 거의 남지 않아 '잊힌 왕국'으로 불리는 가야 문명의 소중한 유적이다. 동아시아의 여러 고대 문명 가운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왕국들이 경쟁하면서 공존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합천 옥전고분군

경남 합천군 쌍책 지역 일대의 가야 정치체*를 대표하는 고분군. 용과 봉황이 새겨진 큰 칼과 다량의 철제 무기류, 금은 장신구 등이 출토돼 가야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또한 고대의 구슬이 많이 출토돼 '옥전(玉田)'으로 불렸다고 한다. 황강 주변 구릉지에 위치하며 1980년대까지 숲으로 덮여 있었다.

조성 시기 4~6세기 **위치**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23-18
문의 055-930-4882(합천박물관)



김해 대성동고분군

금관가야 지배층이 묻힌 고분군이다. 초기 가야 정치체의 공통적인 고분의 속성이 잘 드러난다.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온 교역품은 금관가야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 준다. 고분군이 형성될 당시에는 남쪽이 바다였으나, 퇴적물이 쌓이고 여러 차례 매립 공사를 거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 바다와 완전히 멀어졌다.

조성 시기 1~5세기 **위치**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26 **문의** 055-350-0401(대성동고분박물관)

*정치체 정치적 권력이 작동하는 공동체나 사회조직. 국가나 부족 연맹, 초기 국가 단계 등 통치 권력이 성립된 조직을 가리킨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비화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 발굴 초기 신라와 가야 중 어느 곳의 유적인지 알 수 없어 논란이 있었지만, 무덤 형태와 부장품을 통해 가야 고분임을 밝혀냈다. 5세기의 고분은 구릉지 능선에, 6세기의 고분은 구릉지 동쪽 사면에 위치한다. 가야 멸망 후 7세기 후반까지 신라 고분이 추가됐다. 일제강점기에 대대적인 발굴이 이뤄져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됐지만 대부분 일본으로 반출되고 고분은 파괴됐다.

조성 시기 5~6세기 **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4(교동고분군), 송현리 102(송현동고분군)
문의 055-530-1500(창녕박물관)



고령 지산동고분군

가야 후기 북부 지역을 통합하며 성장한 대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 고분 수백 기가 산 정상부부터 낮은 구릉까지 밀집돼 있어 대가야 최전성기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대형 고분은 주 능선을 따라 연속적으로 조성하고, 중소형 고분은 가지 능선 사면부에 배치했다. 부근에 대가야박물관과 왕릉전시관이 있다.

조성 시기 5~6세기 **위치**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
문의 054-950-7103(대가야박물관)



함안 말이산고분군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 가야고분군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조성됐다. 목관묘부터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등 묘제에 따라 봉토의 크기가 거대해지는 단계를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함안분지 중앙,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독립된 구릉지에 조성되어 경관이 뛰어나다. 유적으로 지정되기 전 주민들이 봉분의 경사지를 일궈 농사지은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성 시기 1~6세기 **위치** 경남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153-31
문의 055-580-3901(함안박물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중 유일하게 전북에 위치해 가야의 지리적 범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유곡리와 두락리에 40여 기의 고분이 분포한다. 중국계 청동거울과 백제계 금동 신발, 목걸이, 유리구슬은 백제 왕릉의 부장품과 흡사하지만, 토기의 세부 양식에서 대가야의 흔적이 보여 대가야와의 관계성을 드러낸다.

조성 시기 5~6세기 **위치** 전북 남원시 성내길 35-4 **문의** 063-620-6158(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홍보관)

고성 송학동고분군

소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무기산 일대에 고분 7기가 모여 있다. 낮은 구릉지에 봉토를 높게 쌓고 상부를 굴착해 매장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다. 금동 귀걸이, 금동 장식 큰 칼, 높은 청동 잔, 유리구슬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소가야는 주변 가야 연맹은 물론 백제, 일본 과도 교역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성 시기 5~6세기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 **문의** 055-670-5822(고성박물관)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

사학자에드워드 할렛 카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규정했다. 고대에 죽은 이의 무덤인 고분은 지금을 사는 우리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궁금증을 품고 가야고분군을 찾았다.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차원으로 가는 입구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반도 남부에서 500년 이상 존속한 고대국가지만, 가야사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이고 부정확하다. 6개 나라로 구성됐으며, 시조는 김수로왕 이고 부인은 허황옥이라는 정도가 전부다. 교육기관에서 가야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존재했으나 낯설기만 한 가야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가야고분군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며 종종 땅속에 잠든 이들이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긴 시간을 건너와 말을 거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고분을 보고 나면 점선처럼 끊긴 시간의 빈칸을 채울 수 있을까. 잊힌 역사의 단서를 찾아 비밀의 문을 열었다.

금관가야부터 대가야까지, 500년을 거슬러 올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가야의 대표 고분군 7개를 묶은 연속유산이다.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까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김해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찾아 백승옥 사무처장에게 가야고분군 감상법을 물었다. 그는 무엇보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둘러보라고 말했다. "고분군은 24시간 개방해요.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고분을 감상할 수 있는 새벽이나 해 질 무렵, 별과 달이 뜨는 시간에 방문해보세요. 문화 해설을 예약하면 유물의 의미와 상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7개 고분군을 모두 둘러본 다음에는 가야사 특화 박물관인 국립김해박물관을 들르면 좋다고 덧붙였다. "테마를 정하고 여행하는 것도 의미 있어요. 묘제와 토기를 보면, 왜 가야를 각각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된 정치체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백승옥 사무처장이 권한 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금관가야 권역인 김해 대성동고분군에 들렀다가 내륙으로 올라가면서 아라가야 권역인 함안 말이산고분군과 함께 대가야 권역인 고령 지산동고분군 등을 둘러보기로 했다.





가야 고분은 왜 95퍼센트 이상 도굴됐을까

금관이 여러 점 출토된 신라 고분과 달리 가야 고분에 꺼묻은 금관과 금동관은 대부분 도굴당했다. 가야 돌덧널무덤은 신라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야에서는 땅을 파고 돌방을 만들어 관을 넣고, 부장품을 위한 부곽을 따로 만들었다. 그 위에 커다란 돌 뚜껑을 덮은 다음 봉분을 조성했다. 반면 신라에서는 평지에 나무로 방을 만들어 관과 함께 부장품을 안치했다. 그리고 큰 돌들을 소복이 쌓은 다음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다. 가야 고분은 나무 꺾이 썩더라도 뚜껑이 내부를 보호해 형태가 유지됐지만, 신라 고분은 나무 꺾이 썩으면 돌덩이가 내려앉는다. 가야 고분은 튼튼하지만 도굴당하기 쉬운 구조다.



1 창녕박물관 옆에 위치한 계성고분이전복원관. 비화가야의 무덤으로 열두 방향방사형으로 조성한 것과 봉분을 크고 높게 만들기 위해 점도가 서로 다른 흙을 번갈아 쌓은 것이 확인된다. 2 국내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 무덤인 지산동 44호분 내부를 재현한 고령 대가야박물관의 왕릉전시관. 관람객이 실물 크기로 만든 고분 안에 들어가 무덤 구조와 축조 방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3 함안박물관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 사이의 쉼터. 넓은 프레임 안으로 말이산고분군이 한눈에 들어온다. 4 대성동고분군 88호분 덧널무덤 발굴 당시를 재현한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가야사의비밀을푸는열쇠,고분

두꺼운 잿빛 구름이 지표 가까이 내려오더니 밤사이 비가 지나가고 하늘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둠이 걷히기 전 서둘러 대성동고분군으로 향했다. 운동 나온 주민들이 여명을 헤치고 고분군이 있는 구릉 위를 오른다. 드론을 띄워 주변을 살피니 철로 아래로 강이 흐르고, 고분군 주변에 키 작은 집들이 밀집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나 가야유적이라는 거창한 수식어 이전에 주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공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야트막한 구릉지에 터를 잡은 대성동고분군은 고분 하면 연상되는 봉분이 없다. 나무로 널방을 만들고 뚜껑을 덮은 나무 덧널무덤의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가 함몰된 탓이다. 무덤인 줄 모르고 그 위에 집을 짓거나 밭을 일궈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그제야 이해된다. 대성동고분군은 발굴 조사 후에도 발견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봉분을 만들지 않고, 고분이 있던 자리에 회양목을 심어 무덤 형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가야의 고분 양식은 널무덤, 덧널무덤, 구덩식 돌덧널무덤, 굴식 돌방무덤 순으로 변화했다. 널무덤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관(널)을 묻는 형태이고, 덧널무덤은 나무로 방을 만들어 관을 넣는 방식으로 부장품 꺼묻을 공간이 넉넉했다. 3세기 후반부터는 대형 덧널무덤이 등장했고, 장례에 더 많은 재물을 소비했다. 순장이 시작된 것도 이즈음이다. 구덩식 돌덧널무덤은 4세기 후반 금관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돌을 쌓아 벽을 만들고 위에서 관을 넣는 방식으로, 이때부터 거대한 봉분을 갖춘 고총으로 발전했다. 6세기에 들어서자 켄들로 널방을 만들고 외부로 통하는 널길을 만든 뒤 흙으로 씌운 돌방무덤이 등장한다. 널길은 추가로 매장할 것을 고려한 형태다.

가야고분군을 더욱 흥미롭게 여행하려면 야외 전시장에서 시기별 무덤 형태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는 명당을 찾아 각기 다른 시대에 이중으로 묘를 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굴식 돌방무덤의 널길은 물론 대형 봉분을 조성하기 위해 점성이 다른 흙을 겹겹이 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령 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에는 장소 선정부터 무덤구덩이 파기, 돌방과 돌덧널 만들기부터 봉분을 만들고 제사 지내는 전 과정을 설명한 디오라마를 전시했다.

고분에서출토된토기가들려주는이야기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의 틈에 잠들어 있다가 밤이면 어둠을 가르고 나와 축제를 연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 무덤 안에 이토록 많은 부장품을 넣은 걸 보면 가야인도 똑같은 생

각을 했는지 모른다. 가야고분군에서 출토된 부장품 중 가장 귀여운 유물은 사슴모양뿔잔이다. 사슴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을 포착한 상형 토기로, 타원형 몸체와 과장된 엉덩이, 아래로 처진 꼬리가 절로 미소 짓게 한다. 그 위에 U자형 뿔잔을 올려 완성했다. 굽다리에 새긴 불꽃무늬구멍은 아라가야 유물임을 드러낸다.

가야고분군을 흥미롭게 여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각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능수능란하게 불을 다룬 가야인은 기원전 1세기 무렵 와질 토기를 만들었다. 질감이 기와와 비슷하고 회흑색을 띠는 와질 토기는 주로 무덤에서 출토되어 제사 그릇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3세기 후반에는 기술의 발달로 섭씨 1000도 이상의 굴가마에서 단단한 토기를 굽게 됐다. 이렇게 만든 도질 토기는 회청색을 띠는데, 주로 의례나 장식용으로 사용했다. 지배 계층의 무덤에 토기 수십 개를 끼묻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와 권력이 지배 계층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지 않았던 가야는 자율과 공존을 중시했다. 이를 가장 잘 확인해 주는 것이 토기다. 가야 사람들은 지역별로 개성이 뚜렷한 토기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썼다. 굽다리접시, 긴 목 항아리, 그릇받침, 뚜껑접시 등은 여러 가야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특히 긴 굽다리 위에 얇은 접시를 붙인 굽다리접시는 굽 구멍의 무늬와 형태에 따라 어느 가야의 토기인지 알 수 있다. 금관가야의 것은 입이 바깥으로 벌어진 형태이고, 아라가야의 굽다리접시에는 불꽃무늬 구멍이 있으며, 소가야는 동그라미나 세모 구멍으로 개성을 드러냈다. 비화가야는 긴 사다리꼴 구멍을 2단으로 교차해 굽다리를 만들었는데, 이 형태를 축소해 만든 손잡이를 그릇 뚜껑에 달았다.

대가야 권역에 들어서자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려던 흔적이 보였다. 대가야는 고령을 중심으로 영토 확장에 힘을 쏟았는데, 최근 대가야 왕궁지에서 발견된 토기에 공통적으로 ‘대왕(大王)’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다. 백승옥 사무처장은 가야 멸망의 이유 중 하나로 고유한 정치체제의 붕괴를 들었다. 공존과 상생을 유지했다면 세력이 커지지는 못했더라도 더 오래 존속했을지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첨단기술을 가진 철의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7개의 고분군이 등재됐지만, 실제로 가야 영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고분군은 30개가 넘는다. 이로 보아 일부 정치체가 몇 개의 고분군을 거느렸던 것으로 보인다. 가야는 하나의 국가도, 연맹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



1



2



3

1 함안박물관 입구에는 불꽃무늬 구멍이 있는 굽다리 모양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2 창녕박물관 상설 전시실에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계성고분군 등 가야 고분군에서 출토된 대형 토기를 전시했다. 3 창녕박물관 입구에는 신석기시대 통나무배를 복원해 전시했다. 오래전부터 경남 내륙 깊은 곳까지 물길을 통해 교역했음을 알 수 있다. 4 가야 사람들은 새가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해 준다고 믿어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5 함천박물관 어린이체험실에서는 유물 발굴, 가야 토기 조각 맞추기, 가야 문양 탁본 등 다양한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4



5



1 다라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합천박물관. 2 함안 말이산고분군 45호분에서 출토된 봉황장식 금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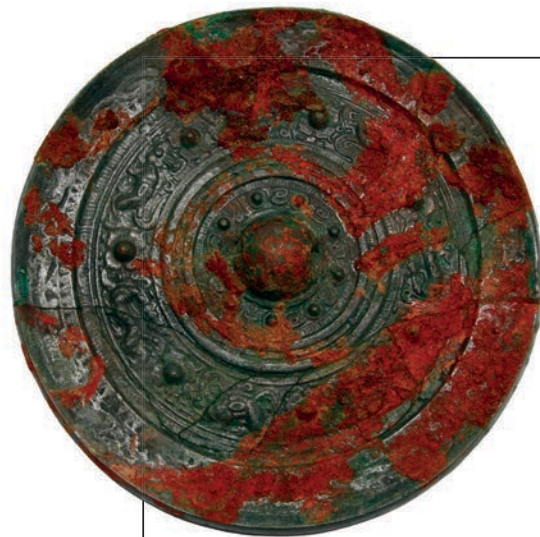
은 왜 서로를 침략하지 않았을까. 독립된 정치체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이를 운영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고대국가에서 부를 축적하고 군사를 무장시킬 수 있는 자원은 철이다. 가야의 성장 기반 역시 철이었다.

옛 가야 지역인 변한은 삼한 중에서도 철이 가장 많이 생산된 곳이었다. 가야는 철을 이용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무기를 만들어 군사력을 강화했으며, 무역으로 부를 창출했다. 특히 가야 고분에서 나오는 덩이쇠는 불순물이 제거된 철 덩이로, 크기나 모양을 일정하게 만들어 화폐처럼 사용했다. 언제든 녹여 필요한 철제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

가야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 유물 중에는 말갈춤과 무기가 특히 많다. 말갈춤은 안장, 발걸이, 재갈 등 말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화려한 장식을 더한 말띠드리개, 말띠꾸미개, 말방울, 기꽃이 등은 의장용이고, 말갑옷과 말 투구는 전투용이다. 고대사회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만 말을 탈 수 있었으니, 출토된 말갈춤만 봐도 무덤 주인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무기류로는 고리자루큰칼, 쇠창, 화살촉, 갑옷, 투구 등이 출토됐다. 가야의 고리자루큰칼은 손잡이와 칼집에 화려한 장식이 있다. 특히 옥전고분군에서는 한 고분에서 고리자루큰칼 네 자루가 발견됐다. 그중 용봉무늬고리자루큰칼은 고리 안쪽에 용과 봉황이 조각돼 있다. 손잡이 부분은 나무를 덧대고 그 위에 두꺼운 은사를 감았으며, 손잡이 윗부분과 칼집에 용 문양 금판을 돌려 장식했다. 현대의 기술으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교함에서 가야인의 우수한 제철 기술과 탁월한 예술성을 짐작할 수 있다.

가야는 철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교류했으며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도 활발했다.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중국계 청동 술과 호랑이 모양 띠고리가 출토됐고, 지산동고분군에서는 일본 오키나와산 야광 조개로 만든 국자가 확인됐으며, 옥전고분군에서는 서역과 관련된 로만 글라스가 나왔다. 일본 고대 유적에서도 가야계 유물로 여겨지는 토기나 덩이쇠 등이 출토됐다.

가야가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지 않고 연맹국 또는 개별국으로 남았던 이유가 각각의 정치체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기 때문이거나, 분지에 자리 잡은 정치체들을 통일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낭만적 상상을 더하자면, 아마도 가야 사람들은 이웃을 침략해 세력을 키우고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상생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다. 가야고분군을 여행하며 오래된 지혜는 낡은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미래라고 생각했다.



청동거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2호분에서 출토된 청동거울. 백제 무령왕릉에서 나온 청동거울과 형태가 유사하다. 표면에는 '의자손(宜子孫)'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다.



구멍이 있는 작은 항아리

고성 송학동고분군 1호분에서 출토된 항아리. 일본 고대 고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토기가 발견됐는데, 소가야 도공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고리자루큰칼

합천 옥전고분군 M3호분에서만 고리자루큰칼 네 자루가 출토됐다. 그중에서도 용봉무늬고리자루큰칼은 한반도 금속공예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이모가이패각 운주

창녕 송현동고분군 7호분에서 출토된 말띠꾸미개로 운주라고도 부른다. 말을 장식하는 가죽 띠가 교차되는 곳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금속제 말갈춤이다.



사슴모양뿔잔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 출토됐다. 사슴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을 포착한, 가야시대 상형 토기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굽다리 부분에 아라가야를 상징하는 불꽃무늬 구멍을 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가야 유물

가야 정치체의 개성이 드러나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대표 유물.

파형동기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만 출토됐다. 그중에서도 최상위 고분에서만 발견되어 높은 신분의 인물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뱀패 장식품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동관

고령 지산동고분군 32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 5세기 대가야에서 만든 것으로 표면에 도금돼 있다. 가야가 금속 제련과 금속공예에도 능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사슴 뿔 형태의 신라 금관과 형태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

2026 World Heritage Festival: Gaya Tumuli

‘함께 가는 길, 동행’을 주제로 7개 가야고분군에서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이 열린다.

Under the theme “Seven Sites, One Journey,” the 2026 World Heritage Festival: Gaya Tumuli will take place across the seven Gaya Tumuli.

일일 고고학자가 된 기분으로 가야 유물을 발굴하고, 어스름한 저녁 고분군을 배경으로 명상을 한 후 어둠이 내린 고분군을 산책하며 1500년 전 가야인이 봤을 별자리를 찾는다.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에 참여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함께 즐기는 행사다. 가야고분군은 올해 ‘함께 가는 길, 동행’을 주제로 가야고분군의 역사와 문화를 공연, 체험,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인다. 경남·경북·전북에 위치한 7개 가야고분군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간직하면서도 하나의 문명을 이룬 연속유산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과 함께 가야고분군의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다.

Spend a day as an archaeologist excavating Gaya artifacts, meditate at dusk against the backdrop of ancient burial mounds, stroll among the illuminated tumuli carrying a lantern after nightfall, and discover the summer constellations that the Gaya people gazed upon 1,500 years ago. Visitors can experience all of this at the 2026 World Heritage Festival: Gaya Tumuli. The Gaya Tumuli will present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Gaya Confederacy through performances, hands-on activities, exhibi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under the theme “Seven Sites, One Journey.” The seven Gaya Tumuli, located across Gyeongnam, Gyeongbuk, and Jeonbuk, form a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y. While each site has its own distinctive character, together they represent a single civilization.



2026 세계유산축전 - 가야고분군 2026 World Heritage Festival: Gaya Tumuli

기간 8월 28일~9월 10일

장소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7개 및 박물관 일원
문의 055-338-6784

Period August 28 - September 10

Venues The seven UNESCO-listed Gaya Tumuli and participating museums

Contact 055-338-6784



세계유산축전 개막식 Opening Ceremony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7개의 이야기, 하나의 문명'을 주제로 한다. 3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 기초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가야고분군이 하나의 무대로 연결되며 연속유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야문명의 가치를 공연으로 풀어낸다. 하늘, 땅, 불, 물, 바람 등 자연의 요소를 모티프로 영상, 음악, 무용, 퍼포먼스를 결합한 대형 멀티미디어 공연으로 구성된다. 철기 문화와 교류, 공존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는 가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감동적인 장면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8월 28일 오후 7시

장소 경남 함안박물관 일원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26 World Heritage Festival: Gaya Tumuli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Seven Stories, One Civilization.” Connecting the seven tumulus sites through a single stage, the ceremony will celebrate the meaning of the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y and the legacy of the Gaya Confederacy through a large-scale multimedia production combining video, music, dance, and performance. Reinterpreting Gaya's iron culture, exchange, and coexistence in a contemporary way, the performance will create a powerful bridg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Date & Time 7:00 p.m., August 28

Venue Haman Museum, Gyeongsangnam-do

INTERVIEW

세계유산축전 총감독 류재현

가야로 가는 시간의 문이 열리고 특별한 손님맞이가 시작된다. 류재현 총감독이 고대와 현대를 감각적으로 연결한다.

가야고분군을 축전으로 풀어내기 위해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야고분군을 단순한 유적이 아닌 당대 최고의 건축물로 재조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관람객이 고분 속에 잠들어 있던 유물을 통해 가야가 얼마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축전을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고분의 묘제와 축조 과정, 토기의 변화 등을 살펴보면 가야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특히 각 고분군 곁에 자리한 박물관에서는 가야문화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전의 부제는 ‘함께 가는 길, 동행’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가야의 역사적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 고분군을 살펴보면, 각 정치체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맹을 이루어 공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축전에서는 고분 축조와 발굴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축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제 공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각 고분군에서 동시에 펼쳐지며, 서로 다른 지역이 하나로 연결된 가야를 입체적으로 보여 줄 것입니다.

축전을 즐기는 팁을 알려 주세요. 가야문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중요한 뿌리 중 하나로, 이번 축전에서는 고분군을 배경으로 고대와 현대를 잇는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명상과 요가를 하며 1500년 전 가야를 상상하고, 등불을 들고 고분군을 걷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발레리나 강미선, 첼리스트 김민지, 마임리스트 유진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펼치는 공연도 꼭 관람하길 바랍니다. 가야문화의 우수함과 매력을 온전히 느끼는 동시에 치유와 사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고분에서 공연 감상하기

Enjoy the Show at the
Moonlit Tumuli

해 질 무렵 고분군에서 시작하는 명상과 요가, 달빛 아래서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공연, 국내 정상급 클래식·전통 예술·무용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특별 무대까지! ‘야금야금’은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단 하루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관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열린다. 7개 가야고분군의 서로 다른 풍경을 무대로 펼쳐지는 ‘야금야금’은 공연과 휴식,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As the sun sets, the tumuli become the stage for “Night of Gaya.” This one-day-only program features yoga and meditation at dusk, performances by local artists beneath the moonlight, and special stages presented by leading Korean classical musicians, traditional performers, and dancers. Set against the distinctive landscapes of the seven Gaya Tumuli, the program brings together performance, relaxation, nature, and culture in an unforgettable evening.



2

유물 발굴과 고분 축조에 도전하기

Try Your Hand
at Artifact
Excavation



사라진 줄 알았던 가야가 긴 시간을 넘어 되살아난 건, 정성스럽게 고분을 만들고 토기와 철기 등을 제작한 가야의 장인과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의 수수께끼를 푼 고고학자의 노력 덕분이다. 세계유산축전에서는 가야의 장인 또는 현대의 고고학자가 되어 세계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나도 해보자! 유물 발굴’을 준비했다. ‘고분 축조 장인 체험’과 ‘고분 발굴 체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가야의 장인이 되어 석곽묘를 축조하거나 고고학자가 되어 발굴 조사나 유물 수습을 체험한다. 고고학 조사 과정을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해 가야고분군의 역사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The festival’s interactive program “Try Your Hand at Artifact Excavation” lets participants step into the role of either a Gaya master builder or a modern archaeologist. Visitors may choose between two experiences: constructing a Gaya-style stone-lined tomb or taking part in a simulated archaeological excavation and artifact recovery. By transforming the archaeological process into an engaging educational activity, the program offers an accessible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Gaya Tumuli and the value of World Heritage.

‘맛있는 가야, 즐거운 가야’는 역사와 자연, 미식과 공연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이다. 플로깅을 하며 고분군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세계유산 보존과 탄소 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지키Go 가야’, 주요 고분을 거닐며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는 스탬프 투어형 미션 프로그램 ‘배우Go 가야’, 고분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공연을 관람하는 ‘즐기Go 가야’를 진행한다. ‘지키Go 가야’는 행운권 추첨 기회를, ‘배우Go 가야’에는 7개 지역의 로컬 다과 꾸러미를 제공한다.

“Delicious Gaya, Joyful Gaya” combines history, nature, local cuisine, and live performances. “Protect Go Gaya” invites participants to collect litter around the tumuli through a plogging activity while learning about World Heritage conservation and carbon neutrality. Participants also receive an opportunity to enter a prize drawing. “Learn Go Gaya” is a stamp mission that guides visitors through the major tumuli while introducing the history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Gaya Confederacy. Completing the mission earns participants a set of local snacks representing all seven regions. “Enjoy Go Gaya” concludes the experience with a picnic accompanied by live performances.

3

플로깅 후 고분 피크닉 즐기기

Go Plogging,
Then Enjoy a Picnic
Among the Tumuli



4

세계유산 사진작가로 데뷔하기 Capture World Heritage Through Your Lens

‘초대, 가야로 온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을 기록하고 함께 나누는 참여형 사진 프로젝트다. 가야고분군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 온라인 공모전에 도전해 보자.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축전 기간 중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만나고, 현장 투표로 특별한 수상의 영광까지 주어진다. 누구나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가야고분군의 풍경을 기록하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Invitation: World Heritage Comes to Gaya” is a participatory photography project celebrating the Gaya Tumuli. Capture the landscapes of the heritage sites and the stories of the people who visit them, then submit your photographs to the festival competition. Outstanding entries will advance to on-site public voting for special awards. As the scenery changes with the seasons and the passing hours, participants become part of documenting and sharing the continuing story of the Gaya Tumuli.

5

어린이 해설사에게 세계유산 배우기 Learn About World Heritage from Young Guides

아이들의 시선으로 만나는 세계유산 이야기. ‘우리는 세계유산 해설사’는 사전 교육을 받은 어린이 해설사들이 방문객과 함께 고분군을 걸으며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해설이 세계유산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미래 세대가 세계유산의 가치를 함께 이어 간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Discover World Heritage through the eyes of children. In “We Are World Heritage Guides,” young volunteer guides who have completed advance training lead visitors through the tumuli while introduc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Gaya Confederacy. Their lively, age-appropriate explanations make the heritage sites approachable for visitors of all ages while highlighting the role of future generations in preserving World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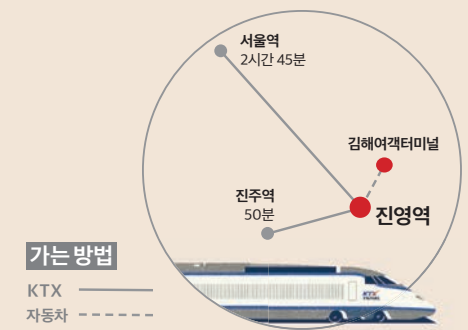
제작 지원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6

가야의 여름철 별자리 찾기 Discover the Summer Constellations of Gaya

1500년 전 가야인이 바라보던 밤하늘과 만나는 특별한 밤이 기다리고 있다. ‘별 보러 가야로!’는 고분군을 배경으로 천문 전문가와 함께 천체망원경으로 여름철 별자리를 관측하고, 가야의 하늘과 별에 담긴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다. ‘가야의 여름철 별자리’를 테마로 하며 말이산고분군 13호분 덮개돌에 새겨진 별자리, 운석총돌구와 옥전고분군,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지산동고분군,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등 각 고분군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이 더해질 예정이다. **KTX**

Experience the night sky as the Gaya people saw it 1,500 years ago. “Journey to Gaya for the Stars!” invites visitors to observe summer constellations through telescopes with astronomy experts while learning stories about the skies and stars of the Gaya Confederacy. Each location will offer storytelling inspired by its own history while exploring the theme of Gaya’s summer constellations.



나를 위한 심포, 금산

얼음장 같은 십이폭포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청정 지역에서 자란 인삼으로 떨어진 기력을 보충한다.
울창한 원시림에 둘러싸여 새소리를 듣고 있으면 잡념이 저절로 사라지고 단잠에 빠져든다.
비단에 수놓은 듯 아름다운 충남 금산에서 자연을 벗 삼아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다.





1물살이 잔잔해 아이들도 물놀이하기에 좋다. 2십이폭포 중 가장 웅장한 죽포동천폭포. '죽포'는 우거진 수목이 맑은 물에 비쳐 수면이 대나무 숲처럼 보인다는 뜻이며, '동천'은 신선이 머무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1

열두 폭 물길 따라 신선놀음 십이폭포

한여름 금산에서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십이폭포다. 성치산 성봉에서 발원한 계곡물이 무자차골을 따라 크고 작은 열두 개의 폭포를 이루며 흐르는 이곳은 물살이 잔잔해 트레킹 입문자도 즐겨 찾는 명소다. 십이폭포 트레킹은 봉황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며 시작된다. 누군가 다듬어 놓기라도 한 듯 평평한 돌다리를 건너 울창한 숲길을 1킬로미터 남짓 오르면 가장 먼저 제일폭포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어 장군의 고향처럼 물소리가 우렁찬 장군폭포, 양쪽으로 마주 보고 선 돌기둥 사이로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일주문폭포, 층이 진 암반을 따라 물줄기가 미끄러지듯 흐르는 삼단폭포를 만난다. 숲속 깊숙이 들어설수록 가늘던 물소리는 천둥 같은 굉음으로 바뀌고, 마침내 십이폭포 중 가장 웅장한 죽포동천폭포와 마주한다. 높이 약 20미터에서 쏟아지는 장쾌한 물줄기가 암반을 힘차게 내리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진다. 폭포 주변 너럭바위에 새겨진 암각문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다. 청뢰(晴雷), 하락(河落), 의하(疑河) 등의 석각은 이곳에서 풍류를 즐긴 옛 문인들이 폭포 소리를 우레에 빗대고 절경을 은하수에 견주며 남긴 흔적이다. 죽포동천폭포를 지나면 경사가 완만한 등산로를 따라 소유천폭포와 고래폭포, 명설폭포, 운옥폭포, 거북폭포, 금룡폭포, 산학폭포가 차례로 이어진다. 산길을 걷다 지칠 때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쉬어 가자. 크고 작은 바위를 부드럽게 쓰다듬듯 타고 내려온 잔잔한 물살이 발을 간질이고, 숲 사이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온몸의 땀을 식혀 준다. 너럭바위에 몸을 기대어 물소리와 새소리,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2

천혜의 자연이 키워 낸 보약

금산 인삼

금산을 이야기할 때 인삼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길림성과 미국 위스콘신 등 세계 각지에서 인삼을 재배하지만 효능만큼은 한국의 고려인삼이 단연 독보적이다. 그중에서도 금산 인삼은 동양 최고 약학서 <신농본초경>에서 효능을 극찬한 백제삼의 정통성을 잇는 유서 깊은 특산물이다. 큰 일교차와 서늘한 기후, 배수가 잘되는 사양토 등 인삼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 덕분에 다른 지역의 인삼보다 항산화 작용을 돕는 사포닌 함량이 월등히 높다. 금산 인삼을 활용한 보양식을 맛보고 싶다면 '금산원조 김정이삼계탕'을 찾아가자. 1980년대 초 금산에 삼계탕 전문점이 없던 시절에 문을 열었는데, 창업주 김정이 대표의 손맛을 아들 신건찬 대표가 이어 40여 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삼계탕집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곳 삼계탕의 깊은 맛은 정성껏 우린 육수에서 비롯된다. 인삼, 대추, 황기, 천궁, 감초 등 열 가지가 넘는 약재를 닭과 함께 압력솥에서 1시간가량 고아 내 진하고 개운한 맛을 끌어낸다. 폭 익은 닭고기는 젓가락만 대도 쉽게 풀어질 정도로 연하고, 인삼 가루와 땅콩 가루를 섞어 만든 고명은 고소한 풍미를 더한다. 인삼을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제원다방'을 추천한다. 대표 메뉴는 금산인삼샌드. 고메 버터를 넣고 구운 쿠키 사이에 홍삼청으로 만든 캐러멜과 백삼 가루를 섞은 크림치즈를 채운 디저트다. 버터의 진한 풍미와 크림치즈의 부드러운 산미가 입안을 감싸고, 인삼의 고소하면서 향긋한 맛이 겹겹이 어우러진다. 인삼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금산인삼스무디가 제격이다. 신선한 수삼 한 뿌리를 통째로 갈아 넣어 인삼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부드러운 목 넘김 뒤로 알싸한 향이 이어져 더 위에 지친 몸을 산뜻하게 깨운다.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로 33(금산원조 김정이삼계탕), 제원면 금강로 184(제원다방)
문의 041-752-2678(금산원조 김정이삼계탕), 041-752-4899(제원다방)



1 좋은 인삼은 표면에 윤기가 나고 맑은 흰색을 띠며 잔뿌리가 많다. 2 4년근 이상에서만 맺히는 빨간 열매는 7월 중순경 일주일 동안만 매달려 있다 떨어지는데, 인삼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이 뿌리보다 2~3배 이상 풍부하다. 3 제원다방의 시그니처인 금산인삼샌드와 금산인삼스무디. 4 금산원조 김정이삼계탕의 대표 메뉴인 특삼계탕. 인삼을 비롯한 열 가지 약초를 푹 우려내 육수가 깊고 진하다.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 명산지 금산에서 세계적인 인삼 축제가 열린다. 1981년부터 시작된 금산세계인삼축제는 금산 인삼의 우수성과 지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축제로,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꾸준히 늘어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인삼 수확철에 열리는 만큼 신선한 인삼을 산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인삼 캐기와 인삼 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인삼튀김과 인삼어죽 같은 지역 향토 음식도 판매한다. 축제의 중심지인 인삼약초거리에는 인삼 및 약초 관련 유통 공간이 여럿 자리한다. 전국 수삼 유통량의 약 80퍼센트가 거래되는 금산수삼센터부터 다양한 한약재를 취급하는 금산인삼약령시장, 지역 농특산물과 인삼 가공품이 가득한 농협수삼랜드까지 품질 좋은 인삼과 약초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기간 10월 2일~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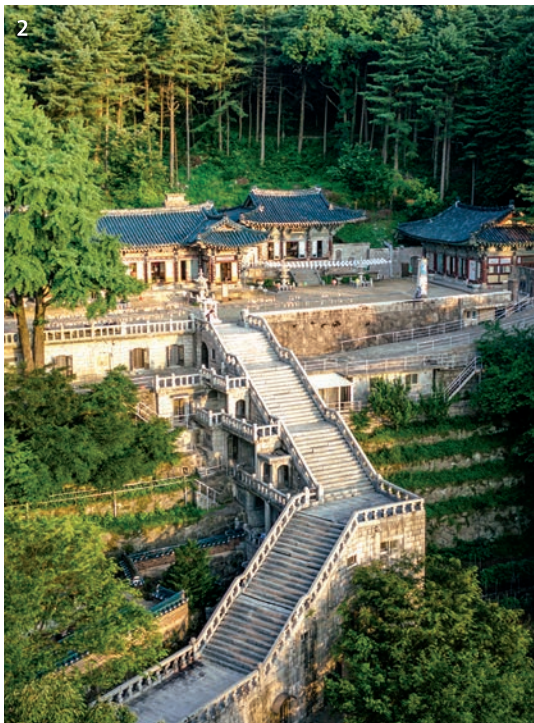
장소 충남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문의 041-750-2313





1



2

1 대웅전 앞마당에 서면 북동쪽으로 대전의 주산인 식장산과 충남 최고봉인 서대산이, 남동쪽으로는 백두대간의 중심부인 덕유산이 훤히 내다보인다. 2 108개의 석조 계단을 오르면 낙조대 아래 자리한 태고사에 닿는다. 3 태고사에서는 누구나 범종을 타종할 수 있다.



3

3

수목화 같은 풍경 속에 서다

태고사

금산에서 근사한 일출을 보려면 대둔산 제2봉우리인 낙조대 아래 자리한 태고사를 찾아가야 한다.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절은 일반 사찰과 달리 일주문이 없다. 대신 양옆으로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두 개가 방문객을 맞는다. 그 모양이 문처럼 생겼다 하여 '석문'이라 불린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석문을 통과하면 투박한 돌길과 반듯한 나무 데크가 교차하며 이어진다. 마지막 관문인 108개 석조 계단까지 오르면 마침내 태고사 대웅전 앞마당에 닿는다. 경내 평상에 앉은 순간 눈앞으로 광활한 산세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북동쪽으로 대전의 주산인 식장산과 충남 최고봉인 서대산이, 남동쪽으로는 백두대간의 중심부인 덕유산이 훤히 내다보인다.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면 풍경은 한 폭의 수목화가 되고, 이내 능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면 하늘은 보랏빛에서 분홍빛, 옅은 주황빛을 지나 노란빛으로 서서히 물든다. 태고사 터의 빼어난 경치를 본 원효대사가 "세세생생 도인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며 사흘 동안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와 만해 한용운이 "태고사를 보지 않고는 천하의 명승지를 논하지 말라"라고 한 말이 저절로 이해된다. 태고사에서는 누구나 범종을 타종할 수 있다. 검은 종에 화려한 단청을 입혔는데, 섬세하게 조각한 연꽃과 덩굴무늬, 하늘을 날며 공양물을 받드는 비천상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당목을 천천히 잡아당겼다가 조심스레 내려놓자 둔탁하면서도 엄숙한 울림이 길게 이어진다. 세 번의 타종이 끝나고 마지막 울림마저 잦아들자 마음을 짓누르던 근심이 흩어진 소리 따라 훨훨 날아간 듯하다.

주소 충남 금산군 진산면 청림동로 440 문의 041-752-4735



4

숲속의 여름 별장

국립금산자연휴양림 & 금산산림문화타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한 쉼을 누리고 싶다면 자연휴양림만 한 곳이 없다.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문을 연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쾌적한 최신 시설과 친환경 목조 인테리어, 주변 관광지와의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예약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숙소는 독립형 객실인 숲속의 집 13동과 최대 6명까지 머물 수 있는 연립동 23실로 구성된다. 건축자재부터 가구까지 국산 원목을 사용해 습도 조절과 단열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장점.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머물 수 있다. 모든 객실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바라보이는 개별 테라스를 설치해 일행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다.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이 조용한 휴식에 집중하는 공간이라면, 금산산림문화타운은 다양한 야외 활동과 체험을 즐기려는 이들을 위한 곳이다. 숙박 시설을 비롯해 금산생태숲, 유아숲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 느티골산림욕장 등 여덟 곳의 산림 복지 시설이 한데 모여 있어 두루두루 즐기다 보면 하루가 짧게 느껴진다. 여름철에 가장 붐비는 곳은 계곡을 따라 놓인 평상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리 삼삼오오 둘러앉아 식사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 자는 풍경이 정겹다. 계곡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나타나는 금산생태숲과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숲 해설가와 함께 계절별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며 생태를 배우고,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나무 목걸이와 책꽂이, 독서대 등 실용적인 목제품을 직접 만들어 본다. 가볍게 숲길을 걷고 싶다면 청정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느티골산림욕장이 제격이다. 모든 시설은 무장애나눔길로 연결되어 보행이 불편한 이용객과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도 부담 없이 산책하기 좋다.

주소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거북바위길 10-163(국립금산자연휴양림), 느티골길 200(금산산림문화타운)
문의 041-754-0102(국립금산자연휴양림), 041-753-5706(금산산림문화타운)



1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의 모든 숙소는 독립된 테라스를 갖춰 일행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 2 금산산림문화타운의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나무 목걸이와 책꽂이, 독서대 등 목제품 25종을 내 손으로 만든다. 3 진악산 아래 자리한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원시림에 둘러싸여 고요한 휴식을 취하기에 제격이다.





5

온 가족의 주말 휴양지 하늘물빛정원

여럿이 떠나는 여행일수록 이동 시간은 짧고, 머무는 시간은 긴 것이 좋다. 대전 시내에서 차로 40~50분이면 닿는 하늘물빛정원은 숙박과 식사, 휴식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장산저수지를 중심으로 조성한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힐링 단지에 야외 정원과 실내 열대식물원, 레스토랑, 족욕 카페, 찜질방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두루 갖췄다. 지난해 전면 리뉴얼을 거치며 반려견 동반 객실을 비롯해 실내외 놀이터인 펫 존이 생겼고, 호수를 바라 보며 바비큐를 먹는 호수마루 BBQ,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수영장이 새롭게 들어섰다. 여기에 독립 캐빈형 가든·레이크 스테이 16개 동까지 문을 열면 서 잠시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지를 넘어 하루 이상 머무는 체류형 여행지로 거듭났다. 호숫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실내 열대식물원을 만난다. 높은 층고 아래 바나나와 파초일엽, 아라우카리아, 자마йка 등 평소 보기 어려운 열대식물 150여 종이 뽐내며 들어서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식물원 끝, 15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널찍한 공간에는 샐러드와 화덕 피자를 파는 브런치 카페, 제철 식재료를 건강한 솥밥을 내는 식당 등이 자리한다. 스파 존에서 실내 수영장과 온수풀, 사우나를 차례로 이용한 뒤 전통 찜숫가마에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도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별자리 조명이 비추는 벅커에서 수면 테라피를 하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해 질 무렵에는 호숫가를 따라 난 산책길을 걸으며 노을 빛으로 물드는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자. 잘 먹고 잘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KTX**

제천 지원 금산군청

1 장산저수지와 정원이 한눈에 담기는 테라스는 경치가 좋아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2 사계절 내내 푸르른 열대식물을 마주보며 책을 읽는 공간도 있다. 3 브런치 카페 '더밀 브런치'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인 샐러드와 화덕 피자, 버섯치즈파니니를 차례로 맛본다.

Geumsan, A Place to Pause

1

Sibipokpo Falls

No summer visit to Geumsan is complete without a trip to Sibipokpo Falls. Fed by streams originating from Seongbong Peak on Seongchisan Mountain, the valley flows through Mujachigol, forming a series of twelve waterfalls of varying sizes. With its mostly gentle terrain, the trail is popular with both experienced hikers and first-time trekkers. The hike begins by crossing the stepping stones over Bonghwangcheon Stream. Its highlight is Jukpodongcheon Falls, the fifth and most spectacular of the twelve. From a height of about 20 meters, powerful cascades crash onto the rocky cliffs below, creating a scene that feels instantly refreshing. Beyond Jukpodongcheon Falls, the trail becomes gentler as it passes Soyucheon Falls, Gorae Falls, Myeongseol Falls, Unok Falls, Geobuk Falls, Geumryong Falls, and Sanhak Falls in succession. When the walk begins to tire your legs, take a break by the stream. The cool water, flowing gently over smooth rocks, soothes tired feet, while a refreshing breeze drifting through the forest carries away the summer heat. Reclining against a broad rock and listening to the sounds of flowing water, birds, and insects,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this place feels like a retreat worthy of the immortals.

Address 973-30, Sincheon-ri, Namil-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750-2265



Dip your feet into the icy waters of Sibipokpo Falls, recharge with ginseng grown in one of Korea's cleanest environments, and unwind amid ancient forests filled with birdsong. In Geumsan, Chungcheongnam-do, where the landscape is as exquisite as embroidery on silk, nature offers the perfect escape to restore body and mind.



2

Geumsan Ginseng

To experience the restorative power of Geumsan ginseng, make a stop at Geumsan Wonjo Kim Jeong-i Samgyetang. Opened in the early 1980s, when Geumsan had no restaurant specializing in samgyetang, it has been serving its signature dish for more than four decades. Founder Kim Jeong-i's recipes have been carried on by her son, Shin Geon-chan, earning the restaurant a reputation as one of the region's most beloved destinations for this nourishing classic. The depth of flavor begins with a carefully prepared broth. Chicken is simmered under pressure for about an hour with more than ten medicinal ingredients, including ginseng, jujubes, astragalus root, cnidium, and licorice, creating a rich yet clean-tasting soup. The tender chicken falls apart effortlessly with chopsticks, while a garnish of ground ginseng and peanuts adds a subtle nutty richness. For a more unexpected way to enjoy Geumsan's signature ingredient, head to Jewon Dabang. Its signature dessert is the Geumsan Ginseng Sand, made by sandwiching a cream cheese filling blended with white ginseng powder and caramel made from red ginseng syrup between buttery gourmet cookies. Rich butter, gently tangy cream cheese, and the sweet, nutty, aromatic notes of ginseng come together in surprisingly harmonious layers of flavor.

Address 33, Insamyakcho-ro, Geumsan-eup, Geumsan-gun, Chungcheongnam-do (Geumsan Wonjo Kim Jeong-i Samgyetang), 184, Geumgang-ro, Jewon-myeon (Jewon Dabang) **Contact** 041-752-2678 (Geumsan Wonjo Kim Jeong-i Samgyetang), 041-752-4899 (Jewon Dabang)

Taegosa Temple

For one of Geumsan's most spectacular sunrises, make your way to Taegosa Temple, nestled below Nakjodae, the second peak of Daedunsan Mountain. The moment you sit on one of the temple's wooden platforms, sweeping mountain ranges unfold before your eyes. To the northeast rise Sikjangsan Mountain, the guardian peak of Daejeon, and Seodaesan Mountain, the highest summit in Chungcheongnam-do. To the southeast stands Deogyusan Mountain, a prominent peak along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When dense morning mist wraps around the mountainsides, the scenery resembles a traditional ink wash painting. As the sun slowly emerges above the ridges, the sky gradually shifts from purple to pink, then pale orange and finally golden yellow.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the monk Wonhyo is said to have danced here for three days after declaring, "In every lifetime, enlightened practitioners will never cease to appear," or why the poet Han Yong-un wrote, "Do not speak of the world's great scenic places until you have seen Taegosa." Unlike most temples in Korea, Taegosa allows visitors to ring its great temple bell. Gently pulling the wooden striker before letting it swing back, a deep, solemn resonance lingers through the mountains. As the third and final toll fades into silence, the worries weighing on the mind seem to disappear with the sound.

Address 440, Cheongnimdong-ro, Jinsan-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752-4735



National Geumsan Recreational Forest & Geumsan Forest Culture Town

For those seeking a true escape from the noise of the city, few places are more inviting than a forest retreat. Nestled at the foot of Jinaaksan Mountain, one of Chungcheongnam-do's highest peaks, National Geumsan Recreational Forest is one of the region's newest forest destinations, having opened less than a year ago. Accommodations include 13 detached forest cabins and 23 condominium-style units that can accommodate up to six guests. While National Geumsan Recreational Forest is designed for quiet relaxation, Geumsan Forest Culture Town is ideal for visitors looking to combine nature with outdoor activities. In addition to its accommodations, the complex brings together eight forest welfare facilities, including Geumsan Ecological Forest, Neutigol Forest Bathing Area, and the Wood Culture Experience Center. With so much to explore, a single day can feel surprisingly short. At the Geumsan Ecological Forest and the Forest Experience Center for Children, visitors can join forest interpreters to observe seasonal plants and insects while learning about the local ecosystem. At the Wood Culture Experience Center, they can craft practical wooden items such as necklaces, bookshelves, and reading stands to take home as memorable souven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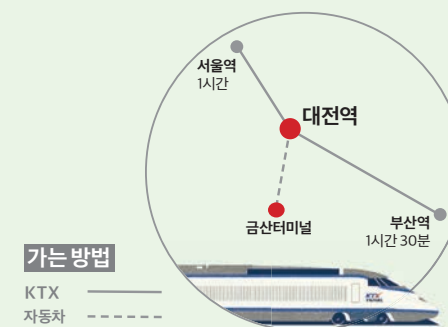
Address 10-163, Geobukbawi-gil, Nami-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National Geumsan Recreational Forest), 200, Neutigol-gil (Geumsan Forest Culture Town) **Contact** 041-754-0102 (National Geumsan Recreational Forest), 041-753-5706 (Geumsan Forest Culture Town)



Garden of Sky

About 40 to 50 minutes by car from downtown Daejeon, Garden of Sky is a 130,000-square-meter wellness complex centered around Jangsan Reservoir. The expansive grounds bring together landscaped gardens, an indoor tropical botanical garden, restaurants, a foot spa café, a jjimjilbang (Korean bathhouse), and a variety of leisure facilities. Following a major renovation last year, the complex introduced a pet-friendly zone complete with accommodations and indoor and outdoor playgrounds for dogs. New additions also include Hosumaru BBQ, where guests can enjoy lakeside barbecue, an indoor swimming pool open year-round, and 16 detached Garden Stay and Lake Stay cabins. Together, these upgrades have transformed Garden of Sky from a sightseeing stop into a destination where visitors can comfortably spend several days. After enjoying the indoor pool, warm-water pool, and sauna in the spa zone, unwind further in the traditional charcoal kiln. Guests can relax in rooms filled with subtle aromatherapy scents or enjoy sleep therapy in bunker-style spaces illuminated by constellation-inspired lighting, leaving both body and mind feeling refreshed. As evening approaches, take a leisurely stroll along the lakeside path and watch the gardens glow beneath the colors of the setting sun. Sometimes, a satisfying meal and a restful day in nature are all it takes to feel completely recharged.

Address 156, Geomhan 1-gil, Chubu-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1588-2613



남도에서의 오롯한 휴식, 강진·해남·영암

‘강해영 프로젝트’는 강진·해남·영암의 관광 자원을 하나의 여행 권역으로 연결해 남도 체류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협력형 관광 프로젝트다. 여름휴가 장소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전남광주의 강진·해남·영암이 나섰다. 올여름 꼭 가야 할 여행지를 이웃 지역의 눈으로 소개한다.

고요한 사색의 시간 강진

유서 깊은 사찰과 성곽을 걸으며 강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전라병영성을 한 바퀴 돌며 이방인의 눈에 비친 옛 강진을 떠올리고, 다산 정약용이 오가던 숲길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긴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옛 강진의 모습

금강천을 건너 성자산 쪽으로 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면적 9만 3139제곱미터, 길이 1060미터, 높이 3.5미터의 전라병영성이다. 전국적으로 병영과 관련된 성곽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라병영성은 1417년(조선 태종 17년)에 설치해 1895년(고종 32년)까지 조선 조 500년 동안 전라와 제주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했다. 도성이나 읍성과는 달리 성 내부에 군사시설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서남북으로 거대한 문이, 북문과 동문 사이에는 활터가 자리한다.

전라병영성 동문 건너편에는 한국을 서양에 최초로 알린 헨드릭 하멜을 기리는 전라병영성하멜기념관이 있다. 제주 앞바다에 표류한 배의 항해사였던 그는 병영면에서 억류 생활을 했고, 그 시간을 기록해 <하멜 표류기>를 썼다. 전라병영성하멜기념관은 디오라마, 고문서, 항해 지도 등을 전시해 하멜이 머무른 조선에서의 삶을 조명한다. 기념관 옆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와 헬멧을 유료로 빌려주니 전라병영성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강진의 역사를 떠올려도 좋다. 2인용과 4인용으로 나뉘며, 시간당 1만 원이다.



1

“강진 병영면은 육군충지휘부였던 전라병영성 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병영성 터에 오르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병영 돼지불고기거리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배를 든든히 채운 뒤 이국적인 모습의
풍차가 눈길을 끄는 전라병영성하멜기념관에도 들러 보세요.”

-전고필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

2



소극장 ©

1 전국적으로 병영과 관련된 성곽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 전라병영성.
2 한국을 최초로 서양에 알린 헨리크 하멜을 기리는 전라병영성하멜기념관.
3 당일형 템플스테이와 다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백련사.



3

차밭이 아름다운 천년 고찰, 백련사

만덕산 자락에 위치한 백련사는 신라 문성왕 때 무염 국사가 창건한 절이다. 원묘국사가 1236년에 백련결사 운동을 주창해 백련사의 존재가 전국에 알려졌고, 조선 후기에는 8대사를 배출해 명실공히 으뜸가는 명찰로 유명해졌다. 2004년에 원묘국사의 행적과 백련결사에 관한 내용이 적힌 백련사 사적비가 보물로 지정됐으며, 2023년엔 삼존불(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을 봉안한 백련사 대웅보전이 보물로 승격됐다.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기에 학문에 정진하던 대표 유적지다. 두 곳이 자리한 만덕산은 고려 시대부터 자생한 야생 차밭이 남아 있어 ‘다산(茶山)’이라 불리는데, 정약용의 호가 여기에서 비롯됐다.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숲길은 당시 백련사 주지였던 아암 혜장선사와 다산 정약용이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던 곳으로 유명하다. 일명 백련사 숲길은 동백나무와 차나무가 어우러져 경관이 빼어나고, 경사도 완만해 산책

코스로 제격이다. 백련사에서는 당일형 템플스테이와 다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쉽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읊여름 백련사에서 머물러도 좋다.

+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병영면에서만 맛보는 별미가 있다. 바로 연탄불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 낸 매콤한 병영 돼지불고기다. 전라병영성 인근에 자리한 병영 돼지불고기거리에서 남도 특유의 푸짐한 밑반찬과 함께 병영 돼지불고기를 즐겨 보자.



월출산 정기를 품다 영암

월출산을 병풍처럼 두른 영암으로 맑은 정기를 받으러 간다. 월출산 등반을 마친 후 정원을 갖춘 카페 새실에서 달콤한 커피로 재충전하고, 오색찬란한 한복을 입고 구림마을을 거닐며 추억을 남긴다.

기암괴석이 빛은 절경, 월출산국립공원

월출산의 영험한 자태를 보면 영암을 ‘기의 고장’이라 부르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월출산은 예부터 많은 시인들이 그 아름다움을 칭송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 중환은 “아침 하늘에 불꽃처럼 기를 내뿜는 기상”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호남정맥의 거대한 암류가 남해 바다와 부딪치면서 솟아오른 화강암이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의 월출산이 됐다. 1988년 한국의 스무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월출산은 면적이 약 5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잇따라 포착되는 등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또 국보를 비롯한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 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갑사에 국보인 해탈문과 보물인 석조여래좌상이 긴 시간 자리를 지켜 왔고, 구정봉으로 오르는 산기슭 중턱에는 국보로 지정된 마애여래좌상이 자리한다.

월출산 등반을 마친 후에는 전남광주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카페 새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1964년 분재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카페, 정원, 생태 체험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한다. 진한 에스프레소와 블렌딩 밀크가 어우러진 새싹넋이 이곳의 시그너



“월출산국립공원은 기암괴석과 웅장한 능선이 어우러진 영암의 대표 명산입니다.

남도에서는 보기 드문 극적인 산세를 지닌 곳이죠.

월출산 아래 자리한 카페 새실에서 시그너처 라테를 마시고,
영암읍의 대양회관에서 푸짐한 밥상을 마주하면 멋진 여정이 완성됩니다.”

-김경자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

처음요다. 카페라테에 말차 가루와 크림을 더해 새실 마을에 사는 토종 거북 남생이를 표현한 남생이라테도 인기가 높다. 카페 내에서는 통창 밖으로 사계절 다른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

편 한복 대여 프로그램 ‘한복입고 유유자적’을 운영하는 고영한복이 있다. 오색찬란한 한복을 입고 마을을 여유롭게 걷는 시간은 훗날 소중한 추억이 될 테다.

가장 오래된 마을, 영암 구림마을

월출산 아래에 무려 2200년 역사를 품은 마을이 자리한다. 카페나 식당 하나 없이 고택만 있는 구림마을이다. ‘구림’이란 이름은 신라 말기 도선국사의 탄생 설화에 나온다. 한 여인이 빨래를 하다 강물에 떠내려온 오이를 먹고는 아이를 가졌다. 아이는 태어난 뒤 숲에 버려졌지만, 며칠 후 다시 찾아가 보니 비둘기 떼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아이는 훗날 고려 건국을 예언하고 불교를 부흥시킨 도선국사가 된다. 비둘기 구(鳩)와 수풀 림(林)을 합쳐 구림마을이라 이름 붙인 이곳에서는 일본에 선진 문물을 전한 왕인 박사와 풍수지리의 대가 도선국사 등 걸출한 인물이 배출됐다. 구림마을에는 맞춤형 한복을 제작, 판매하는 한

+ 대양회관

월출산 인근에 있는 한정식 전문점. 낙지볶음, 오리탕 등이 메인 요리이며, 7~8월에는 계절 메뉴로 삼계탕도 판매한다. 백반 정식을 주문하면 다양한 반찬이 상을 가득 채운다. 월출산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걸린다.



1, 2 월출산 아래 자리한, 정원을 갖춘 카페 새실.
3, 4 구림마을에서 오색찬란한 한복을 대여해 입고 마을을 산책할 수 있다.



바다에 쓰인 역사 한 줄 해남

이순신 장군의 정기가 어린 해남 땅을 밟자 감동이
물밀 듯 밀려온다. 우수영국민관광지에서 명량대첩의
생생한 현장을 느끼고, 두륜산 남쪽에 자리한 거대한
차밭을 마주하니 마음이 절로 경건해진다.

명량대첩의 현장, 우수영국민관광지

진도와 해남을 가르는 좁은 해협, 울돌목은 바닷물이
차고 빠지며 하루네 번 조류가 거세게 부딪힌다. '우는
바다 길목'이라는 의미처럼 거친 파도 소리가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킨다. 1597년 정유재란 당
시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의 이런 특성을 십분 이용해
불과 13척의 배로 왜군 133척을 막아 냈는데, 그 위대
한 업적이 우수영국민관광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에 들어서면 판옥선과 거북선 모형을 비롯해 명량대
첩에 사용했던 무기와 병사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전
시가 펼쳐진다.

울돌목을 감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울돌목스카이
워크 위를 걷거나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는 것이다.
진도대교 끝에 세운 총길이 110미터, 주탑 높이 25미터
의 스카이워크 위에 서면 거센 파도가 치는 울돌목이
내려다보인다.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아찔한 동시에
울돌목의 위력이 느껴진다. 해남과 진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에 탑승하면 울돌목의 거친 물살과 진도대
교, 그리고 다도해의 탁 트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일반 캐빈과 크리스털 캐빈 두 종류가 있는데, 바닥이



1

“해남의 울돌목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 현장입니다.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은 이를 기념해 건립한 곳이죠.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고 해남과 진도를 오가며 울돌목을 내려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명승회센터에서 신선한 회를 즐기며 여정을 마무리하세요.”

-김기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



2

제작 지원 강진군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 영암문화관광재단

1 명량해상케이블카에 탑승하면 울돌목의 역동적인 물살이 생생하게 보인다.
 2 설아다원 숙박객은 녹차방, 황차방, 홍차방 등 차 이름을 딴 방에 머무른다.
 3, 4 설아다원 내 차실인 모먼트해남에서 진행되는 다도 체험.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을 타면 울돌목의 역동적인 물살이 생생하게 보인다.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흔들림 없이 운행해 편안하게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 해 질 무렵에는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여 황홀한 풍경을 연출한다.

설아다원의 차향에 물들다

두륜산 남쪽에 자리한 설아다원은 한국의 전통차를 공부한 오근선 대표와 풍물과 소리에 능한 마승미 대표가 운영하는 유기농 차밭이자 문화 공간이다. 우연히 찾아온 손님을 맞기 위해 한옥 스테이도 마련했다. 숙박객은 녹차방, 황차방, 홍차방 등 차 이름을 딴 방에 머무르며, 설아다원 내 차실인 모먼트해남에서 무료로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차밭을 바라보며 음미하는 따뜻한 차 한잔은 잡생각을 말끔히 몰아낸다.

설아다원에서는 녹차정원 산책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녹나무트리하우스에서 출발해 녹차정원 입구, 녹차밭 시방, 백일홍 꽃길, 두륜산타래길 등을 지나 목련꽃길까지 이어지며 30분 정도 소요된다. 걷다 보면 무려 3만 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차밭이 주는 웅장함에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진다. **KTX**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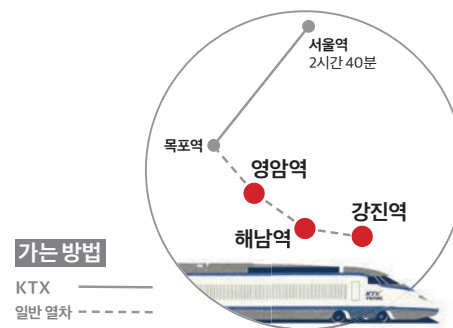


3



명승회센터

해남군은 주요 관광지 인근의 1인 식사가 가능한 식당 '혼밥당당' 36곳을 선정했다. 명승회센터도 그중 하나다. 명승회 백반은 1인분에 회를 한 점씩씩 제공하는데, 혼자서 즐기기도 좋다. 모듬회, 아나고(붕장어) 주물럭, 물회 등도 판매한다.



가는 방법

KTX

일반 열차

나고야·기후·아이치·시즈오카

김태우 셰프와 떠난 일본 미식 여행



〈흑백요리사2〉에서 부채도사로 얼굴을 알린 김태우 셰프와 함께 일본 중부지방을 여행했다.
테마는 장어덮밥을 포함한 현지의 식문화 탐구. 에도시대 정취를 간직한
다카야마의 아침 시장을 구경하고, 북알프스 아래 계로 온천 골목을 거니는가 하면,
무려 3톤의 돌을 쌓아 된장을 숙성하는 핫초미소 양조장도 방문했다.



김태우 셰프

장어덮밥 전문점 '동경밥상' 오너 셰프. 2018년에 오픈한 부산 본점이 최근 3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의 빙 구르망에 선정된 것에 힘입어 지난해 제주 애월에 동경밥상 분점을 냈다. 최근에는 부산 광안리 동경밥상 건너편에 호루몬야키(소 내장 요리) 전문점 '오코메'도 열었다. 지난해에 방영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2에 '부채도사'라는 이름으로 참가해 어린 시절 중식당 팔선에서 만난 스승 후덕죽 셰프와 일대일 대결을 펼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생맥주를 마시며 장어로드를 구상하다

가라테 도복과 흡사한 조리복에 시원하게 빗어 넘긴 머리, 앙다문 입술과 무심한 듯 정돈된 콧수염. 식재료를 가스불에 찌고 삶고 튀기는 여느 참가자와 달리 스튜디오에 숯을 피워 장어를 굽던 그는, 끝이 거뭇게 탄 부채를 앞뒤로 흔들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2에 부채도사로 등장한 김태우 셰프 이야기다. 매서운 눈빛과 춤추듯 유연한 동작으로 장어와 한 몸이 되어가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장어 요리의 세계가 궁금했다. 이후 김태우 셰프를 실제로 만난 건 지난 2월 말, 일본 출장 때였다. 식사 때마다 목젓이 저릿할 정도로 차가운 생맥주를 곁들였고,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장어 요리를 파고들었는지 알게 됐다. “20대 후반에 장어 요리를 배우러 아무 연고도 없는 일본에 갔어요. 도쿄 아카사카에서 8대째 240년 동안 장어 요리를 하는 주바코를 찾아가 대표님한테 받아 달라고 무릎을 꿇었죠. 3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결국 승낙했습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펼칠 뚝어오르던 시절,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을 보며 일본어를 독학했고, 스승인 오타니 신이 치료의 가르침을 하느처럼 받들며 장어 요리에 매달렸다. 그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장어 요리를 테마로 일본 여행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이 튀어나왔고, 3개월 후 드디어 김태우 셰프와 함께 나고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고야에서 나고야식 장어덮밥을 먹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나고야 중부국제공항까지는 2시간 남짓. 메이테쓰 특급열차를 타고 30여 분 달려 나고야역에 도착한 일행은 첫 일정으로 마루야본점을 찾았다. 마루야는 나고야 외에도 도쿄, 오사카 등에 지점을 둔 장어덮밥 전문점. 좋은 식재료와 훌륭한 맛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은 곳이다. 말린 장어 뼈를 안주 삼아 생맥주를 들이켜고 나니 장어덮밥 정식과 장어달걀말이, 장어간조림 등이 줄줄이 테이블을 채운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둥그런 목기에 담긴 장어덮밥. 이전에 보던 사각 용기의 장어덮밥과 달라 고개를 갸웃하자 김태우 셰프가 설명해 준다. “민물 장어를 주재료로 하는 일본의 장어덮밥은 도쿄식 ‘우나주’와 나고야식 ‘히쓰마부시’로 나뉘어요. 담음새는 물론 장어 손질법과 조리 과정도 다르죠.” 마루야는 히쓰마부시 전문점. 히쓰는 둥근 나무 그릇, 마부시는 ‘썬다’라는 뜻으로, 잘게 썬 장어구이를 밥에 섞어 먹는 방식이다. 김태우 셰프가 주바코에서 배운 장어덮

밥은 우나주에 해당한다. 우나주는 우나기(장어)와 찬합을 뜻하는 주바코(重箱)의 합성어로, 사각 나무 찬합에 밥을 깔고 그 위에 통장어구이를 올려 낸다.

그맛은 과연 어떨까. 진한 갈색의 장어구이를 한 조각 맛본 김태우 셰프가 말을 잇는다. “우나주는 손질한 장어를 초벌구이한 다음 한 번 찌서 기름기를 빼는데, 히쓰마부시는 장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에 구워 완성해요. 히쓰마부시에서 장어의 기름기가 더 많이 느껴지는 건 그 때문이죠. 살이 통통한 장어를 잡내 없이 잘 구운, 아주 맛있는 히쓰마부시입니다.” 듣고 보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장어덮밥이 더욱 먹음직스럽게 느껴진다. 히쓰마부시를 맛있게 먹는 4단계 방법. 그의 안내에 따라 시식에 돌입했다. 먼저 장어덮밥을 4등분할 것. 그중 처음의 4분의 1은 장어덮밥 그대로의 맛을 음미하고, 다음 4분의 1은 깻잎이나 고추냉이를 더해 맛의 변주를 시도한다. 그다음 4분의 1은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 국밥처럼 먹고, 마지막 4분의 1은 앞의 세 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착실히 따라 해보니 마치 세 종류의 장어덮밥을 먹는 듯 서로 다른 맛이 느껴진다.

히쓰마부시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찾은 곳은 기후현 미노시. 나고야역에서 JR 특급열차를 타고 JR 미노오타역에서 하차 후, 나가라가와 철도로 환승해 30분쯤 더 가니 미노시역에 닿았다. 이곳에서 우리가 찾은 곳은 일본의 전통 종이 ‘미노와시’ 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와시노미세 시유(和紙の店 紙遊)였다. 무려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미노와시는 색이 곱고 질긴 데다 은은하게 빛을 투과해 전통젓이나 부채, 미단이문 재료로 널



2



1



3



4

1 마루야 본점의 히쓰마부시 정식. 민물 장어를 찌는 과정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숯불에 구워 자르르한 기름기가 느껴진다. 2 에도시대 목조건물이 잘 보존된 기후현의 미노시 거리. 3, 4 일본 전통 종이 ‘미노와시’ 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와시노미세 시유. 종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리 쓰였다. 주바코에서 처음 장어 요리를 배울 때부터 부채를 사용한 김태우 셰프에게도 흥미로운 장소. 두 팔을 걷어붙인 그가 물에 녹인 닥나무 섬유를 대나무 발에 한 겹 두 겹 쌓아 세상에 단하나뿐인 수제 종이를 완성했다.

다음 목적지는 기후현 다카야마. 미노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북동쪽으로 달리니 '일본의 지붕'이라 불리는 북알프스 아래 에도시대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가 모습을 드러낸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시간,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산마치시지를 걸으니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숙이 파고든다. 오늘의 저녁 식사 장소는 다카야마에서 난 제철 식재료로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이는 '무쿠(Muku)'로 정했다. 이곳의 오너 셰프는 일본 도쿄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실력을 쌓은 모리모토 다이치. 고향인 다카야마로 돌아와 소규모 레스토랑을 연 그는 단맛이 진한 햅쌀과와 저장 감자 등 다카야마산 채소에 멧돼지나 사슴 등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육류를 매칭해 특별한 다이닝을 선보인다. 근사한 내추럴 와인을 곁들여 다카야마의 맛을 탐구하는 시간. 김태우 셰프의 얼굴이 기분 좋게 달아올랐다.

에도시대 정취 깃든 다카야마와 게로 온천

다음 날 오전, 본격적으로 다카야마 탐험에 나섰다. 가장 먼저 발길을 옮긴 건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만 운영하는 미야가와

1 레스토랑 무쿠의 모리모토 다이치 오너 셰프는 다카야마의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인다. 2 산마치시지엔 감각적인 메뉴를 내는 레스토랑이 많다. 3 육즙과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히다규 꼬치구이. 4 매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문을 여는 미야가와 아침 시장. 다국적 여행자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아침 시장이다. 미야가와강을 따라 가지바시 다리부터 야요이바시 다리까지 약 350미터 거리에 시장이 형성되는데, 일본인은 물론 다국적 여행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룬다. 반바지에 스니커즈, 선글라스로 시원하게 맛을 낸 김태우 셰프도 카메라를 둘러메고 시장 구경에 나섰다. 상점과 길거리 좌판이 어우러진 아침 시장에는 인근 농가에서 재배한 제철 농산물과 옷칠 공예품, 다카야마 전통 인형 사루보보 등 발길 닿는 곳마다 볼거리가 넘쳐난다. 설탕을 넣지 않고 간장 소스만 발라 구운 미타라시 당고, 밥을 거칠게 으깨 타원형으로 만든 후 된장, 호두, 깨 등을 넣어 숯불에 구운 고힐이모치, 다카야마산 최고급 소고기인 히다규를 숯불에 구운 히다규 꼬치구이도 여행자의 발길을 붙든다. 이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건 히다규 꼬치구이.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셰프가 각둑썰기한 히다규를 수시로 뒤집으며 정성껏 구워 주는데, 육즙과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소금간이 기막히게 맞아떨어져 한 조각 입에 넣으면 아침부터 생맥주 생각이 간절해진다.

마치 축제와도 같은 미야가와 아침 시장의 열기를 만끽한 후 미야가와강을 따라 산마치시지로 향했다. 다카야마가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에도시대 목조건물이 길게 늘어선 이 거리의 독특한 풍경 덕분이다. 검은색 외관에 격자무늬 창이 고혹적인 건물들에 지금은 개성 넘치는 카페와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이 들어섰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산마치시지를 활보하다 마지막 코스로 후나사카 양조장을 찾았다. 이곳은 북알프스의 맑은 물과 최고급 쌀로 사케를 빚는 200년 전통의 술도가다. 2층 규모의 제법 큰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후나사카 양조장에서 빚은 사케를 판매하는 매장이 나오고, 안쪽으로 사케 시음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 사케 잔을 구매 후 디스펜서를 이용해 원하는 사케를 골고루 시음했다. 한 손엔 사케 잔, 다른 손엔 코인을 쥔 김태우 셰프의 발걸음에 점점 흥이 붙는다.

그다음 향한 곳은 게로 온천. 다카야마에서 특급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45분 달려 게로역에 도착하니, 북알프스의 웅장한 산세와 후지산을 닮은 나카네산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그 앞으로 히다강의 맑은 물줄기가 흐른다. 장쾌하면서도 아늑한 풍경이다. 최근 전면 리뉴얼을 마쳐 200년 동안 간직한 전통미에 모던함이



2



3



4



1, 4 게로 온천의 유노마치 거리. 깨끗하게 정돈된 골목을 걷다 보면 야외 족욕장이 보이고, 푸딩·아이스크림·카레빵 등을 파는 가게를 만난다. 2 북알프스의 맑은 물과 최고급 쌀로 사케를 빚는 200년 전통의 후나사가 양조장. 디스펜서를 이용해 원하는 사케를 골고루 시음할 수 있다. 3 최근 리뉴얼을 마친 200년 전통의 료칸, 아마가타야.



지गत춘 료칸, 아마가타야에 짐을 풀고 온천욕을 즐겼다. 게로 온천의 온천수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 9이상의 알칼리성에 미네랄·가스·고형 성분이 거의 없는 단순 온천수로, 피부를 매끈하고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 싱그러운 숲이 액자처럼 걸린 야외 온천탕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스르르 풀리면서 비누칠을 한 듯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김태우 셰프도 한결 산뜻해진 얼굴이다. 컨디션을 가뿐하게 회복한 후 아마가타야 건너편에 있는 유노마치 거리를 산책했다. 평지와 언덕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깨끗하게 정돈된 골목을 걷다 보니 드문드문 야외 족욕장이 보이고, 온천과 개구리를 콘셉트로 한 푸딩·아이스크림·카레빵 등을 파는 가게가 연이어 등장한다. 게로(Gero)라는 지명은 일본어로 개구리가 우는 소리 ‘게로게로’와 유사한 데서 착안한 것. 개구리 조형물은 기본, 개구리 캐릭터가 그려진 수건·양말·티셔츠가 쉽게 눈에 띄고 개구리 신사도 보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골목 어디선가 ‘게로게로’ 하는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햇초 미소, 그리고 민물 장어 대가와와의 만남

이튿날 아침 아마가타야에서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한 후 아이치현 오카자키로 향했다. 일본의 전통 장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다. 1300년대부터 콩 된장을 담가 온 햇초 미소 양조장 두 곳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에 남쪽으로 쉼 없이 2시간을 달렸다. 그런

데 햇초가 무슨 뜻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오카자키성의 위치부터 살펴봐야 한다.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태어난 오카자키성에서 서쪽으로 햇초(八丁), 약 870미터 떨어진 곳에 햇초마을이 있는데, 이곳에서 처음 콩 된장을 만들기 시작해 ‘햇초 미소’로 불리게 됐다. 오카자키성을 방문해 천수가 최상층 전망대에 오르니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 햇초마을이 보인다. 아이치현을 비롯해 혼슈 중부지방에서 즐겨 먹는 진한 초콜릿색의 햇초 미소, 그 맛과 탄생 과정이 더욱 궁금해진다. 오카자키성에서도 보 12분 거리, 먼저 마루야 햇초 미소를 찾았다. 1337년에 창업한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햇초 미소 양조장이다. 69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의 맛을 지키는 마루야 햇초 미소는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 햇초 미소 제품을 수출한다. 이시하라 도모야스 영업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양조장에 들어서니 커다란 나무통 위에 목직 한 돌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직경 2미터, 높이 2미터의 삼나무 통과 무게 3톤에 달하는 이 돌들이 햇초 미소를 만드는 핵심 도구이자 맛의 비결이에요. 쌀 누룩이나 보리 누룩을 일절 쪄지 않고 콩과 물, 소금만 넣어 2년간 숙성하는데, 삼나무 통에 댄 균이 깊고 진한 된장 맛을 만들어 줍니다.” 삶은 콩을 문쳐 만든, 한국의 메주 같은 덩어리들을 극한까지 압축해 맛을 뽑아내려면 돌을 쌓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경력 10년 이상의 장인이 맨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각 층에 맛



는 돌을 골라 정교하고 균형감 있게 쌓아 올려야 한다. 단순하지
만땀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마루야 핫초 미소 옆에는 1645년에 창업한 가쿠큐 핫초 미소가
자리한다. 전국시대 이마가와 가문의 가신이었던 하야카와 가
문의 선조가 오카자키에 정착해 된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시
초다. 1920년에 지은 양조장에 들어서자 실물 크기 인형이 옛날
방식으로 된장을 만드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다. 핫초 미소 가루
를 곱게 뿌린 소프트아이스크림으로 가볍게 입맛을 돋운 후 미
소니코미 우동을 먹으러 다이쇼안 가마하루 본점으로 향했다.
1913년에 창업한 다이쇼안 가마하루는 단단하고 졸깃한 가마
아게 우동의 원조. 진한 핫초 미소국물에 가마아게 우동을 넣어
뚝배기에 끓인 미소니코미 우동을 한 젓가락 먹으니, 겉겹이 증
폭되는 감칠맛과 함께 폭신하면서도 탱글한 식감에서 100년 세
월의 강한 내공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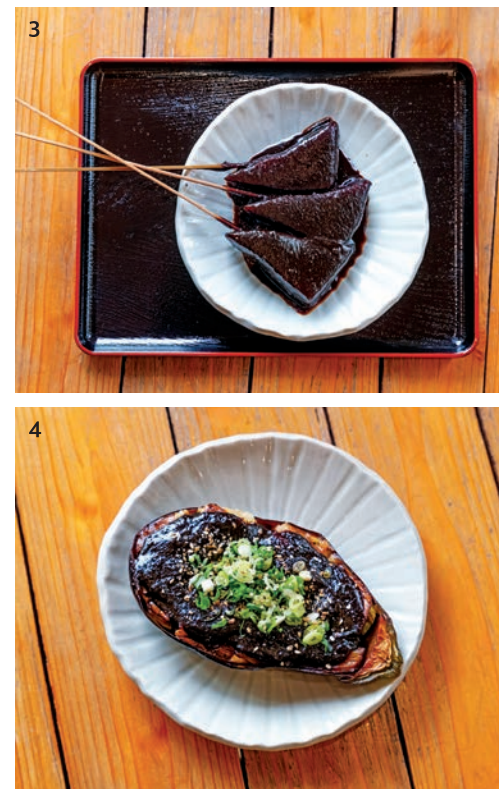
다음으로 찾은 곳은 나고야에서 독보적인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스미야키 우나후지. 기본 2시간은 대기해야 이 집의 히쓰마부시
를 맛볼 수 있지만, 취재 팀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 준 미즈노 나오
키 대표 덕분에 귀한 기회를 얻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스
미야키 우나후지가 이토록 큰 명성을 얻은 이유는 특별한 장어
를 쓰기 때문. 일반 장어보다 30퍼센트 크고 기름진 장어를 사용
하는데 이는 일본 전체 장어 생산량 중 20퍼센트에 해당한다. 또

한 아이치현과 생산자가 함께 특허기술로 개발한 브랜드 장어,
'아오이 우나기'도 사용한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먹는 민물 장어
는 99퍼센트가 수컷이라고 봐야 해요. 장어는 성장 과정에서 주
변 환경과 서식 밀도에 따라 암수가 결정되는데, 경쟁이 치열한
양식 환경에서는 암컷이 살아남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
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소플
라본이든 먹이를 2~3개월 먹여 암컷 장어를 키워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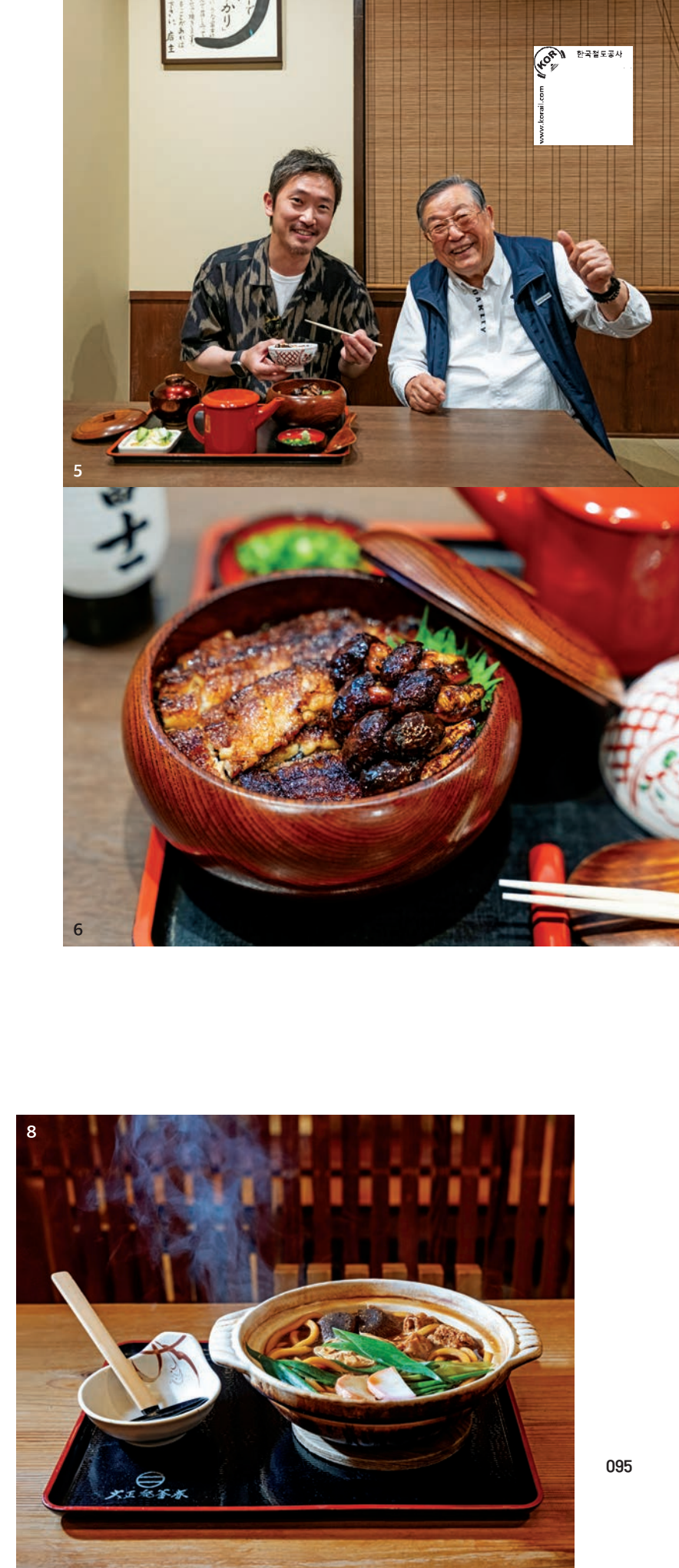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과 유사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성분. 암컷 장어는 수컷 장어와 달리 육질이 부드럽고 기
름기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58년 경력의 82세 장어 전문가 미
즈노 대표가 김태우 셰프를 주방으로 안내해 장어 굽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눈에 봐도 살이 통통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모습. 정성껏 구운 히쓰마부시를 맛보니, 역시 명품 중의 명품이
다. 송이버섯을 얹은 장어간구이까지 소복이 올린 히쓰마부시
를 사이에 두고 어느새 친구가 된 두 사람. 40년 세월도 가뻔히 넘
게 하는 장어의 힘이다.

오쿠하마나코식 장어덮밥을 먹다

다음 날 아침, 여행 속 여행처럼 색다른 기분을 느끼기 위해 시즈
오카현 하마나코로 향했다. 목적지는 일본 정부가 '국제 수변 사



1, 2 1337년에 창업한 양조장, 마루야 핫초 미소. 직경 2미터,
높이 2미터의 삼나무 통에 무게 3톤의 돌을 올려 깊고 진한
맛의 핫초 미소를 만든다. 3, 4, 7 초콜릿색의 핫초 미소는
돈가스나 가지구이 등 각종 요리는 물론, 소프트아이스크림
재료로도 쓰인다. 5, 6 아이치현의 히쓰마부시 전문점,
스미야키 우나후지. 82세의 민물 장어 전문가 미즈노 나오키
대표가 김태우 셰프를 주방으로 안내해 장어 굽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8 1913년에 창업한 가마아게 우동의 원조, 다이쇼안
가마하루의 미소니코미 우동.





1

1 나고야식 장어덮밥과 동경식 장어덮밥의 장점을 모두 갖춘 우나기 치구사의 오쿠하마나코식 장어덮밥. 2, 3 역사 안팎이 온통 마리에코 제품으로 채워진 미야코다역. 열차의 커튼과 헤드 커버도 마리에코 패브릭으로 꾸몄다.

이클링 로드' 중 하나로 선정한 하마나코호. 호수 한가운데 우뚝 선 붉은색 도리이(鳥居)를 배경으로 가볍게 사이클을 즐긴 후 미야코다역을 찾았다. 하마나코의 북부 내륙을 달리는 열차, 덴류 하마나코선을 타기 위해서다. 기차 여행의 설렘을 안고 도착하니, 역안팎이 온통 마리에코 세상이다. 대합실 한편에는 겹과 접시, 의자, 테이블까지 모두 마리에코 제품인 미야코다 역 카페도 들어섰다. 시골의 낡은 간이역과 북유럽의 화려한 미감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 신기한 눈으로 한참을 둘러보다 신조하러 행 열차에 오르니, 차내 커튼과 헤드 커버도 모두 마리에코 패브릭이다. 눈도 마음도 환해지는 기분. 아기자기한 집과 싱그러운 숲, 잔잔한 호수를 감상하며 달리다 오쿠하마나코역에 내렸다. 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우나기 치구사가 있다. 바로 앞에 바다처럼 드넓은 오쿠하마나코 호수가 펼쳐진 우나기 치구사는 관서 지방에서 보기 드물게 우나주 조리법을 채택한 곳이다. 초벌 장어를 한번 찌는 과정을 거치는 것. 그러면서도 꼭 우나주라고는 할 수 없는 이곳만의 장어덮밥을 선보인다고 하니,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다. 오후 햇살이 깊숙이 스며든 창가 자리에 앉아 장어덮밥을 주문했다. 그사이 감사하게도 주방을 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1981년 창업 멤버들이 45년간 동고동락하며 70대를 맞은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섬세한 손놀림으로 장어를 굽는 대선배의 노련함. 두 손을 공손히 모은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일본 혼슈 여행의 시작점. 공항에서 특급열차나 버스를 타면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시즈오카현, 시가현, 나가노현, 후쿠이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등 9개 현에 편하게 도착한다. 현재 김포국제공항(피치 항공), 인천국제공항(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김해국제공항(대한항공, 진에어), 청주국제공항(에어로케이)에서 나고야행 항공편을 각 항공사가 매일 1~2회 운항한다.

홈페이지 www.japannagoya.com



채 노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김태우 셰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주방 견학을 마친 후 드디어 우나기 치구사의 장어덮밥을 먹는 순간, 조금 전 나카노 겐타로 대표가 한 말이 대번에 이해가 된다. “부드럽고 고소한 나고야식과 바삭하고 향긋한 동경식 장어덮밥을 동시에 먹는 느낌이랄까요. 저희는 우나기 치구사의 장어덮밥을 오쿠하마나코식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틀을 따르기보다 나만의 길을 찾는 것. 김태우 셰프의 눈빛이 두 배는 더 날카로워진 걸 보니, 동경밥상의 장어 요리가 앞으로 세 배는 더 맛있어질 것 같다. KTX

제작 지원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인베인턴트, 인베인턴트, 인베인턴트

made in

충남 서부 내륙권의 공간과 사람, 여덟 가지 이야기

CHUNGNAM

no.20



©김정욱

1

겨레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천안 독립기념관

유관순, 이동녕 등 수많은 항일 독립지사를 배출한 충남 천안에는 민족의 뜨거운 독립 의지와 국난 극복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독립기념관이 자리한다. 1987년 8월 15일, 42주년 광복절에 공식 개관한 독립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높이 51미터의 '겨레의 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겨레의 탑과 815기의 태극기가 진열된 태극기한마당을 지나면 동양 최대 기와집이자 독립기념관의 상징적 건축물인 '겨레의 집'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길이 126미터, 높이 45미터 규모로, 고려 시대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만든 건물 한편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서명이 적힌 태극기가 전시되어 뭉클한 울림을 준다.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시한 제1전시관(겨레의 뿌리)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 준비 과정을 조명한 제6전시관(새로운 나라)까지 민족의 수난과 극복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여섯 개의 상설 전시관도 필수 코스다. 야외로 발걸음을 옮기면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과 함께 백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탔던 C-47 수송기가 전시되어 있다. 한편 관내 편리한 이동을 위해 태극열차와 독립부릉이를 운영한다.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 1 하늘에서 바라본 독립기념관.
- 2 '나라 되찾기'를 주제로 한 제5전시관. 조국 독립을 위해 국내외 각지에서 전개된 항일 무장투쟁을 다룬다.
- 3 높이 51미터의 겨레의 탑.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를 형상화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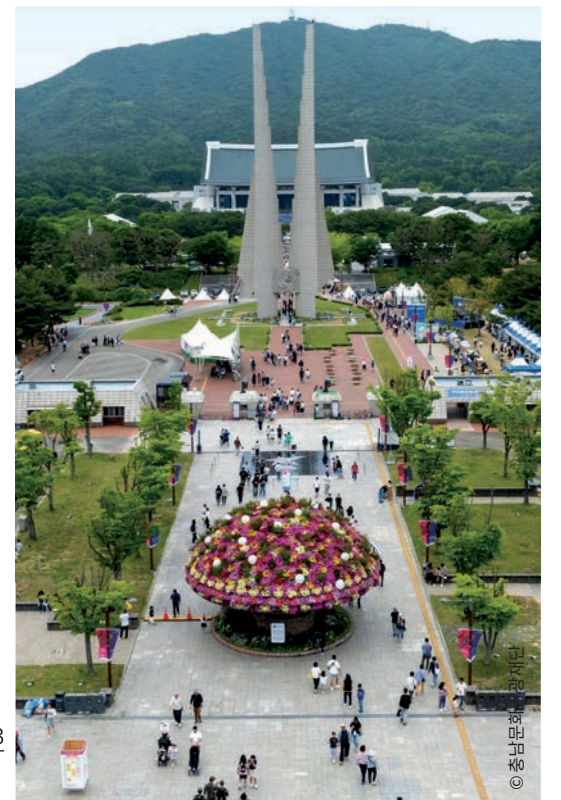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2026 천안 K-컬처 박람회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독립기념관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2026 천안 K-컬처 박람회가 개최된다. 올해는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세계인의 일상이 된 'K-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하며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한식의 매력을 담은 K-푸드관, 인기 웹툰을 만나 보는 K-웹툰관, AI 기술을 활용해 직접 아이들이 되어 보는 K-팝 팝업 전시존을 상시 운영한다. 또한 무더위를 날려 줄 '아이스크림 & 라면 페스타'가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개·폐막식을 비롯해 역동적인 K-록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드라마의 감동을 전하는 K-OST 콘서트, 라디오 공개방송과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전문가와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한 유니브존, 한복 체험과 코스프레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축제 기간 내내 진행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기간 9월 2일~6일 장소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일원

3



단정호/한글서체



1

제72회 백제문화제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제72회 백제문화제가 공주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동거울(청동신수경, 의자손수대경, 수대경 등)을 주제로 백제의 뛰어난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를 전한다. 금강산 관공원과 미르섬, 금강교를 화려한 빛으로 물들일 '웅진백제 별빛 정원', '무령왕·왕비 선발 대화'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산성에서 무령왕릉, 왕릉원, 정지산, 고마나루를 잇는 역사 문화 산책로인 '백제문화이음길'이 조성되어 백제의 중심 공간을 걸으며 문화제를 즐길 수 있다.

기간 10월 3일~11일

장소 충남 공주 금강신관공원, 미르섬, 공산성, 왕도심



2



3

공주 제민천 거리

레트로 감성 물씬한

1 최근 제민천 거리엔 젊은 감성의 카페와 레스토랑, 소품 숍 등이 급증했다.
2 제민천 다리에 설치된 조형물, 여행자들의 포토 포인트다.
3, 4 생태 하천 복원 사업과 도시 재생 뉴딜 정책으로 활기를 되찾은 제민천. 공주 시민과 여행자 모두에게 소중한 쉼터가 됐다.

'백성을 구제하는 하천'이라는 뜻의 제민천(濟民川)은 조선 시대부터 공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만남의 광장이며 생명의 젖줄이었다. 1932년 충남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던 제민천이 다시 활기를 찾은 건 생태 하천 복원 사업과 도시 재생 뉴딜 정책 덕분이다. 과거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뉴 로컬' 공간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제민천 거리가 MZ세대의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했다. 공주 원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4.2킬로미터의 제민천 거리를 걷다 보면 1960~1970년대에 공주로 유학 온 학생들의 하숙 문화를 재현한 공주하숙마을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 공주읍사무소, 나태주 시인의 풀꽃문학관 등이 차례로 나와 100여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제민천 거리의 레트로 감성에 반한 젊은이들이 하나둘 몰려들면서 개성 넘치는 카페와 식당, 소품 숍, 갤러리, 독립 서점, 와인 바 등이 급증했다. 그야말로 공주의 전성시대. 최근에는 공주 특산물인 공주 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저트 카페가 인기를 이을 하고 있다. 또 7월 8일에는 1990년대까지 공주 시민이 문화생활을 즐겼던 호서극장이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자 복합 문화 공간인 1967호서극장으로 재탄생해 정식 개관했다.

주소 충남 공주시 감영길 21(1967호서극장)

4



논산 강경근대거리

금강 하류에 위치한 강경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였던 덕분에 조선 후기 상업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번성했다. 평양, 대구와 함께 '3대 시장'으로 불릴 정도였다. 강경 원도심의 강경근대거리에는 1913년에 건축한 르네상스 양식 건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 강경포구 노동자들의 사무실로 당시 강경 경제의 역동성을 짐작케 하는 옛 강경노동조합,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식 목조건물인 구 연수당 건재약방 등이 남아 그 시절의 영광을 증명한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나올 법한 호텔과 커피하우스, 양과자점 등이 한데 모여 있는 복합 문화 공간 강경구락부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개화기풍 소품으로 꾸민 커피하우스, 1900년대 초반 개화기의 의상과 소품을 대여해 주는 양장점, 근대 한옥 및 양옥 객실로 이루어진 호텔 등 관광객들이 실제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올해는 강경근대 거리에 웰컴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재즈 음악 감상이 가능한 음악도서관, 1900년대 의상을 가상으로 입어 볼 수 있는 양장점, 미디어 아트로 강경의 옛 모습을 감상하는 강경씨네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할 것이다.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167번길 46-11(강경구락부)



단국대박물관 제공 ©

1



단국대박물관 제공 ©

2



단국대박물관 제공 ©

3

1 1913년에 건축한 르네상스 양식 건물인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
2, 3, 4, 5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본 듯한 분위기의 강경구락부에는 개화기풍 소품으로 꾸민 호텔과 커피하우스, 1900년 초 의상을 대여해 주는 양장점 등이 모여 있다. 격자무늬 나무 창 하나까지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단국대박물관 제공 ©

4



단국대박물관 제공 ©

5

강경 국가유산 야행

논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강경근대거리 일원에서 8월 27일~28일, 9월 4일~5일 4일간 '밤이 되면, 강경은 다시 흐른다'를 주제로 2026 강경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강경지역 국가유산 투어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 및 전시, 판매, 홍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강경을 찾는 숙박객, 여행객에게 리워드로 제공되는 '강경통보'를 강경근대거리 일원의 음식점, 푸드트럭, 플라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야행 첫날 공연 및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펼쳐질 낙화놀이이는 강경에서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기간 8월 27일~28일, 9월 4일~5일 장소 충남 논산 강경근대거리 일원



© 2019 KTX Co., Ltd.

1

계룡軍문화축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계룡대 활주로 및 계룡시 일원에서 계룡軍문화축제가 열린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참여해 K-군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박람회다. 6·25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 주는 자리이자, 세계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희망의 무대가 될 것이다. 축제 기간 동안 군의 일상을 직접 경험해 보는 병영 훈련 체험, 화려한 군악·의장대 로드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기간 10월 1일~5일 장소 충남 계룡대 활주로 및 계룡시 일원



© 2019 KTX Co., Ltd.

2



© 2019 KTX Co., Ltd.

3



© 2019 KTX Co., Ltd.

4

면역력 키우고 에너지 채우는

계룡향적산 치유의 숲

- 1, 2 직장인, 학생, 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 활동으로 구성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3 가을이 되면 향적산이 붉은 단풍으로 뒤덮여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4 향적산 치유의 숲에선 해먹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된다.

충남 남부에 자리한 향적산 치유의 숲은 산림청 기준 약 53만 제곱미터 규모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계룡의 대표 명소다. 계곡을 따라 무장애 길이 조성된 향적산 치유의 숲을 걷다 보면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가 더위를 식히기 그만인 물맞이터, 향적산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전망 덩, 고운 빛깔의 물고기가 노니는 생태 연못,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껏 뛰노는 유아숲체험원, 잠시 숨을 고르며 사색하기 좋은 팽나무 쉼터 등을 차례로 만난다. 향적산 치유의 숲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숲의 유익한 환경 요소를 활용해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것. 직장인, 청소년, 노인, 가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전문 산림 치유 지도사의 안내를 받으며 숲길 산책, 해먹 명상, 티테라피 등의 활동을 한다. 체험 인원은 16명 내외, 사전 예약은 필수다.

주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적산길 200



© 백제문화단지

- 1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현재의 부여)의 왕궁을 재현한 사비궁.
- 2 백제 위덕왕이 부왕인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백제 왕실의 사찰, 능사.
- 3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한 초기의 위례성을 재현한 모습.
- 4 귀족부터 일반 서민까지 계층별 주거 문화를 재현한 생활문화마을.

1400년 전 사비백제의 찬란한 부활

부여백제문화단지

금강의 푸른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고, 부소산성과 낙화암을 마주한 자리에 국내 최초로 삼국시대 백제 왕궁을 재현한 백제문화단지가 들어서 있다. 2010년 9월 17일 세계대백제전 개막과 함께 공식 개관한 백제문화단지는 약 330만제곱미터 규모로, 유적과 유물을 근거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각 공간을 재현했다. 삼국시대 왕궁 모습을 국내 최초로 재현한 사비궁, 백제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왕실 사찰, 능사를 비롯해 백제 건국 초기 모습을 담은 위례성과 계층별 삶을 보여주는 생활문화마을 등이 조성되어 있다. 왕궁과 사찰의 하양(下昂)식 구조와 청아하고 은은한 단청은 백제 시대의 대표적 건축양식이다. 백제 시대 의상 체험, 어좌 체험 등 1400년 전 사비백제로 시간 여행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11월 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하는 '야간개장'은 백제문화단지의 백미. 웅장한 사비궁과 능사의 5층 목탑이 화려한 미디어 아트로 물들고, 감성적인 전통 등불이 켜져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왕궁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사비로 열차를 운행하고, 관람객이 직접 운전하며 궁궐 구석구석을 탐방하는 전기여차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 백제문화단지

제72회 백제문화제

올해로 72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문화 축제, 백제문화제가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부여군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사비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오늘의 부여를 도심 곳곳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진다. 정림사지와 석탑로, 의열로, 관북리유적을 중심으로 사비 천도 선포식, 백제 역사 문화 행렬, 백제 문화 나이트 퍼레이드, 제례·불전, 공연, 체험, 전시, 야간 경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낮에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밤에는 빛과 음악, 행렬이 어우러진 시가지 축제를 즐기며 사비의 시간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

기간 10월 3일~11일

장소 충남 부여 정림사지, 석탑로, 의열로, 관북리유적 등 부여군 시가지 일원



시단문화재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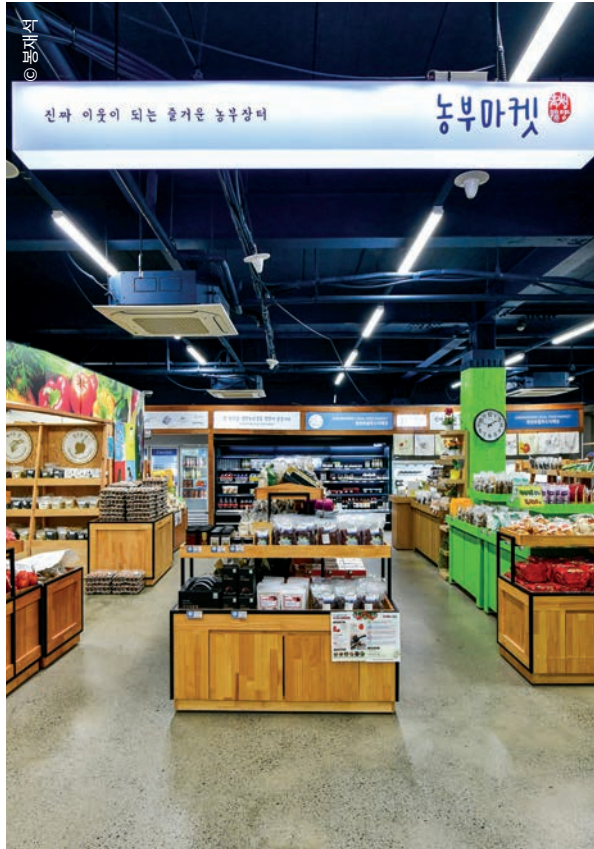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와 구기자를 테마로 축제가 열린다. 청양만의 '맵고 건강한 맛'을 즐기는 오감 체험형 프로그램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양 고추·구기자 특화 존과 주민 참여형 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해 고품질 특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판매한다. 여경래 세프를 초청한 쿠킹쇼 및 전국요리경연대회, 티니핑 공연과 포토존을 포함한 키즈존을 통해 가족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기간 9월 11일~13일 장소 충남 청양 백세건강공원 일원



1



2

1, 2 농부밥상 1층엔 청양에서 난 제철 농산물과 과일, 반찬 등을 파는 농부마켓이 있다. 3 농부밥상의 시그너처 메뉴인 구기자 떡갈비 한상. 4 청양 특산물인 청양고추를 트렌디하고 감각적으로 풀어낸 고추빵. 5 청양고추빵공장에선 볼펜, 키링, 모자, 티셔츠 등 감썻한 굿즈도 판매한다.

3



© 농부밥상

청양 농부밥상 & 청양고추빵공장

구기자와 청양고추의 맛있는 변신



© 농부밥상

4



© 농부밥상

5

칠갑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칠갑대교 아래 자리한 농부밥상은 진시향이 찾던 불로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영양이 풍부한 구기자를 활용해 독창적인 메뉴를 선보인다. 농부밥상의 시그너처 메뉴는 구기자 떡갈비 한상. 국산 돼지고기에 구기자를 넣고 갓은양념으로 떡갈비를 만드는데, 뜨겁게 달군 철판에 양파와 함께 올려 먹는 내내 온기가 유지된다. 갓 지은 밥에 구수한 된장국, 삼색 나물과 버섯탕수, 잡채, 김치 등 10여 종의 반찬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입맛을 돋운다. 농부밥상 1층에는 청양에서 난 제철 농산물과 과일, 반찬 등을 파는 로컬 푸드 직매장 농부마켓이 있다. 식사 후 돌아갈 때 두 손 가득 장을 보기에 그만이다. 청양고추를 트렌디하고 감각적으로 풀어낸 청양고추빵공장도 청양에 오면 꼭 찾아가야 할 맛집이다. 청양고추와 돼지고기, 당면을 넣은 오리지널 고추빵, 매콤한 로제 소스에 스트링 치즈가 든 로제 치즈 고추빵,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치즈 고추빵, 소시지와 체다치즈가 감칠맛을 더하는 햄치즈 고추빵 등 하나하나 개성이 넘친다. 밀크셰이크를 곁들이면 매콤한 고추빵을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키링, 볼펜, 모자, 티셔츠 등 청양고추 모티브의 굿즈도 판매한다.

주소 충남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18(농부밥상), 청양읍 문화예술로 185(청양고추빵공장)



예산군민회관 © 중남뉴스

1

미식가를 위한 푸드 코트

예산시장

1926년에 시작된 예산오일장과 역사를 함께한 예산시장은 1981년 약 7000제곱미터 규모의 상설 시장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예산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인구 감소로 한때 침체를 겪기도 했다. 예산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건 2018년 예산군이 진행한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 덕분. 트렌디한 포장마차 음식부터 예산 향토 음식까지 다채로운 K-푸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맞출 수 있어 전국적 인기를 얻었다. 시장에 들어서면 방문객이 자유롭게 음식을 조리해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대형 장터광장을 중심으로 먹거리 골목이 나타난다. 1980~1990년대 풍경을 재현한 추억의 골목과 각양각색의 상점도 여행자의 발길을 붙든다. 매달 끝자리가 5, 0인 날 열리는 오일장에 가면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시장길 2

예산장터 삼국축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예산 상설시장 일원에서 지역의 맛과 멋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열린다. 지역 특산물인 국화로 아름답게 조성한 국화 존이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풍성한 먹거리 부스와 야간 포차도 운영한다. 오랜 내공이 느껴지는 예산시장 대표 메뉴인 국밥과 국수를 배불리 먹으며 푸근하고 왁자한 장터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 볼 기회다.

기간 10월 22일~25일 장소 충남 예산 상설시장 일원

1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 활기를 되찾은 예산시장.
2 국수와 국밥 중심의 먹거리 골목이 형성됐다.

2



예산군민회관 © 중남뉴스

충남 금산의 개삼(開蔘)터는 1500년 전 강처사가 처음으로 산삼을 심어 인삼을 재배한 곳이다. 진약산 산신령에게 산삼을 받아 병든 어머니를 구한 강처사의 설화가 깃든 이 땅에 2012년 개삼터공원이 조성됐다. 강처사 고택과 연경별 인삼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공원 초입에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음이 자리한다. 현대적 감각의 미디어 아트와 디지털 실감 영상을 통해 금산 인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곳이다. 강처사 설화와 진약산의 수려한 사계를 화려한 영상으로 표현한 미디어 아트, 전통 민화 십장생도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디지털 인터랙티브 아트 영상 등 몸으로 감각하며 놀이하듯 금산 인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KTX

주소 충남 금산군 남이면 개삼로 99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1500여 년 역사를 간직한 인삼의 본고장 금산에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한류 열풍 속에서 K-뷰티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삼의 미용 효과를 부각하고, 금산 인삼을 K-디저트로 확대하며, '청춘을 테마로 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테마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축제의 마스코트 '삼둥이'와 함께하는 인삼 캐기 체험, 홍삼 족욕, 인삼왕 선발 대회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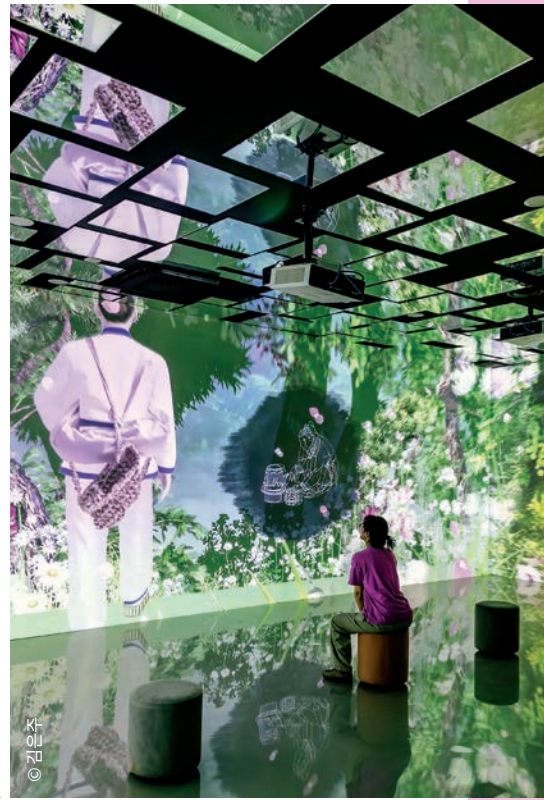
기간 10월 2일~11일

장소 충남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1 현대적 감각의 미디어 아트와 체험을 통해 금산 인삼을 깊이 이해한다.
2 재미있는 포토 포인트도 즐거움을 더한다.

2



주요문 ©

1

no.20

CHUNGNAM



천안 독립기념관

공주 제민천 거리

논산 강경근대거리

계룡 향적산 치유의 숲

부여 백제문화단지

청양 농부밥상 & 청양고추빵공장

예산시장

금산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EDITOR 최현주

제작 지원 충남문화관광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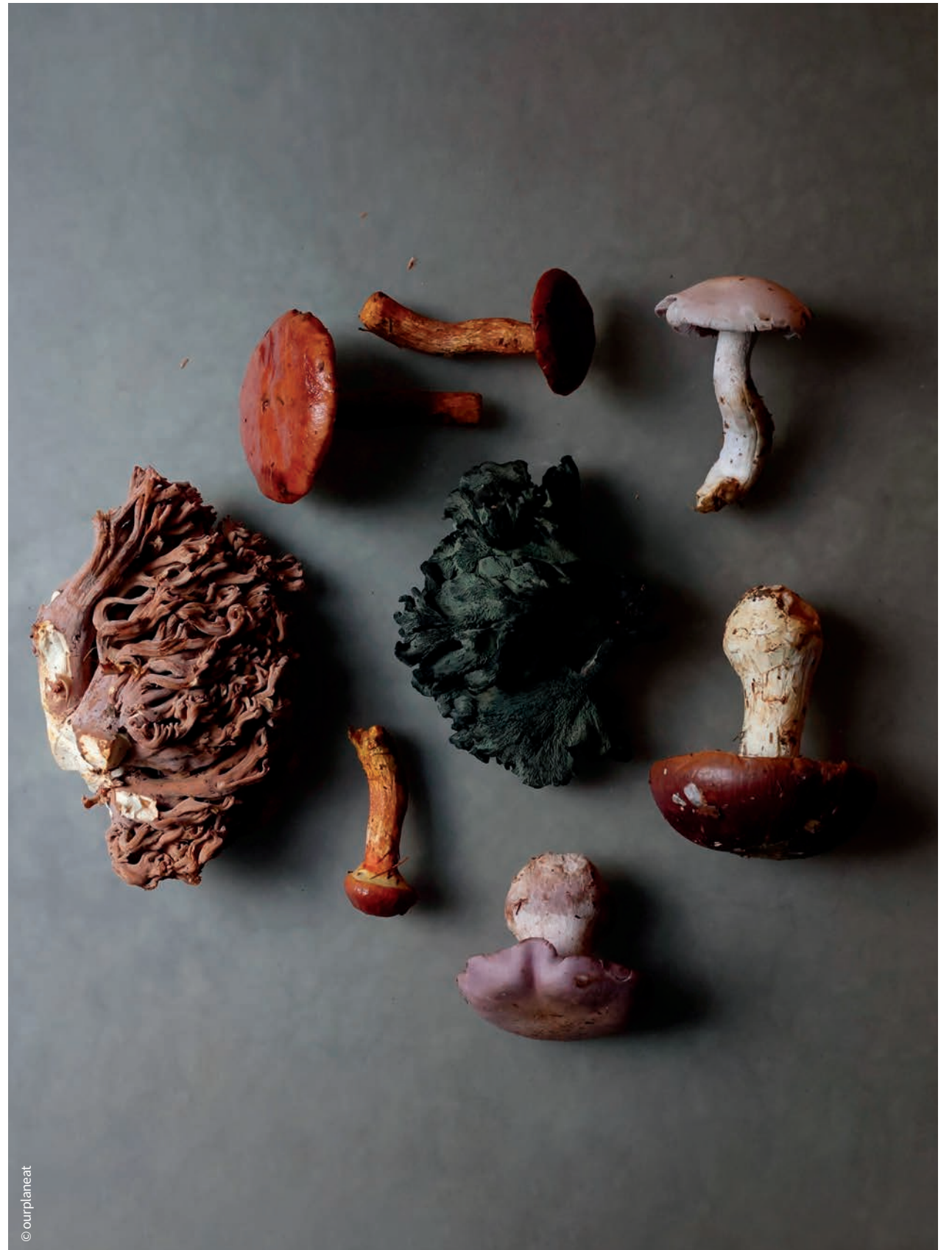
지금 여기

밥상으로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 미식연구소, 아워플래닛 | 비카와 함께한 서촌 웰니스 투어
연꽃 향기 따라 경북 청도 여행 | 강원 원주로 떠난 당일치기 나들이



누구나 하루 세 번 지구를 구할 수 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아워플래닛은 기후 위기, 황폐해지는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버려지는 식재료, 빈곤과 불균형, 동물 복지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를 음식으로 풀어 간다.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지구가 달라진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변해야 한다’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 식탁 위의 음식이 지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장흥 사람들은 여름마다 열무김치를 우물에 보관했다. 된장과 함께 썰어 바다로 나가 배 위에서 물고기를 썰어 넣고 열무김치된장물회를 만들어 먹었다. 거창에서는 모자반을 ‘마재기’라 부른다. 봄마다 겨우내 보관한 무에서 올라온 어린순을 따다 채킨 무와 함께 넣고 마재기무생채나물을 무쳐 먹었다. 지리산 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장마가 오기 전 감자를 수확해 인절미를 만들었고, 일제강점기 울릉도에서는 오징어 내장을 삭혀 찜장이나 찌개에 사용했다.

맛있게 먹어 지구를 지키자

지역마다 전해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식재료를 오늘의 식탁으로 불러내는 이들이 있다. 지속가능 미식 연구소 아워플래닛(our planEAT)이다. 지구를 ‘우리(our)’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식사를 계획(plan + eat)’하자는 의미다. 남부 이탈리아풍 가자미찜과 방글라데시풍 무-생선 커리, 태국풍 갯것(조개, 따개비, 거북손, 고둥 등 갯가에서 나는 조개류) 청정채볶음 등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다국적 요리도 개발한다. 그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자는 제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묵직하다. 잊힌 식재료를 되살리는 건 종의 다양성을 지키고, 제철 음식을 먹는 건 식재료의 장거리 이동을 막아 탄소발생량을 줄인다.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다국적 요리는 기후변화로 식생이 변하는 것을 고려한, 미래의 지구를 위한 레시피인 셈이다.

식탁으로 옮겨 온 환경 운동

아워플래닛은 장민영 대표와 김태운 셰프가 이끈다. 좋은 요리는 잘 키운 작물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주방을 벗어나 생산자를 찾던 김태운 셰프는 잘 키운 작물은 지속가능성과 닿아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직접 찾아낸 농부들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일이 늘었고, 지속가능성을 테마로 레스토랑 이타카를 운영했다. 그리고 팝업을 준비하던 중 장민영 대표를 만났다. 그는 대학원에서 전통 식생활 문화를 전공하고 <한국인의 밥상> 취재 작가로 일하며 전국 방방곡곡의 토종 식재료와 향토 음식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축적한 기획자다. 일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 좋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던 시기에 김태운 셰프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같은 질문을 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식재료와 요리 방식이 개인의 건강은 물론 지구 건강까지 바꿀 수 있는 일상적인 수단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이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땐 환경만 고려하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 우리 음식의 과거와 현재, 동식물과의 관계 등 다양성에 기반을 둔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식문화를 콘텐츠로 소개하고, 지역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자연과 사람을 잇는 점점을 만든다. 그렇게 아워플래닛의 활동을 따라가다 보면 비로소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하루 세 번, 세상을 바꿀 기회가 있다고.





1 제철 식재료를 발효시키거나 젓갈로 담아 저장해 두고 1년 내내 요리에 활용한다.
2 '로컬 오딧세이'는 김태운 셰프가 한국 고유 식재료와 지역 식문화를 재해석해 선보이는 팝업 다이닝이다.
3 '계절의 기억'은 식재료를 중심으로 지역 생산자와의 만남, 조리 방식, 식탁의 경험을 나누는 다이닝 워크숍이다.
4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자라는 염생식을 칠면초는 짭조름한 감칠맛을 품고 있다.
5 홍합을 삶아 살만 분리한 뒤 대나무에 끼워 말린 반건조 홍합고치.
6 통통하고 부드러운 제주 먹고사리. 꽃자왈이나 습지, 계곡에서 자라는데, 색이 먹물처럼 진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무언가를 소비한다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 생태에 영향을 끼친다. 그 과정을 정확히 알게 되면 선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아는 순간, 소비는 사회적 행동이 된다. 생산이 자연을 바꾼다.





생산자를 꼭 적어요. 메뉴가 대여섯 개면 생산자가 30명 가까이 되는데, 메뉴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 팀이 되어 만든 식사라는 걸 강조하고 싶거든요. 생산자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면 소비방식이 달라져요. 식재료가 만 족스럽지 못해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보다 생산자를 먼저 걱정하 게 되죠. 생산자의 정성을 안다면 음식을 남기는 일도 줄고요. 서로 더 이 해하고 배려하도록 로컬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게 중요해요. **장민영** 로컬 오딧세이 하동 편을 진행하면서 예울농 원 배태민 대표의 달걀을 사용했어요. 닭을 가두지 않고 산에서 방목하는 분이요. 동물 복지 원칙을 지키며 닭을 돌보고, 늙어서 생산력이 떨어 진 닭도 잡아먹거나 죽이지 않아요. 재미있는 건 한 판에 든 달걀 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벌레를 좋아하는 닭과 풀을 좋아하는 닭이 낳은 달걀 맛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요.

행복한 닭이 낳은 달걀을 먹으면 더 행복해질까요?

김태윤 아워플래닛에서 사용하는 동물 복지 달걀은 꽤 비쌉니다. 시판되 는 가장 저렴한 달걀의 다섯 배가 넘죠. ‘행복한 닭이 더 맛있는 달걀을 낳 는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조리를 했을 때 냄새부터 달라요. 그 차이 를 알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죠. 결국 좋은 음식을 먹는 건 삶의 질과 맞닿아 있어요. 고무적인 건 몇 해 전부터 마트에 동물 복지 달걀이 등장 했다는 점이에요. 소비자들의 요구로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죠.

소비가 곧 사회적 행동이 되는 거네요.

김태윤 무언가를 소비한다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 생태에 영향을 끼쳐요. 커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종종 보이지 않는 착취

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더라도 착취한 중간 유통자의 배를 불리는 일에 동참하는 소비도 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선택이 달라 지요. 아는 순간, 소비는 사회적 행동이 되죠.

스스로를 지지하지 않게 돌보는 방법이 있나요?

김태윤 자연을 찾아 여행을 떠나요. 자연 속에 머물면서 생명 감수성이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그 경험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하 는 거죠. 얼마 전에는 말레이시아 시파단에 다녀왔어요. 여러 바다에서 다이빙을 해 봤지만, 물고기가 그토록 뽐뽐하게 있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것처럼 황홀한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오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든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장민영** 스리랑카에서 대왕고래를 봤을 때도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바다’ 캠페인을 만들어 다이닝과 연결했죠.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 예요. 지역을 다니면서 정직한 생산자를 만나면, 그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릴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여행이 휴식이자 곧 영감이 되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김태윤 아워플래닛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즐기려고 해요. 즐겁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재미있고 즐겁게 보아야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거고요. **장민영** 사람들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살 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삶을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하루 를 살아 내는 힘이 생기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 께어요. 보다 많은 사람이 음식이 주는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KTX**

다이닝 팝업, 식재료 워크숍,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장민영 대표 프로그램은 ‘로컬 오딧세이’와 ‘계절의 기억’이에요. 로컬 오 딧세이는 한국 고유의 식재료와 지역 식문화를 취재해 코스 요리로 재해 석하는 팝업 다이닝이에요. 국경을 넘나드는 김태윤 셰프의 요리를 경험 할 수 있지요. 계절의 기억은 계절이 갖든 식재료를 만든 음식을 함께 먹 고, 제철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워크숍이에요. 참석자들이 집으로 돌 아가서도 요리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식재료 꾸러미를 안겨 주고, 레시피 를 공유하죠. 로컬 오딧세이에서는 종종 필드 트립을 나가기도 해요. 지역 농부와 함께 식재료의 탄생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몸으로 이해하는 시간이지요. 다양한 미식 경험을 통 해 지구를 위한 식사를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매일 마주하는 밥상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인상적이에요.

김태윤 무엇을 먹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지구는 달라져요. 생산, 가공, 유통, 폐기 등 식품 시스템이 지구 탄소 배출의 26퍼센트 이상을 담당합니 다. 인위적인 재배와 육식, 비료 사용, 각종 포장재, 버려지는 음식, 장거리 운송이 많을수록 탄소 발생량이 늘어요. ‘나부터 바꾼다’는 인식이 중요 합니다. **장민영** 바꾸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 구를 지켜라’ 같은 메시지를 앞세우기보다 ‘맛있게 먹는 것이 지구에 이로 운 일’이라고 말해요. 진짜 미식은 제때 먹는 거예요. 제철 식재료는 그 자 체로 완성된 맛을 지니고 있어요. 계절의 리듬도 읽을 수 있고요. 거창 출 신인 저는 봄이 오면 돌나물김치를, 초여름까지는 죽순김치를 먹고 자랐 어요. 피꼬리버섯무침과 국수버섯찌개, 송이버섯무침 등 다양한 버섯 요 리를 먹다가 흰굴뚝버섯무침이 식탁에 올라오면 겨울이 온다는 걸 알아 채곤 했죠. 저는 시금치를 잘 먹지 않는데, 겨울 바닷가에서 자라 통통하 게 살이 오른 시금치는 좋아해요.

계절을 좇다 보면 기후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낄 것 같아요.

장민영 바다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어종이 이동하거나 사라지는데, 우 리의 식생활은 여전히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수 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요. 골뱅이는 영국에서, 갈치는 세네갈에서, 박 대는 기니에서, 문어는 모리셔스에서, 홍어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와요. **김태윤** 세계적으로 수산자원 자체가 줄고 있고요. 어종별 연간 어획 한 도를 정하는 바다 쿼터제가 생겼고, 해양관리협의회에서 지속가능어업 표준을 충족하는 수산물에 에코 라벨을 붙여 주는 MSC 인증 제도도 생 겼어요. 유럽의 경우 대형 마트에서는 입점을 원하는 수산물 공급업체에 MSC 인증 라벨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국도 시장의 이런 요구들로 인해 바다를 지금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개인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장민영 두려운 건 무관심이 아닌 포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자’가 아닌 ‘무엇이든 재미있게 해보자’고 제안해요. 긍정의 언어로 우리가 변화 한다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얘기하는 거죠. 그 시작이 ‘맛있는 걸

먹자’는 것이고요. 다행히 자연에서 자란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맛 있어서 우리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요. **김태윤**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 땅과 바다에서 나는 것들도 달라지고 있어요. 식재료가 바뀌면 요리도 바뀌어 야 하죠. 낯선 식재료로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바뀐 작물 중에는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에는 그 작물을 오랫동안 소비해 온 지역의 조리법을 참고해 레시피를 만 드는 일도 하고 있어요.

지역을 탐험하며 잊힌 식재료를 발굴한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장민영 아이러니하게도 먹고살 만해지면서 밥상이 단조로워졌어요. 아 워플래닛은 예전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는지 끄집어내는 일을 하죠. 경험 으로 아는 음식이나 식재료도 있고, 취재하며 발견하는 것도 있어요. 지 역 밥집을 다니며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오일장에서 할머니들이 채취해 온 것을 추적하기도 해요. **김태윤** 이미 소멸된 것이 아니라 1세대나 1.5세 대 위 세대의 식문화를 발굴하는 거예요. 들어 본 것, 먹어 본 기억이 있는 것, 위 세대가 주야장천 먹던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대로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에 먹거리를 전해 주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장민영 잊히면 끝이에요. 특정 식재료만 사용하면 다양성이 무너져요. 울릉도 나리분지는 섬말나리꽃이 많이 피어 붉은 이름인데, 이제는 찾아 보기 힘들어요. 소비자가 명이나물만 찾으니 다양한 식물을 모조리 베어 내고 명이나 심은 거죠. 아워플래닛은 섬말나리나 왕호장 같은 울릉도 자 생식물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해요. **김태윤** 예를 들어 섬말나리 농사가 지속 가능하려면 가정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 가 필요해요. 울릉도 사람들은 홍감자에 섬말나리 뿌리를 넣어 버무리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걸 멕시코풍으로 풀어내면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돼 요. 소비는 생산을 바꿔요. 성공한다면 울릉도의 종 다양성이 회복될 거 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비할 수 있고요.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장민영 음식이 사라지는 건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관계들이 많이 끊겼어요. 1인 가구가 늘면서 부모나 이전 세대의 음식을 먹거나 배울 기회가 사라졌고, 발보다 마트가 가까우니 자연과 유리됐고, 마트에서 상품화된 것을 사 먹으니 생산자와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졌어 요. 세대, 자연, 생산자와의 연결이 단절된 거죠. **김태윤** 지속 가능성에 대 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단절, 자연과 사람 간의 단절, 사람과 동물 간의 단절, 도시와 지역 간의 단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단절 등등. 궁극 적으로 우리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생산자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윤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부터 지켜 온 원칙인데, 메뉴 아래에 재료와

비카의 서촌 웰니스 투어

속을 편안하게 해 주는 사찰 음식
전문점, 앞차를 우리며 오감에
집중하는 한옥 티하우스, 온몸의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요가
스튜디오까지. 벨라루스에서 온
비카와 함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서울 서촌의 웰니스 공간을 찾았다.



멜니코바 빅토리아(비카)

Melnikova Viktoryia

요가 수련 지도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자리한 벨라루스에서 왔다. 대학
때 한국어를 전공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2021년 서울에 정착해 러시아
통번역가로 일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AI 기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을 고민하다 현재 요가 수련
지도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향’이라는 무형의 예술

모노룸 서촌

명상과 호흡 중심의 요가를 지향하는 비카에게 향은 물입을 돕는 중요한 매개다. 수련에 도움을 줄 향을 찾기 위해 모노룸 서촌으로 향했다. 서촌 누하동 골목 안쪽, 붉은 벽돌 건물 2층에 자리한 모노룸 서촌은 한국적 재료와 정서를 향으로 표현하는 독립 향수 브랜드다.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 조향사 유호석·이나연 부부가 2018년에 론칭하고 지난 2월 말 합정에서 서촌으로 매장을 옮겼다. 쇼룸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약장과 머릿장, 제상 등 조선 시대 고가구 위에 진열된 현대적인 향수 패키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호석 대표가 비카에게 좋아하는 향을 묻자, 샌들우드나 머스크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향에 끌린다고 답한다. 비카는 여러 향을 차례로 시향한 끝에 이슬에 젖은 풀잎 같은 시원한 솔향기의 ‘고요’와 향목을 태운 뒤 남은 그윽한 잔향의 ‘누 디베(Nuit D’hiver)’를 골랐다. “천천히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카가 손목에 향수를 뿌리며 말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3길 1



부처의 자애로운 식탁

마지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을 뜻하는 마지(摩訶)는 사찰 음식 기반의 채식 요리 전문점이다. 연잎밥이나 비빔밥 같은 친숙한 음식부터 신선로, 구절판 등 궁중 음식까지 폭넓게 선보이며, 오신채와 달걀, 생선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 비건도 즐길 수 있다. 장이에 민하고 고기를 즐기지 않는 비카에게 채수로 맛을 낸 우영잡채와 재료 본연의 단맛을 살린 호박죽, 제철 나물로 차린 밥상이 더없이 반갑다. “꿈의 식탁이네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양 덕분에 그릇을 비운 뒤에도 속이 편안하다. “명절 때면 불자인 시할머니를 따라 절을 찾아가서 밥을 먹곤 해요.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 절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비카가 벽에 걸린 ‘신묘장구대다라니’ 진언을 바라보며 말한다. 진언의 깊은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해도, 악업을 멈추고 탐욕·노여움·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가라앉혀 깨달음에 다다르게 해 준다는 글귀를 천천히 되새기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5길 19



도시 명상가의 웰니스 웨어

타하타

“요즘 요가복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초록색 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오르며 비카가 운을 댄다. 비카의 말처럼 요가복은 단순한 운동복을 넘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타하타는 주얼리 디자이너 출신 전상미 대표의 ‘쿨하면서도 편안한 요가복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바람에서 탄생한 웰니스 웨어 브랜드다. 너무 운동복 같지도, 지나치게 꾸민 옷 같지도 않은 ‘도시 명상가의 데일리 웨어’를 지향하며, 100퍼센트 천연 면을 사용해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쾌적하다. 자유분방한 색감은 타하타의 매력 포인트. 비카의 시선이 향한 곳은 한여름에도 입기 좋은 ‘바이오 워싱 고밀도 면 팬츠’다. “이 바지는 가볍고 기장이 길어서 좋아요. 한국에서는 제 키에 맞는 바지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스탠더드 핏보다 길이가 길면서 품이 넉넉한 롱 핏이 비카의 마음에 쏙 들었다. 현재 타하타 쇼룸은 리뉴얼을 위해 잠시 문을 닫았지만, 8월 말 서촌의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9길 12





차 한잔으로 얻는 내면의 평화

터틀도브

사직파출소 뒤편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서자 낮은 주택가 사이로 2층짜리 한옥 티하우스 터틀도브가 모습을 드러낸다. 산비둘기를 의미하는 터틀도브는 차와 명상, 요가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는 웰니스 라운지다. 터틀도브의 지봉근 대표가 운남백차를 우려내자 화사한 꽃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어린 시절부터 큰 티포트에 차잎을 넣고 우린 차를 물처럼 마셔 온 비카에게 소량의 차잎을 여러 번 나눠 우리는 방식은 낯설면서도 흥미롭다. “차를 마시는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라는 비카의 물음에 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마음대로 드시면 돼요.” 창 밖으로 서촌 풍경이 내다보이는 2층에서는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출근 전 몸을 깨우는 ‘모닝 요가’, 티타임과 요가를 결합한 ‘요가와 차’, 차 도구로 앞차를 우려 마시며 오감에 집중하는 ‘마인드 풀 티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단비 같은 휴식을 선사한다. **KTX**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9가길 13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

요가,늘보

한옥 요가 스튜디오 요가,늘보는 개인의 신체 특성과 마음의 속도에 맞춰 수련을 진행한다. 덕분에 요가 초보자도 무리 없이 동작을 익힐 수 있다.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 요가 클래스도 연다. 장독이 정갈하게 늘어선 마당을 정면으로 마주한, 편백나무 향 가득한 수련실에서 비카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다. “요가 지도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뒤부터 매일 아침 호흡으로 몸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해요.” 비카는 요가의 열두 가지 기본 동작이 연결된 ‘수리야 나마스카라(태양 경배 자세)’를 차분히 이어 간다.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힌 뒤 다시 바닥을 짚고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요가는 타국에서의 삶을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죠.” 정해진 순서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굳어 있던 전신의 근육이 서서히 풀리고 정신도 한결 맑아진다.



이 계절엔 여기

EDITOR 김수아 · PHOTOGRAPHER 김은주



연꽃 향기 따라 청도 유람

낮에는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반기는 운문사에서,
밤에는 연꽃이 춤추는 유등연지에서 숨을 고른다.
경북 청도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현지인만 아는
숨겨진 명소도 추천받았다.



1

이때 작가는 인터뷰에서 고향 청도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숲의 화가가 태어난 곳. 청도에 포개진 '예술가의 고향'이라는 수식어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뮤지엄 SAN에서 열린 이때의 개인전 <En attendant: 기다리며>에서 청도의 흙을 마주한 뒤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여행 정보를 빠르게 얻으려고 청도군청 문화 관광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계절별 추천 코스를 살펴보다가 청도 관광 9경의 하나로 꼽히는 유등연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연꽃이 만개하는 계절, 상상 속에만 머물렀던 청도를 만나러 기차에 올랐다.

Day 1

보물 안의 보물, 운문사

여행의 첫 목적지는 천년 고찰 운문사. 560년(신라 진흥왕 21년) 한 신승이 창건한 이 절은 고려 시대 승려 일연이 주지를 지내며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비구니 도량인 운문사는 1958년 불교 평화 운동 이후 비구니 전문 강원을 개설했고, 1987년 승가대학으로 개칭해 수많은 수도승을 배출했다. 학인 스님들의 실습 공간으로 쓰는 만세루에서 배명희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났다.

먼저 보여 줄 것이 있다는 그를 따라가니 희귀한 수형의 나무가 나타난다.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편 듯한 모양의 '처진소나무'다. 이름처럼 가지가 밑으로 축 처진 이 소나무의 나이는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처진소나무는 총 세 그루예요. 두 그루가 청도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울진에 있어요." 운문사의 처진소나무는 막걸리를 마시는 소나무로도

유명하다. 매년 음력 3월 3일이 되면 스님들이 물 섞은 막걸리를 나무 가장자리에 부으며 염불을 외운다. 절의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나무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어져 온 연례행사다.

운문사에는 1994년에 신축한 대웅보전과 그 전까지 대웅보전 역할을 했던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이 공존한다.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과 법당안 그림 두 점은 보물로 지정됐다. 그중 하나가 비로자나불상 뒤에 모신 '비로자나삼신불회도'다. 18세기에는 삼신불(비로자나불, 석가불, 노사나불)을 세 폭으로 나누어 그리는 형식이 유행했는데, 이 불화는 삼신불을 한 폭에 배치한 점이 특이하다. 괘불도에서만 나타나는 '보관을 쓰고 연꽃을 든 노사나불'을 묘사한 유일한 후불탱화이기도 하다. 안정된 화면 구성, 균형 잡힌 인물 표현, 적색과 녹색이 대비를 이루는 차분한 색감 등이 18세기 불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후불벽 뒷면의 벽화도 보물이다. "한 화면에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나란히 표현한 벽화로는 유일해요. 불화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보고 가죠." 천장에 매달린 '청의동자상'도 그냥 지나치긴 아쉽다.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을 놓쳐 뱃사공이 던진 밧줄을 잡고 악착같이 매달려 결국 극락정토에 도달했다. 그래서 악착보살이라고 부른다. 큰 시험을 앞둔 동생에게 선물하러고 기념품점에서 악착보살 캐릭터 볼펜을 챙겨나왔다.

점심시간이 되어 불로장수식당으로 이동했다.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 온 이 식당은 직접 농사지은 제철 재료로 반찬을 만든다. 메뉴는 돌솥밥 정식과 연잎밥 정식 두 가지. 한여름 승려들이 즐겨 먹던 도시락에서 비롯됐다는 연잎밥의 유래가 떠올라 연잎밥 정식을 주문했다. 고등어·열기·가자미구이를 비롯해 정성스



2

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 2 직접 농사지은 제철 재료로 반찬을 만드는 불로장수식당의 연잎밥 정식. 3 비로자나불상 뒤에 모신 '비로자나삼신불회도'는 운문사의 보물 중 하나다. 4 학인 스님들의 실습 공간으로 쓰는 만세루에서 만난 배명희 문화관광해설사.



3



4



1

2

렵게 만든 반찬이 상을 가득 채운다. 집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도 진하고 구수해 속이 풀린다. 새콤달콤한 가지 탕수,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표고밀동조림, 향긋하고 부드러운 삼잎국화나물무침 등 입맛을 돋우는 반찬의 향연에 어느새 밥이 싹 사라지고 연잎만 남았다. 이곳의 시그너처 반찬인 감말랭이튀김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득하면서 달짝지근해 디저트를 먹는 것 같다. 진짜 후식은 대표가 직접 농사지었다며 손에 쥐여준 복숭아다. 바로 한 입 베어 무니 싱그러운 과즙이 뽀아져 나온다. 청도의 여름이 입안 가득 퍼진다.

유등연지의 밤을 밝히는 꽃

유등연지에 도착할 무렵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근처에서 쉴 만한 장소를 찾다 갤러리청담을 발견했다. 입장료 5000원을 내면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 한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건물 2층에는 바깥 풍경을 시원하게 감상하도록 한쪽 면을 통창으로 설계해 유등연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유등연지의 기원은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현

이육이 무오사화가 일어난 뒤 안동에서 청도로 내려와 '신라지'라 불리던 못을 넓히고 연을 심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비록 숨어 지내야 했지만, 진흙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고고한 군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연을 심었다. 호수 위에 군자정을 지어 유학을 신봉하는 선비들과 도학을 주제로 토론하고, 문우들과 시를 읊거나 후학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다.

지금은 청도 군민과 관광객의 산책로로 사랑받는 유등연지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연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아침 일찍 꽃을 피우니 이른 시간에 가는 게 좋다. 7월 초에 방문한 터라 활짝 피어난 연꽃과 샛노란 연밥을 숨긴 꽃봉오리가 동시에 보인다. 커다란 연잎이 바람에 너풀너풀 춤을 추다 표면에 고인 물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군자정에서 출발해 유등연지 둘레길을 한 바퀴 돌면 25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산책로가 생겼다. 지난 7월에 유등연지를 가로지르는 텍을 설치한 것이다. 오후 8시가 되면 연꽃을 형상화한 텍 전체에 조명이 켜져 낭만적인 산책로로 변모한다. 바닥에 장착한 별자리 조명을 따라 걸었다.



특특(Talk, Talk)한 관광 택시

청도군은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예약형 교통 서비스를 운영한다. 관광객이 사전 예약하고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의 50퍼센트를 군에서 지원한다. 지정 코스와 자율 코스로 나뉘는데, 자율 코스 선택시 관광지를 최소 1개소 이상 방문하고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 택시 한 대당 최대 네 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출발지 및 도착지가 청도역이 아닐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단,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료, 숙박비, 음식비는 별도다. 청도군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받고 전화로도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하다.

예약 및 문의 054-370-2379

1 갤러리청담에서 유등연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2 오후 8시가 되면 유등연지에 새로 설치한 텍에 조명이 켜진다. 3 유등연지에 활짝 피어난 선홍빛 연꽃.



3



1 스테이 온 페이지 숙박객에게 제공하는 조식.
2 멘토그린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압화 액자 만들기. 3 멘토그린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은 성격 유형 검사와 관계 멘토링이다. 4 객실마다 콘셉트가 다른 스테이 온 페이지의 '페이지 26'은 문학동네 시인선으로 채웠다.



Day 2

책과 함께 머무는 하룻밤, 스테이 온 페이지

둘째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일행이 묵은 곳은 청도읍성 인근의 복합 문화 공간, 스테이 온 페이지다. 게스트하우스인 오마이 게스트, 객실마다 다른 콘셉트로 꾸민 스테이 온 페이지, 서점 겸 카페인 오마이북,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오마이룩, 별관인 오마이아지트 등으로 구성됐다. 오마이아지트는 낮에는 중고 서점으로, 밤에는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심야 책방으로 운영한다. 전날 밤 책방 지기의 추천 도서와 각테일을 함께 즐기는 심야 책방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피로감이 몰려온다. 다음 내용이 궁금해 멈추지 못하는 소설책처럼, 김인식 오마이북 대표와 주고받은 이야기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따뜻한 커피 한잔이 절실해 오마이룩으로 향했다. 갓 구운 빵에 샐러드와 수프를 곁들이는 브런치는 언제나 반가운 조식 메뉴다. '멋진 하루'라는 메뉴명에서 숙박객을 향한 애정이 느껴진다. 여기에 제철 과일인 복숭아와 수제 사워크림을 올린 달콤한 프렌치토스트까지 맛보니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 외출 전 오마이북에도 들렀다. 책방지기의 애착 도서인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쪼머 씨 이야기>가 저자의 다른 소설과 나란히 꽂혔고, 허수경 시인의 유고 시집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도 신간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 손님들의 추천사가 적힌 블라인드 북을 찬찬히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멘토그린 예약시간이 다가왔다.

스스로 돌아보는 치유 농장, 멘토그린

스테이 온 페이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멘토그린은 원예·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 농장이다. 치유농업사인 백미진 대표와 그의 남편 김병국 심리상담가가 농장을 꾸린다. 5년 전 대구에서 청도로 내려온 부부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를 함께 수강한 뒤 멘토그린 오픈을 준비했다. 이곳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은 성격 유형 검사와 관계 멘토링이다. 멘토형 성격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알아가는 건 물론, 상대방과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파악할 수 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길 방안을 제안해 '관계 멘토링'이라고 부른다.

같이 방문한 동료와 성격은 반대, 성향은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은 게 공통점이라면,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말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작물을 추천해 준다는 점도 흥미롭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사람에게는 청도 특산물인 미나리를 추천해요. 빠르게 성과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면 수확까지 3년 이상 걸리는 과수 재배는 피하라고 권하죠."

멘토그린에서는 허바리움, 토피어리, 압화 액자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중 압화 액자를 고르니 투명 아크릴 판과 핀셋, 목공 풀, 말린 꽃이 담긴 통을 내준다. 히비스커스 차를 홀짝이며 화면 구성을 고심해 본다. 꽃잎 배치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



1 꽃자리의 인기 메뉴인 감말랭이팔빙수와 아이스홍시셔벗. 2 김경진 브레이크타임 대표와 전기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 청도읍성.

농장을 돌아다니는 작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온다. 한 생명의 자유로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기도 한다. 원하는 꽃잎을 붙인 투명 아크릴 판을 액자에 끼운 뒤, 고양이와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다누' 두 글자를 압화 액자 한쪽에 적었다. 멘토그린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처 중 한 곳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청도의 명예 주민 자격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곳에서는 체험비를 할인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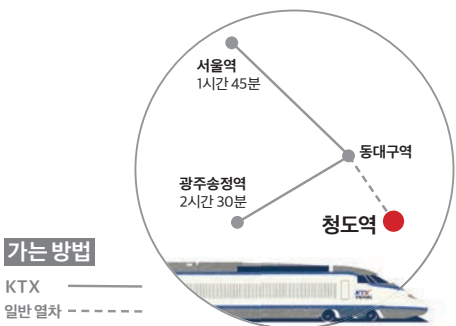
브레이크타임에 수집한 골목 풍경

이젠 전기 자전거로 청도 곳곳을 누빌 차례다. 자전거 여행에 동행할 김경진 브레이크타임 대표를 청도천 강변에서 만났다. 8년 전 청도로 귀촌한 그는 일식당 '올밥'을 운영하며 브레이크 타임마다 스쿠터를 타고 지역 일대를 돌아다녔다. 마을의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을 담은 영상을 인스타그램(@cheongdo.daddy)에 올렸고, 주민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차곡차곡 수집해 골목을 여행하는 자전거 체험 코스를 구상했다. 송수신이 가능한 헬멧을 착용하자 목적지를 안내하는 김 대표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페달을 힘차게 밟아 오래된 빨래터에 도착했다. "100년 이상 된 빨래터인데

여전히 빨래하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걸레를 빨거나 농기구를 세척하기도 하죠. 모여서 수도도 떨고요. 빨래터 영상을 올렸더니, 어릴 적에 여기서 수영했다는 댓글도 달렸어요."

전기 자전거는 속도 조절이 가능하니 오르막길도 거뜬히 넘어간다. 소라보체육공원, 과수원과 우물길, 청도읍성, 석빙고 등을 차례로 거치며 상쾌한 공기를 한가득 마셨다.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길, 청도 탐험가에게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물었다. "가을이요. 시골의 황금 들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 감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이 좋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감으로 채워진 풍경이 이국적으로 느껴져요." 타지인의 눈으로, 때로는 현지인의 눈으로 청도를 바라보는 김 대표와 함께라면 이곳의 진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브레이크타임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사운드 워킹, 지역 주민과의 만남, 농가 일일 체험 등을 결합해 다양한 코스를 계획 중이다.

자전거를 반납한 뒤 청도읍성 근처 한옥 카페를 찾았다. '꽃자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려 6600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을 갖춘 곳이다. 한국적 전통미가 느껴지는 좌식방에 자리를 잡고, 감말랭이팔빙수와 아이스홍시셔벗을 주문했다. 늦그릇에 담긴 팔빙수에는 감말랭이와 참쌀떡을 올리고 생화로 장식했다. 달콤한 팔소와 부드러운 우유 얼음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아이스홍시셔벗은 건과류를 가득 얹어 맛이 담백하고 고소하다. 감으로 만든 디저트를 먹다 보니 청도 전역이 주홍빛 감으로 물든 풍경이 연상된다. 10월에는 청도반시 축제와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거리마다 웃음이 터져 나오는 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여름을 건너가을로 향하고 있다. **KTX**



제작 지원 청도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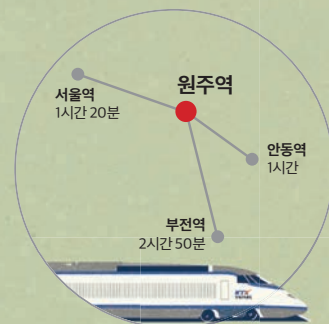


청도에서 에디터가 다녀온 곳

- **운문사**
주소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문의 054-372-8800
- **볼로장수식당**
주소 경북 청도군 각북면 헬티로 1242
문의 054-371-6461
- **유등연지**
주소 경북 청도군 화양읍 연지로 207
문의 054-370-6057
- **갤러리청담**
주소 경북 청도군 화양읍 연지안길 36
문의 054-371-2111
- **스테이온페이지**
주소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3길 67-5
문의 054-371-3030(오마이북)
- **멘토그린**
주소 경북 청도군 화양읍 학산토평길 90-117
문의 0507-1403-9120
- **꽃자리**
주소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77
문의 054-372-1199

원주 당일치기 나들이

주인의 뚜렷한 취향을 담은
책방부터 젊은 창업자들로 활기를
되찾은 전통 시장까지, 강원
원주에서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당일치기 코스를 추천한다.



가는 방법
KTX



예쁜 그릇에 올린 계절 디저트 아토하우스

아기자기한 감성 카페들이 밀집한 단계동 카페 거리에 지난 4월 카페 아토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인테리어와 나무 가구, 은은한 조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아토하우스의 시그니처 메뉴는 제철 과일을 아낌없이 넣은 디저트와 샌드위치. 바닐라빈 판나코타에 생망고와 직접 만든 망고청을 더한 생망고 판나코타와 멜론을 통째 올린 생멜론 케이크는 여름 한정 메뉴다. 감각적인 그릇과 소품도 아토하우스의 매력 중 하나. 안목이 남다른 대표가 서울과 경기 이천 등에서 발품 팔아 고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알고 보니 아토하우스는 카페 겸 편집숍이었던 것.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을 판매하기도 해 이곳에서 바로 쇼핑도 가능하다.

주소 강원 원주시 이화4길 57 문의 0507-1327-5244



취향 뚜렷한 소설 덕후의 서가 바름책방

원주시 원동의 고즈넉한 골목에 3년째 은은한 불빛을 밝히는 동네 책방이 있다. 자칭 소설 덕후 대표의 뚜렷한 취향이 반영된 곳, 바름책방이다. 서가에 꽂힌 책은 소설과 시집, 성인용 그림책이 주를 이룬다. 바름책방에는 이곳만의 규칙이 존재한다. 작가의 노동을 존중하기 위해 우선 책을 구입한 뒤 자리에 앉아 읽어야 하는 것. 단, 카운터 아래 스티커가 붙은 책은 누구나 편안하게 꺼내 볼 수 있다. 바름책방은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지적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매주 수요일에는 인문학 책 독서 모임이 진행되고, 목요일에는 혼자 도전하기 힘든 두꺼운 고전이나 철학서를 함께 소리 내어 읽는 벽돌책 낭독 모임이 열린다. 조만간 고전을 주제로 한 새로운 읽기 모임을 시작할 예정이다. 낡은 원목 의자에 앉아 책장 넘기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보면 시간을 잊는 채 오래도록 이 방에 머물고 싶어진다.

주소 강원 원주시 무실로55번길 28 문의 0502-1922-0338

독립 창작자들의 놀이터 무용담 예술상점

중앙시장 2층, 미로 같은 복도를 헤매다 보면 마법처럼 나타나는 비밀 기지가 있다. 이름 그대로 '쓸모없어 보이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나누는 공간, 무용담 예술상점이다. 거친 시멘트 벽면을 배경으로 예술가들의 작업물과 소품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며 방문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무용담 예술상점은 대량생산한 기성품이나 특산품이 아닌, 대표가 전국 각지에서 선별한 일러스트 엽서, 포스터, 문구류, 오브제 등 독립 창작자들의 기획 상품과 빈티지 물건이 주를 이룬다. 공간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는 인센스 스틱과 다채로운 형태의 캔들 등 향(香) 관련 제품도 이곳의 시그니처다. 매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브랜드와 품목이 세분화되어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작가의 작업물이 입고되어 언제 방문하더라도 특별한 영감이 샘솟는다.





원도심 골목에 분 새바람 미로예술중앙시장

1950년대 오일장으로 시작한 중앙시장은 오랫동안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다. 복잡하게 이어지는 골목과 낮은 천장, 손때 묻은 계단은 옛 시장 모습 그대로다. 한때 강원 영서권을 대표하는 시장이었지만, 대형 유통 시설이 들어서고 생활권이 바뀌면서 점차 쇠퇴했다. 중앙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건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2층 상가에 정착하면서다. 가·나·다·라 네 동의 상가가 미로처럼 연결되어 이곳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길을 헤매기 십상이다. 바로 그런 독특한 구조에서 시장 이름에 '미로'가 붙었다. 미로예술중앙시장의 골목을 걷다 보면 개성 넘치는 식당과 감각적인 카페, 독심 있는 수공예 공방과 셀렉트 숍이 여행자의 발길을 붙든다. 가족을 자르고 바느질하는 소리, 도자기 물레를 돌리는 소리, 천연 비누 향이 골목을 가득 채운다. 원데이 클래스도 활발히 운영해 나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다. 골목 곳곳에 자리한 벽화와 조형물은 길을 안내하는 훌륭한 이정표가 된다.

주소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길 6 문의 033-743-2580



3대를 이어 온 추억의 맛 원주김치만두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일대를 걷다 보면 김치만두를 파는 식당이 쉽게 눈에 띈다. 한국전쟁 이후 구호물자로 들어온 밀가루에 강원도에서 흔히 먹던 배추와 두부를 넣어 빚은 만두가 지금까지 이어졌다. 원주김치만두는 1970년에 문을 열어 3대째 가업을 잇는 곳으로 현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수제 만두피 속에 절인 배추와 두부로 만든 소를 넉넉히 넣어 깔끔한 맛을 낸다. 메뉴는 찌만두, 튀김만두, 만둣국, 칼만둣국.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건 찌만두(건진만두)로, 만두피의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다. 구호물자에서 비롯된 소박한 음식이 수십 년 세월을 거치며 지역의 고유한 식문화로 정착한 것이 흥미롭다.

주소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길 31-2 문의 033-745-3848



천년 한지의 숨결을 만나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를 이야기할 때 한지를 빼놓을 수 없다. 예부터 원주는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고장이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닥나무의 섬유질을 질기고 단단하게 다지고, 치악산의 맑고 깨끗한 물은 종이의 빛깔을 곱게 만들었다. 조선 시대 왕실에 바치던 우수한 품질의 원주 한지.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현대의 쓰임을 탐구하는 곳이 원주한지테마파크다. 1층 한지역사실은 한지 역사와 선조들의 생활 속 한지의 쓰임을 살펴보는 공간. 한지의 탄생과 출현, 우리 민족의 지혜와 멋, 세계의 종이 등 6개 테마로 구성된다. 기획 전시실에서는 수목 작업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 유준, 이선복 작가의 독창적인 한지 작품을 감상한다. 체험실에서는 물에 푼 닥나무 섬유를 걸어 올려 직접 한지를 떠 볼 수 있다. 야외로 나가면 한지를 활용한 조형물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매년 이곳에서 원주한지문화제가 열린다. 1층 기념품점에서는 전통 한지로 만든 조명과 부채 등 일상에서 쓰기 좋은 물건을 판매한다. 실내에 카페도 있어 관람 후 잠시 쉬어가기 좋다. **KTX**

주소 강원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문의 033-734-4739





경기장 밖에서도 홈런 치는 야구

한국 프로야구 관중 1000만 시대. 올해도 KBO 리그는 상반기 388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넘으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흥미로운 건 야구의 존재감이 경기장 밖까지 확장됐다는 점이다. 야구는 어떻게 강력한 콘텐츠가 됐을까.

한국 프로야구는 출범 때부터 연고지 중심으로 팬층이 탄탄하고 팀 충성도가 높았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온 세상이 야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다. 요즘은 어디서든 야구 얘기다. 암흑 같은 코로 나19 시대의 영향이 컸다. 엔데믹 이후 모임을 금지당한 것에 대한 보복 심리로 사람들은 야구장으로 몰려들어 경기를 보고, 응원을 하며,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전에 비해 젊은 층도 많아졌다. 특히 2030세대와 여성 관중의 유입이 도드라지는데, 2025년 프로야구 팬 가운데 약 57.5 퍼센트가 여성이다. 신규 팬덤의 유입은 프로야구 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치열한 티켓 예매 전쟁을 뚫고 경기장에 입장하면 오픈런으로 유니폼을 사고, 한정판 '야푸(야구장 푸드)'를 아무지게 먹으며 소셜 미디어에 인증 사진을 올린다. 경기가 끝나도 열기는 식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한정판 협업 상품을 수집하고,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줄을 서 굿즈를 산다. 집에서는 야구 예능으로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2차 저작물도 부지런히 게시한다. 심지어 경기가 없는 날도 야구장을 찾는다. 경기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구단들이 야구장에서의 러닝, 요가, 반려견 산책 같은 이색 프로그램을 잇따라 마련한 것이다. 야구가 그라운드 밖 일상 전체를 뒤흔드는 세계관으로 확장된 모습이다.

인기 IP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

야구 산업의 인기는 숫자로도 증명된다. 프로야구 연간 생산 유발액은 약 1조 1121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4653억 원에 달한다. 이 매력적인 숫자를 브랜드와 기업이 놓칠 리 없다. 롯데웰푸드가 10개 구단 엠블럼을 입힌 한정판 빼빼로와 꼬갈콘, 자일리톨을 내놓아 사전 예약 물량을 조기 완판시켰고, 팔도는 한정판 팔도비빔면 패키지를 기반으로 선수 프로필 카드 수집부터 경기 예측과 랭킹 경쟁이 가능한 참여형 이벤트로 야구팬을 공략했다. 인기 캐릭터 춘식이를 앞세워 수년째 프로야구단 굿즈를 출시하고 있는 카카오프렌즈, 롯데 자이언츠와 협업해 부산 매창 오픈 기념 티셔츠를 출시한 유니클로 등 야구 마케팅은 유통 산업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브랜드 입장에서 야구는 무척 매력적인 파트너다. 경기가 시즌 내내 반복 노출되는 데다, 한번 마음을 준 팬은 좀처럼 이탈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 또한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세계관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와는 다른 즐거움을 얻는다. 이제 야구는 그라운드를 넘어 거대한 소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만 잦은 협업이 희소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구단과 브랜드 모두 적정선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예능 콘텐츠 강자로 떠오른 야구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도 야구는 검증된 흥행 카드다. 레전드 프로야구 은퇴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룬 <최강야구>는 '야알못(야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당긴 신화탄이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불꽃야구>도 인기를 끌었고, 여성 운동선수들이 야구에 도전하는 <야구여왕>과 은퇴한 스타들이 유소년 선수들을 선발해 리그전을 치르는 <우리동네 야구대장>이 야구 콘셉트 예능의 저변을 넓혔다. 패널들

이 모여 구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 '입야구'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한화 이글스 전편 연예인들의 처절한 응원을 담은 <전편구역>과 10개 구단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구단·선수·팬 문화에 대해 토론하며 시즌 3까지 제작한 <야구대표자>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입야구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의 화법과 유머를 그대로 옮겨 오며 기존 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신규 시청자에게 친절한 입문 가이드 역할을 한다. 특정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김성근의 겨울방학> <야구기인 입찬규> 같은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야구와 사랑에 빠진 드라마

드라마는 향후 야구의 확장성을 뚜렷하게 증명할 장르로 보인다. 2019년에 방영한 <스토브리그> 이후 오랫동안 야구 드라마가 뜸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야구 소재 드라마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먼저 커리어가 끊긴 야구 선수가 변호사 출신 에이전트를 만나 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너의 그라운드>가 하반기에 편성됐다. 공명과 한효주의 프로야구 직관이 기사화되면서 화제가 됐다. 2027년에는 남다른 능력이 생긴 프로팀 야구 코치가 고교 꼴찌팀 감독으로 부임하는 김우빈 주연의 <기프트>를 선보이고, 김래원·박훈 주연의 <폴카운트>도 방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유부남들의 사회인 야구단 고군분투기를 그린 <서녕야구단>에 오정세와 전해진이 합류 소식을 알렸고, 학창 시절 실제로 야구 선수였던 최현욱도 <그린라이트> 출연을 결정했다. 이처럼 저마다 다른 색깔을 앞세운 드라마들이 불펜에서 몸을 푸는 중이다. 사실 스포츠 드라마는 룰을 알아야 몰입할 수 있어 흥행과 거리가 먼 장르로 여겨졌다. 특히 야구는 유독 룰이 복잡해 진입 장벽이 높은 종목이었다. 그럼에도 야구 소재 드라마가 급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스토브리그>가 증명했듯 좋은 드라마는 경기 장면보다 인물들의 관계와 성장, 좌절과 재기라는 보편적 서사에 집중한다. 승패가 명확하고 역전과 반전이 자연스러운 스포츠 세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야구를 모르는 이도 공감하는 감동을 만들어 낸다.

야구 콘텐츠의 미래

야구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확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성적이 좋아서? 스타 선수가 많아서? 핵심은 이야기다. 야구는 이야기가 풍성한 스포츠다. 경기는 기록으로 남고, 숫자는 서사가 된다. 신인의 성장, 베테랑의 부활, 끝내기 안타, 연패와 연승, 라이벌전과 우승 경쟁까지 한 시즌 동안 수백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진다. 결국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기에 야구도 좋아하게 된다고 봐야 한다. 승패는 하루 만에 잊혀도 끝내기 안타를 치기까지의 시간, 방출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에 서기까지의 과정, 연패를 건디는 팬들의 마음은 오래 남는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세계관을 확장해 가는 공동 창작자로 변화한 팬들의 역할도 야구 콘텐츠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 팬이 스스로 이야기를 이어 가는 콘텐츠야말로 가장 강력한 IP인데, 그런 의미에서 야구는 지금 가장 이상적인 팬덤 구조를 갖춘 장르가 되고 있다. **KTX**

NEWS



© 박서보

박서보재단
연희동에 박서보미술관 개관
한국 현대미술 거장 고(故) 박서보 화백의 예술 세계와 정신을 잇는 박서보미술관이 8월 21일 서울 연희동에 문을 연다. 박서보재단은 박서보미술관에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동시대적 시선으로 조명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이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술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4개의 전시 공간과 젊은 창작자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된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에 운영하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 5000원이다.

홈페이지 psbf.kr



호시노 리조트
‘8월 웰니스 처방전 4선’ 소개
호시노 리조트가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여행자를 위해 웰니스 명소 네 곳을 소개했다. 물안개 자욱한 협곡에 자리한 ‘호시노야 구관’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가 숙면을 돕고, 산호초 섬의 ‘리조나레 고타마지마’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 한잔 즐길 여유를 선사한다. 시마네현 이즈모의 ‘카이즈모’에서는 온천수에 데운 허브 볼로 몸을 찜질하며 이완시키고, 산장 호텔 ‘루시 오제 하토마치’는 훈슈 최대 규모의 고층 승원을 품은 오제 국립공원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제안한다.

홈페이지 hoshinoresorts.com/ko/



홍콩관광청
‘홍콩 서머 펀’ 프로모션 전개
홍콩관광청이 8월 31일까지 홍콩 전역에서 관광·쇼핑·미식 혜택을 한데 묶은 ‘홍콩 서머 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대 500홍콩달러(약 10만 원) 상당의 리워드를 무작위로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은 IFC몰, K11, 타임스퀘어 등 홍콩 내 약 100개 주요 쇼핑몰에서 지정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미식 프로모션도 풍성하다. 주요 가맹점에서 역대급의 1+1 혜택을 비롯해 특정 메뉴를 단돈 10홍콩달러(약 2000원)에 맛볼 수 있는 선착순 이벤트가 열린다.

홈페이지 discoverhongkong.com/kr

〈김윤신, 전기톱을 든 여인〉

한국의 1세대 여성 조각가 김윤신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한 책. 1935년생인 저자는 안정된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로 떠나 붓과 전기톱을 들고 자신만의 조형 세계를 개척했다. 전쟁통에 살아남은 초년기부터 타국에서의 예술적 투쟁, 구순에 맞이한 전성기까지 작가의 뜨거운 인생 여정을 20년 차 미술 전문 기자 권근영이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김윤신, 권근영 지음 안그라픽스 펴냄

〈안녕, 피터팬〉

간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홀로 남은 중증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들을 위해 거처를 찾아 헤맨 기록이다. 말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스물일곱 살 아들을 ‘피터팬’이라 부르는 아버지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아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마을 ‘네버랜드’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다. 한 가족의 아픔을 넘어 한국 장애인 돌봄의 냉혹한 현실을 날카롭게 비춘다.

전경철 지음 이야기장수 펴냄



BOOK

VIDEO

〈오디세이〉

기억과 꿈, 우주, 전쟁 등 매 작품마다 새로운 소재를 탐구해 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고대 그리스 신화를 스크린으로 옮긴다. 트로이 전쟁을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10여 년의 여정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광활한 항해와 대규모 전투, 신들의 시험을 아우르는 대서사를 담아낸다. 8월 5일 개봉.

출연 맷 데이먼, 앤 해서웨이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리틀 드리머즈〉

야구를 그만두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섰던 선수 건우와 예지몽으로 미래의 답을 찾고 싶은 사춘기 소녀 미나 등 저마다 결핍을 안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복권방, 세탁소, 굴다리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꿈속 존재 요섭의 흔적을 쫓는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예지몽을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8월 19일 개봉.

출연 유희제, 김세원 감독 이광호

〈콘크리트 녹색섬〉

개포주공 키즈 이성민 감독이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아파트가 재개발로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얹힌 사람들의 이야기와 풍경을 기록했다. 7년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한 이 다큐멘터리는 개발 논리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무참히 베어지는 나무의 소중함을 되짚고, 그 속에 뿌리내린 추억에 관해 말한다. 8월 개봉.

출연 이성민, 우종영 감독 이성민

〈길 위의 뭉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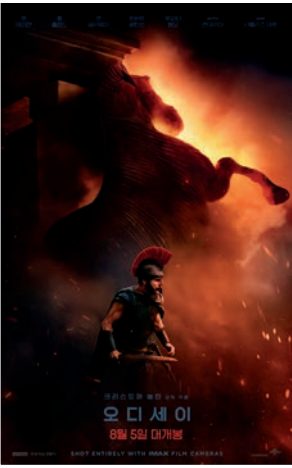
애니메이션 <언더독>이 뉴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온다. 주인공에게 버려진 뭉치가 개 농장에서 탈출한 밤이와 오랫동안 거리 생활을 한 짱아를 만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원작에 4K 해상도 업스케일링과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믹싱을 더해 유기견들의 움직임이 생생하게 구현됐다. 8월 19일 개봉.

목소리 출연 도경수, 박소담 감독 오성윤, 이춘백

〈수련〉

배우를 꿈꾸는 효원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은서는 둘도 없는 친구사이다. 각자 자신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효원이 안톤 체호프의 연극 <갈매기>에서 단역을 따기 위해 연기 수업을 받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흔들린다. 연극 대사는 등장인물의 정서를 고스란히 투영해 깊은 여운을 남긴다. 8월 19일 개봉.

출연 이홍연, 최은서 감독 이찬호



© 김진사화영



Information.

제13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미호강' KTX © 안병희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한국철도공사, 열차 내 리튬 배터리 휴대 금지



열차 내 대용량 리튬 배터리 휴대가 제한된다. 제한 물품은 전동 키펀드, 전기 자전거 등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PM) 일체와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 배터리다.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 해당하며, 수도권 전철과 광역철도는 역사 반입도 금지된다. 단, 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다.

‘차세대 고속열차 EMU-320 도입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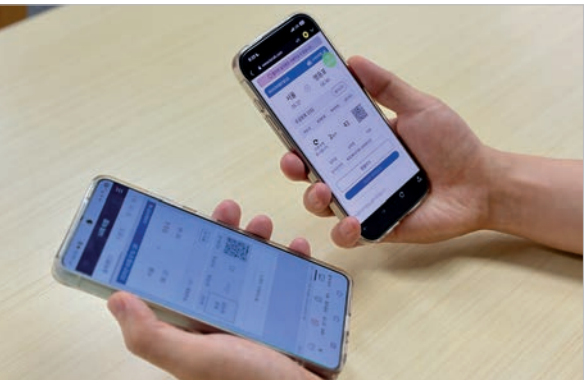
한국철도공사의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사업’이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2033년 기대수명이 도래하는 KTX-146편성을 적기에 대체하고 고속철도 운영 환경을 안정적으로 바꾸고자 추진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대상은 16칸 1편성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EMU-320) 49편성(총 784칸)으로 확정됐다.

지역사랑 철도여행과 함께하는 농촌투어패스



한국철도공사가 반값 기차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지역사랑 철도여행×농촌투어패스’는 열차 운임을 50퍼센트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과 농촌 체험, 음식점, 관광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농촌투어패스’의 혜택을 합친 상품이다. 인구 감소 지역 20곳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코레일톡 앱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열차 승차권 전달 서비스 하루 5만여 명 이용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이용객이 하루 평균 5만여 명에 달하며 ‘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승차권 전달하기는 코레일톡 앱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열차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서비스다. 코레일톡 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특히 온라인 발권 이 낫선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6 철도여행

궤도의 눈빛 - 마산역에서 바라보다

어시장 굽이진 골목을 빠져나온 바닷바람이
비릿한 기억의 비늘을 털며 마산역 광장에 눕는다
오래된 담벼락 아래 층층이 쌓인 시간의 습기는
이제 막 플랫폼에 들어선 열차의 숨가쁜 동력에 달아
내일로 향하는 뜨거운 증기로 치환된다

내 유년의 시선은 늘 낮은 담장 너머를 응시했으나
철길은 완강한 평행으로 미지의 시간을 끌어당긴다
어둠 속에서 명멸하는 신호기의 붉고 푸른 눈빛
그 갈라지는 선로의 분기점 위에서
나는 치열했던 어제와 오늘의 마디를 잇는 가느다란 비늘이 되어
정해진 시각표 위로 스스로를 떠나보낸다

바다는 보이지 않아도 레일 끝에 걸려 있고
골목의 좁은 틈에서 익힌 삶의 문장들은
덜컹거리는 차륜의 진동 속에 스며든다
잠시 멈추었던 풀잎을 흔들며 열차가 들어올 때
나를 키운 이 땅은 거대한 심장이 되어
철길이라는 혈관을 타고 세상으로 고동친다

누군가에겐 그리움의 종착지였으나
내게는 내일로 번져가는 빛의 이정표
쭉빚 어스름이 승강장 지붕 위로 내려앉으면
망설이던 마음의 분기점은 비로소 방향을 틀고
평행한 두 줄기 궤도 위에서 평온을 찾는다

성장의 기록을 싣고 바람이 떠난 뒤
철길 너머로 길게 뻗은 밤의 정적 속에서
나는 다시 나의 시계를 맞춘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이름의 골목으로 달리는
가장 눈부신 궤도의 순간이기에

제12회 철도문학상
국토부장관 수상작
이준혁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는 930mm, KTX-산천은 98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960mm입니다.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와 KTX-산천은 112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1060mm입니다.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	신문 Newspaper  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AED)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 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2호차(4량: 1-2호차 사이, 6량: 2-3호차 사이),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2호차 또는 2·3호차, KTX-청룡 1·2·4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호차 또는 2·3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내 휴대품 기준 (2026년 7월 1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기준)

위험물  철도안전법 제42조, 제43조의 위험품 및 위험물 반입 금지 ※ 위험 물품: 무기, 화약류,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동물  다른 사람에게 위하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 가방 등에 넣은 경우 동반 가능	이동 수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분해 후 전용 가방에 넣은 자전거 단,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 수단 불가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제외)	기타 물품  기타 불결하거나 안 좋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반입 금지
리튬 배터리 제한	여객운송약관 제22조의 휴대품 대용량 리튬 배터리(160Wh 초과) 열차 내 휴대 제한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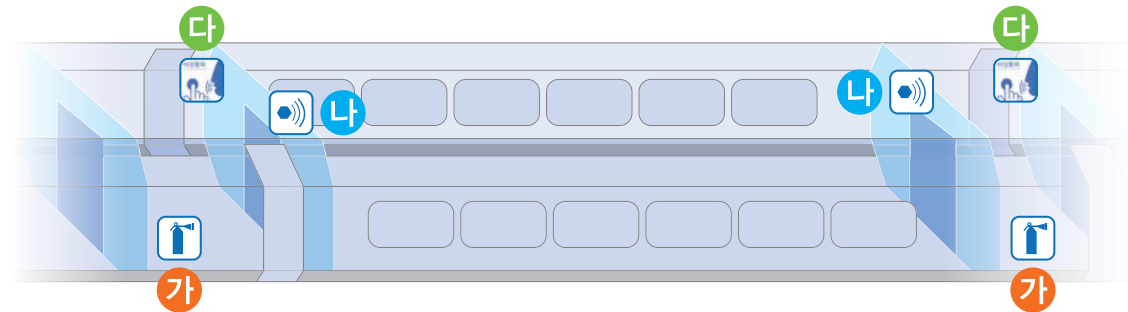
구분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까지	60분 경과 후~도착 시각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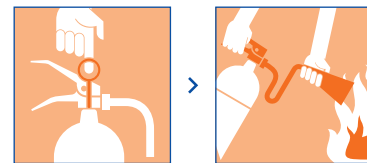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70%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4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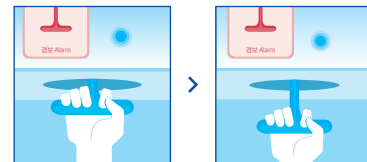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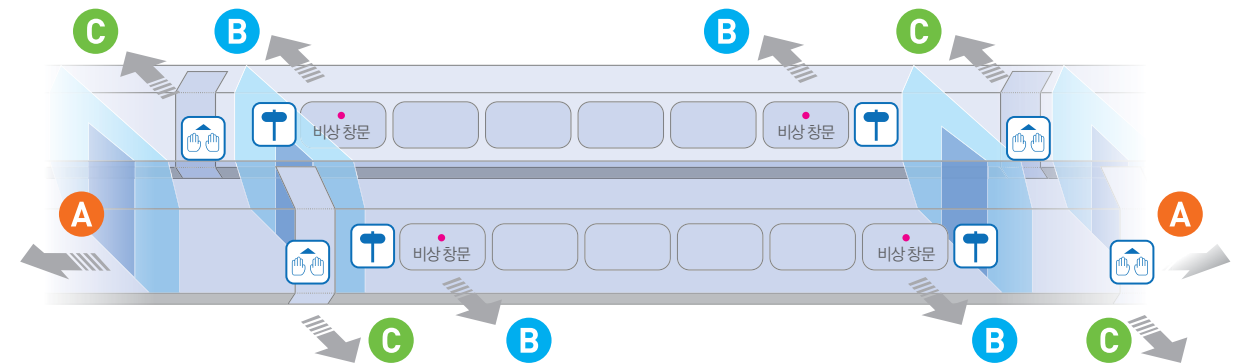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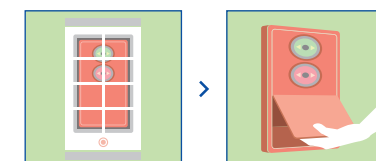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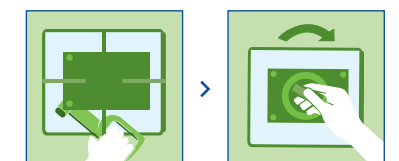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주혜린과 떠나는 음악 여행

무더위엔 밝고 청량한
노래가 최고다. 신예
아티스트 주혜린의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고,
어디선가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온다.



음악 듣기



바람이 불어오는 플레이리스트

1 Lullabye 라빈 르네

늦은 밤 기차를 타고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자주 듣는 노래예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과 어두운 차창에 비친 얼굴이 겹쳐 보일 때, 이 노래가 배경음악이 되어 준다면 홀로 탄 기차에서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2 미친 건가(Re-Make) 주혜린

봄바람이 부는 날을 상상하며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운 바람이 불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시원해지고, 추운 바람을 맞을 때는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곡을 들으면서 같은 기분을 느끼길 바라요.

3 작은마음 언니네 이발관

인트로의 기타 리프가 마음을 사로잡은 날부터 여행길에 꼭 챙기는 곡이 됐어요. 가사에서 쓸쓸한 감정이 묻어나지만, 이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기차 안에서 스치는 풍경을 볼 때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4 Asleep Among Endives 아오바 이치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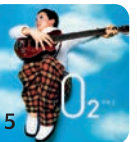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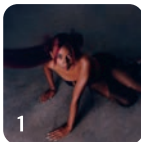
기차 안에서 잠들고 싶을 때 반복 재생해 들어요. 그럼 앨범 커버처럼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 들어선 것 같죠. 기차에서 이어폰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제가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고 싶어서 고르는 곡이에요.

5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박혜경

가사에 '기차'가 등장해서 그런지 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예요. 태양이 뜨는 바다로 향하는 기차 안 주인공을 상상하면, 마치 제가 여행하는 것처럼 설레요. 가족여행을 가는 차안에서도 늘 재생되는, 제게 소중한 노래입니다.

6 Back To The Real Life 윤상

시대를 타지 않는 곡이에요. 제목 때문인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이 들어요. 꿈같은 휴가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화려한 관문 같아요.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죠.



© 주혜린, 팬스, 레몬



주혜린

2021년 디지털 싱글 'Kids'로 데뷔한 싱어송라이터. 팝을 중심으로 알앤비, 일렉트로니카, 재즈를 자연스럽게 결합한 음악을 선보인다. 보컬리스트의 표현력과 사운드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프로듀싱 역량까지 갖춘 창작자로 주목받는다. 지난해 열린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미친 건가'로 올해의 신인과 최우수 알앤비 & 소울 노래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올해도 EP 앨범 <stereo>로 최우수 팝 음반과 최우수 알앤비 & 소울 노래 부문 후보에 올라 신인 아티스트로서 음악적 완성도와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대표곡으로 'Kiss', 'Busy Boy', '미장원' 등이 있다.

언제나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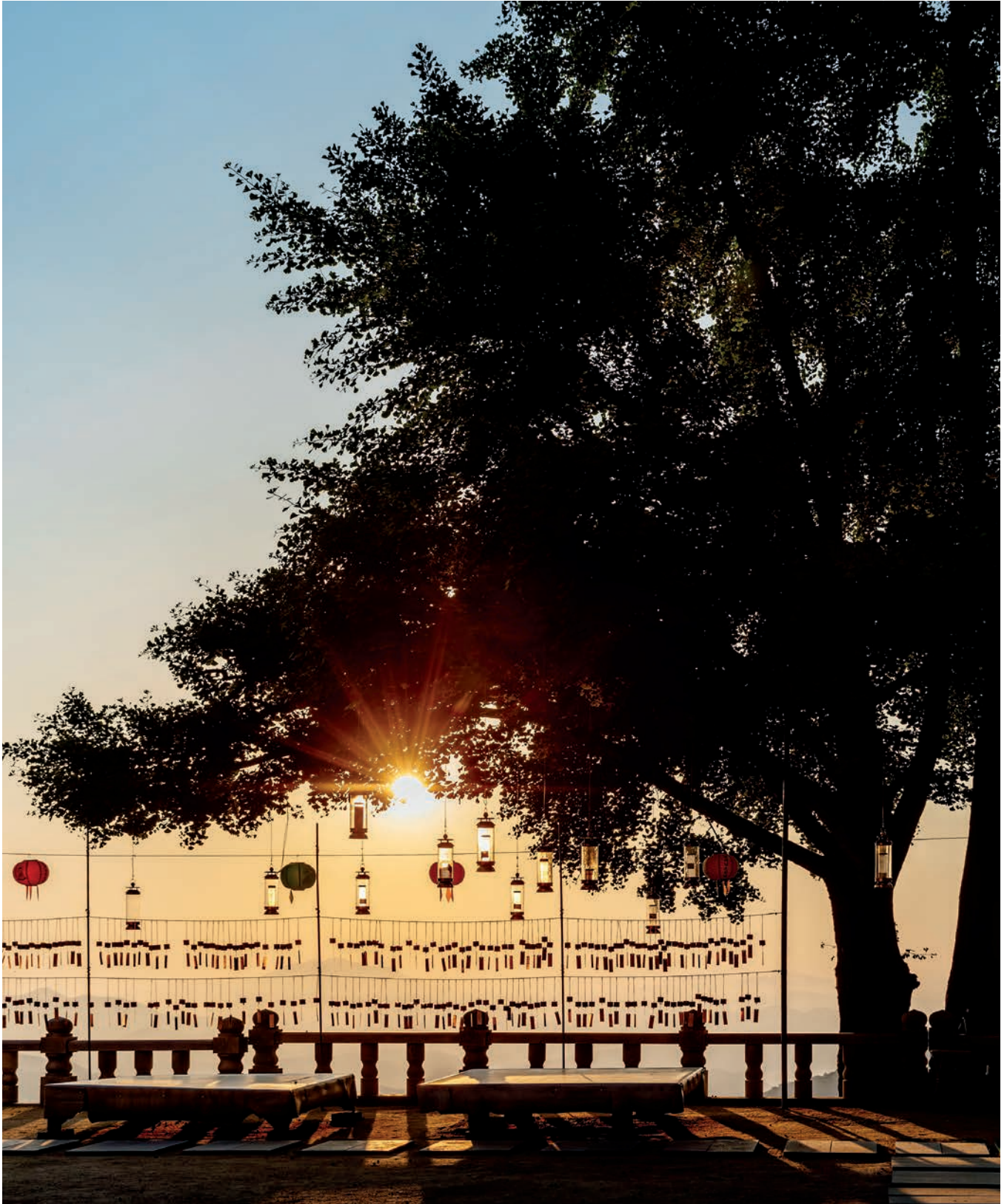


2026

10.2|금|~10.11|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충남 금산의 천년 고찰, 태고사 대웅전에서 맞는 일출.